

1-24-2005

쉐마 교육을 통한 신앙경건훈련 : 구파발 교회를 중심으로

Eul-Young Oh 오을영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dmin> Part of the [Missions and World Christianity Commons](#)**Recommended Citation**

오을영, "쉐마 교육을 통한 신앙경건훈련 : 구파발 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풀러신학대학원, 2005.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SHEMA EDUCATION AND DISCIPLESHIP IN GODLINESS: WITH SPECIAL REFERENCE TO GUPABAL PRESBYTERIAN CHURCH

written by

EUL YOUNG OH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Moon Sang Kwon

Young Shin Kim

Seyoon Kim

January 24, 2005

**SHEMA EDUCATION AND DISCIPLESHIP IN GODLINESS:
WITH SPECIAL REFERENCE TO GUPABAL
RESBYTERIAN CHURCH**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EUL YOUNG OH

JANUARY 2005

쉐마교육과 신앙경건훈련

- 구파발 교회를 중심으로 -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권 문 상 교수

오 을 영

2005년 1월

Abstract

Shema Education and Discipleship in Godliness:
with Special Reference to Gupabal Presbyterian Church

Eul Young Oh
Doctor of Ministry

2005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e Korean Church has much potentiality to grow in numbers. There are 6 Korean churches among the 20 biggest churches in the world. And almost every village, whether in urban or rural area, is flooded by the church buildings. It is not difficult to find a church in business buildings in town. One can see the church building established even in most of the battalion-level Army camps. The number of ordained pastors are estimated to go beyond that of the churches established. Nonetheless, many theological seminaries from various denominations are happy with the growing number of their students. The problem is, however, that the Korean Church has experienced a dire stagnation for the past decade and, what is worse, she now begins to decrease. While there could be many reasons for her stagnation, in the present work we suggest that the church-oriented Christian education may have constituted a part of her problem.

The Korean Church has persisted in their church-oriented Christian education for more than 130 years since she first accepted the gospel the missionaries had delivered. But we are making a transition to the information age from the agricultural through the industrial. Since the traditional church-oriented Christian education proves ineffective in the information age, it is necessary for the Korean Church to seek alternative method of Christian education.

As a way of preparation for this task, we survey what and how the Korean Church has taught her members for the Christian faith and life. A special attention has been given to Gupabal Church which has a history of 46 years. A

questionnaire survey has been practiced to assess the faith and spiritual discipline of the individual members of Gupabal Church both at their home and in the Church.

And then, we attempt to find an alternative way of Christian education in the Jewish Shema-education. For the past 3,200 years the Jews has been practiced this type of education to transmit God's word and their faith in God and teach and train their children. What is significant to note is that this Shema-education proves effective even in the information age like today. Thus it would greatly benefit the Korean Church if she supplement the traditional church-based Christian education with the Shema-education which is more family-based.

In conclusion, we propose two practical ways which the Korean Church can find it practicable. First, she can train and equip the parents with the Shema-word and the teaching method. Second, she can send them back to their home and train and equip their children with the Shema-word.

Theological Mentors: Moon Sang Kwon, Ph. D.

Young Shin Kim, Ph. D.

Seyoon Kim, Ph. D.

감사의 글

먼저 오늘날까지 인도하시고 섭리하여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구파발교회와 영락교회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논문 작성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도해주신 권문상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경과 신약신학을 가르쳐주신 김세운 박사님, 가정사역에 새롭게 눈을 뜨게 해주신 엄예선 박사님, 한국의 전통종교의 실체를 깨닫게 해주신 이정석 박사님과 부심을 맡아 지도해 주신 김영신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뒤에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있는 구파발 교회 모든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뒷바라지 해준 신미향 사모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힘들 때에 돕는자로, 방황 할 때에 안내자로, 게으를 때에 감독자로, 즐거울 때 함께 찬양하는 자로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로 헌신하였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가정의 신앙의 대물림의 희망인 아들 은총이가 있음을 감사하며 평생의 기도후원자인 미국에 계신 장인, 장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논문을 제출하면서도 아쉬움이 여전히 남지만 앞으로 가정신앙교육의 새로운 대안을 개발하는 일꾼으로 헌신하고 사역할 것을 다짐하면서 감사의 글을 마칩니다.

2005년 1월 오을영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문제제기	1
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과 범위	4
제 2 장 유대인 가정 신앙경건훈련역사	6
제 1 절 유대인 가정의 신앙경건훈련 교육	6
1. 유대인들의 신앙경건훈련의 종교적 토양	7
2. 유대인들의 신앙경건훈련은 가정 중심	8
가. 가정은 신앙경건훈련 교육장소	9
나. 가정성전의 3대 조건	10
3. 유대인들의 신앙경건훈련의 부모역할	12
가. 유대인 부모가 자녀는 보는 관점	12
나. 신앙경건 훈련을 위한 부모교육의 역할분담	13
제 2 절 유대인의 신앙경건훈련 교육내용	16
1. 암송할 셰마 말씀	16
2. 암송할 613개의 계명	18
3. 평생 연구할 탈무드	20
4. 셰마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	22
제 3 절 유대인의 신앙경건훈련 방법	22
1. 성장에 따른 신앙교육 내용	23
2. 셰마 교육의 방법	23
제 4 절 유대인의 특별한 신앙경건훈련의 예	25
1. 절기를 통한 신앙경건훈련	25
2. 고난의 역사교육	28

제 3 장 한국교인 교회 신앙경건훈련 역사	30
제 1 절 한국교인 교회의 신앙경건훈련교육	30
1. 한국교인들의 신앙경건훈련의 종교적 토양	30
2. 한국교인들의 신앙경건훈련은 교회중심	30
가. 교회는 신앙경건훈련 교육장소	33
나. 교회의 공동체 훈련	34
3. 한국교인들의 신앙경건훈련의 목회자 역할	36
가. 목회자에 관한 성서적 이해	36
나. 목회자의 신앙경건훈련 교육	38
제 2 절 한국교인의 신앙경건훈련 방법	39
1. 사경회	39
2. 주일학교	40
3. 하기 아동성경학교	41
제 3 절 한국교인의 신앙경건훈련 교육내용	43
1. 사경회 교육내용	44
2. 주일학교 공과내용	44
제 4 절 한국교인의 특별한 신앙경건훈련의 예	46
1. 부흥회	46
가. 철야기도	48
나. 새벽기도	49
다. 구역예배	50
2. 절기를 통한 신앙경건훈련	51
가. 성례전(세례, 성찬)	51
나. 교회절기(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52
제 4 장 구파발 교인들의 신앙경건역사 연구 분석	55
제 1 절 구파발지역의 종합평가	55
1. 지리적, 교통적 상황	56

2. 경제적인 상황	56
3. 종교적 상황	57
4. 구파발지역 '신시지형 은평뉴타운' 건설	58
제 2 절 구파발교회 신앙경건역사	59
1. 구파발교회의 역사	60
2. 구파발교회의 신앙경건 훈련 내용	61
제 3 절 구파발교인들의 신앙경건훈련 연구 분석	63
1. 조사의 범위와 방법	63
2. 조사결과 분석	64
가. 개인의 신앙	64
나. 가정-신앙경건훈련	69
다. 교회-신앙경건훈련	75
3. 요약 및 평가	80
제 5 장 교회에서 웨마 말씀 교육 제언	82
제 1 절 지성교육 웨마 말씀 신앙경건훈련	83
1. 송구영신 및 신년예배	83
2. 웨마 말씀의 날	84
3. 웨마 청소년 비전학교	85
4. 웨마 청년 제자사역	86
5. 웨마 가정 부부 성경공부 반	86
6. 웨마 노인대학	87
제 2 절 인성교육 웨마 말씀 신앙경건훈련	87
1. 웨마 세례식(영적 결혼식) 큰 잔치	88
2. 웨마 성년식(13세) 큰 잔치	89
3. 웨마 고난의 역사체험학교	91
4. 웨마 절기학교	92
5. 웨마 예절학교	92

6. 웨마 가족공원	93
제 3 절 교회에서 웨마 말씀교육 시행에 따른 평가	94
1. 지성교육 웨마 말씀 신앙경건훈련 장단점	94
2. 인성교육 웨마 말씀 신앙경건훈련 장단점	96
제 6 장 가정에서 웨마 말씀교육 제언	99
제 1 절 웨마 가정성전	99
1. 웨마 가정성전 선포	99
2. 웨마 말씀전수 부모역할	100
3. 웨마 말씀내용	100
가. 구약 율법 613개 계명	101
나. 신약 산상수훈 말씀(마 5:1-7:29)	103
다. 암송할 신구약성경구절	103
제 2 절 웨마 절기교육	104
1. 주일 저녁 웨마 가정예배	104
2. 지역별 웨마 절기축제	106
3. 웨마 구역예배	107
4. 웨마 기도생활	107
제 3 절 웨마 말씀전수 유익한 것들	108
1. 자녀 마음에 꿈을	108
2. 하나님 만난 체험 간증	109
3. 웨마 가족의 날	109
제 4 절 가정에서 웨마 말씀교육 시행에 따른 평가	110
1. 웨마 가정성전의 장단점	110
2. 웨마 절기교육의 장단점	111
3. 웨마 말씀전수 유익한 것들의 장단점	112
제 7 장 결론	115

부록	117
참고 문헌	172
Vita	178

표 목 차

<표 1> 나이	65
<표 2> 친가	65
<표 3> 외가	65
<표 4> 구파발 교인으로서의 금지는?	66
<표 5> 구파발 교회 출석한 시기	66
<표 6> 거듭남의 체험	67
<표 7> 하루에 성경 읽는 시간	68
<표 8> 하루의 기도시간	68
<표 9> 신앙경건훈련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69
<표 10> 신앙경건훈련 책임질 사람	69
<표 11> 직접 성경을 가르침에 대하여	70
<표 12> 성경을 직접 가르치는가?	70
<표 13> 성경을 직접 가르치기 위해 교재개발이 시급한가?	71
<표 14> 신앙경건훈련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71
<표 15> 가정예배 횟수	71
<표 16> 가정에서 특별히 절기를 지키는가?	72
<표 17> 자녀와의 대화시간	72
<표 18> 가정에서 자녀들과 신앙적인 대화를 얼마나 하는가?	73
<표 19> 온 가족이 매일 성경(5쪽)을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는가?	73
<표 20> 가정에서 밥상공동체의 말씀을 암송하고 식사기도를 하는가?	74
<표 21> 자녀를 위한 축복기도 횟수	74
<표 22> 신앙의 대물림 모델	74
<표 23> 자녀를 구파발 교회에 보내는 이유	75
<표 24> 동네 교회에 보내는 이유	76
<표 25> 주일설교를 듣고 신앙경건훈련에 도움을 받는 정도	76

<표 26> 교회에서 부모들에게 신앙경건훈련 강조하는 정도	77
<표 27> 구파발교회에서 신앙경건훈련을 위한 교육자료 제공하고 있는가?	77
<표 28> 교회에서 자녀를 교육시킬 신앙경건훈련 교제를 제공받기를 원하는가?	78
<표 28> 교회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한 부모교육 참석여부	78
<표 29>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 참여 정도	78
<표 30> 신앙 대물림의 만족도	79
<표 31> 교회 오는 가장 즐거운 이유	79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 제기

우리나라에 미국 상선 제너럴셔먼호를 타고 조선반도의 내지까지 들어와 복음을 전하다가 칼을 맞고 최초로 순교한 목사는 장로교 출신인 로버트 토마스(Robert J. Tomas) 목사였으며 이 땅에 최초 순교의 피를 흘린 때는 1866년 9월 2일, 그의 나이 27세였다(<http://www.hannaradang.com/tomas.htm>).

그 이후 많은 선교사들에 의하여 복음이 전해져 한국의 개신교회는 세계교회가 괄목할 만한 교회로 성장하여 세계에서 교인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20위 안에 들어가는 교회만도 여섯 교회나 된다.¹⁾

한국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농촌의 리(理) 단위까지, 군(軍)부대는 대대(大隊) 단위까지 교회가 세워졌고, 도시에는 오래된 전통을 가진 교회들 뿐 아니라 큰 상가 건물마다 개척교회가 들어서서 교회의 흥수를 이루고 있다. 또한 목회자와 교회를 살펴보면, 목회자의 숫자(1997년 39,838명)가 교회의 숫자(1997년 33,566개)²⁾보다 훨씬 많아서 임지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를 살펴보면 크고 작은 교파와 교단마다 인가 받은 정규 신학교가 있으며, 비인가 신학교를 계속 세워서 지나치게 많은 숫자의 신학교가 있다. 그럼에도

1) 정명섭 역, *세계의 20대 교회들* (서울: 요단출판사, 1985), 41-87.

“세계에서 20위에 들어가는 한국교회로는, 500,000명의 교인이 있는 서울의 순복음중앙교회, 변화된 생활의 교회로 서울의 광림감리교회, 세계 제일의 장로교회인 서울의 영락교회, 강한 메시지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교회로 서울의 성락침례교회, 천국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교회로서의 서울의 충현장로교회.”

2) 한미준, *한국개신교인의 교회활동과 신앙의식*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9), 148-150.

불구하고 신학교 마다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신학생들이 몰려들고 있다. 지금은 미국의 신학교 중에 한국인 신학생들이 없으면 학교를 문 닫아야 할 정도로 신학생들이 많다.

한국교회는 성장할 수 있는 외형적인 요소를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 동안 교인수의 성장은 오히려 둔화되고 있다. 1998년도 한국 갤럽 조사서에 의하면, 개신교 인구는 전체인구의 20.7퍼센트(약 970만 명)이다. 최근 10년간 종교 인구는 3.8퍼센트 증가되었는데, 이 중에서 불교는 2.5퍼센트 증가한데 비하여 개신교는 1.5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한국 교회 전체 교인 수는 거의 증가되지 않는 정체상태에 놓여있음³⁾을 보고하고 있다. 더욱 충격을 주는 것은 대한 예수교 장로교 통합측 2002년 12월 말 교세 통계표를 보면 전체교인 수가 2001년 말 2,328,413명에서 2002년 말 2,329,002명으로 유아세례 교인을 포함하여 589명(0.03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⁴⁾ 21세기를 바라보며 한국교회의 성장이 여기서 멈추고 하향 곡선으로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성장이 멈춘 원인을 찾아내어 이것을 극복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세계 선교에 주역이 될 것인가?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교회 성장이 멈춘 원인과 그 극복의 가능성을 가정교육에서부터 찾아보려 한다. 한국교회는 지난 100년간은 “선교”에 목회 중심을 두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념해왔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외형적인 성장을 중시하여 교회 출석교인 수에 큰 관심을 두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선교적인 노력은 교육적으로도 교인들을 내실 있는 기독교인으로 성숙시키는 노력이 뒷받침 될 때에 교회가 균형 있고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다.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해 있는 한국교회는 이제 교육적 노력을 병행하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기독교인으로 양육시킴으로 선교적 노력의 결과를 계속 유지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조사에 의하면 한국교회는 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최고의 성장곡선을 이루었다. 이러한 성장은 90년대 초반 이후 들어서 원만한 하향곡선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통계들이 말해주는 것은 이 시점에서 한국 교회는 이미 이론 외적인 성장을 내적인 교육으로 보충하고 내실을 다져야 하는 시대적인 요청에 직면하여 있다는 것이다.

3) 한미준, *한국개신교인의 교회활동과 신앙의식*, 153.

4) 김상학, *총회회의안 및 보고서*, 제 87호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2003), 114.

한국교회는 그동안 선교에 중점을 두어 교회학교 교육에 열심을 두어 왔다.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은 선교 초창기에 유교의 사상을 지닌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결실을 거두기가 어렵게 되자 전도하기 쉬운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전도하였다. 그 결과 교회는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교회는 어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가르침을 받은 어른들을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하여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였다. 유교문화권에서 나온 어린아이들은 가정 안에서 부모(비 신앙인)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을 수 없으므로 교회학교 교사들을 통하여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신앙이 3-4대 이어져 내려오는 많은 신앙의 부모들은 가정 밖으로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선교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 왔지만 정작 자신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보다는 오히려 교회학교 교사에게 전적으로 맡기어 왔고, 자녀들이 교회학교에 잘 출석하는 것으로 신앙경건훈련을 대신하였다. 농경문화와 유교 문화권에서는 교회학교 교사의 권위와 영적인 힘이 사회적으로 인정되던 시대이었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학교 교사가 주일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학생들이 순수하게 신앙을 받아들여 약 100년 동안 교회성장에 큰 원동력이 되어왔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부터 산업화 사회가 시작되었고, 2000년대는 IT산업의 발달로 자녀들이 안방에서 세속화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게 되었다. 또, 군사독재 정권을 잡은 자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민족정신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제거하고 대신 영화, 스포츠, 섹스라는 세속화된 문화를 보급하였다. 독재 정권이 장기 집권하는 과정에서 어른과 스승을 공경하는 유교문화가 사라졌다. 이와 함께 교회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교사의 권위와 영적인 힘을 자연스럽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문화가 계속되는 한 자녀의 신앙교육을 교회학교 교사에게만 맡기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선교 138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교회는, 교회에 처음 나온 새로운 신자들 뿐 아니라, 기존의 신앙의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 세대에게 신앙경건훈련을 올바르게 전수하는 교육적 노력에 관심을 기울일 시점에 놓여 있다. 선교 138년이면 시간적으로 한 세대를 30년으로 계산할 때, 3대 혹은 4대의 세대가 교체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주일학교를 통한 신앙경건훈련이 무너져 가는 시점에서 이제 한국교회는 가

정에서 신앙의 부모세대가 자녀세대에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경건훈련을 직접 시킬 수 밖에 없는 시점에 왔다고 할 수 있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과 범위

지금까지 선교 1세기 동안에 이룩한 한국교회의 교세와 교인들의 신앙에 대한 열정과 순수성을 찾아내어 다음세대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물려주며 이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가정에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 대를 이어 나가는 것을 한국 교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의 한 방안이라고 보고, 이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그래서 새로운 대안으로 가정에서 부모세대를 통한 신앙경건훈련 교육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 이에 대한 실제적인 방법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하여 본 논문에서는 한국교회 안에서의 신앙경건훈련교육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더 나아가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경건훈련에 대한 새로운 바람을 불러넣는 계기를 기대하면서 연구하려 한다.

그런 목적을 위하여 본 논문은 우선 가정에서의 신앙경건훈련 교육의 성공적인 모델을 설정하였는데, 이를 유대인들에게서 찾았다. 유대인들의 신앙경건훈련은 세계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것으로 알려졌고 검증되었다. 교육내용으로 아주 독특한 셰마 말씀을 가지고 있다. 유대인들은 구약성서에 제시된 이 셰마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경건훈련을 직접 시키어 4,200년 동안 계속하고 있음으로 기독교 교육에는 하나의 좋은 범례가 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대인의 신앙경건훈련의 내용인 셰마 말씀을 모델로 제시하였다. 이를 구체적인 기독교 가정교육의 실천과 연결시키기 위하여 한국의 한 교회를 선정하여 그 곳에서의 신앙경건훈련 교육의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그 한 모델로 서울의 구파발 교회를 선택하였다. 그 이유로 구파발 교회는 서울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의 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4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또, 구파발 지역은 2004년부터 서울의 강북에서 가장 살기 좋은 은평 뉴

타운 신도시가 건설되기 시작하여 2008년이 되어 14,0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지금 살고 있는 5,560세대보다 더 많은 세대가 유입되므로 교회에는 새로운 교인들이 정착하게 될 것이다. 구파발교회는 한 목회자가 37년간 한 장소에서 목회를 하셨다가 정년으로 은퇴 하셨고, 지금은 4년 전부터 새로운 목회자가 부임하여 기존 교인들과 은평 뉴 타운 아파트로 입주하여 교회에 등록할 새로운 교인들을 바라보며 신앙경건훈련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연구 방법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우선 1장에서는 한국교회에서 교회성장을 위한 외형적인 모든 요소(많은 교회, 많은 목회자, 많은 교사)를 갖고 있는데도 교인 수가 감소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새로운 대안으로 유대인 가정에서 하는 셰마 말씀 교육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한국교인 가정에서도 셰마 말씀의 신앙 교육방법을 통한 신앙경건훈련을 제시하려고 한다. 2장에서는 유대인들은 3,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 전수 받은 셰마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경건생활을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대로 하고 있다. 그들은 신앙경건훈련 교육을 어느 곳에서 하며, 셰마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며, 어떤 교육방법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는지 찾아내어 셰마 말씀 모델을 제시하려 한다. 3장에서는 138년의 기독교 역사가를 가진 한국교회는 어떤 문화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살펴보고, 유대인과 한국인의 종교적인 공통점을 찾아보려고 한다. 또, 한국교인의 신앙경건훈련 교육은 어느 곳에서 하며, 신앙경건훈련 내용은 무엇이며 어떤 교육방법으로 훈련시켰는지 살펴보려 한다. 4장에서는 한국교회를 대표하여 구파발 교회를 통하여 신앙경건훈련을 그동안 어떻게 해 왔으며, 또,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신앙경건훈련을 하였는지 설문조사를 통하여 데이터를 얻어서 조사, 분석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한다. 5장에서는 교회에서 실시 할 수 있는 셰마 말씀 교육을 대안으로 제시하려고 한다. 교회에서는 셰마 말씀의 날을 제정하고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배울 수 있는 셰마 말씀 교육과정을 만들고, 사람의 인성을 통한 셰마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 종류의 행사를 해야 한다. 6장에서는 신앙경건훈련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셰마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 방법, 가정성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부모의 역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신앙경건훈련들을 대안으로 제시하려고 한다. 마지막 결론으로 7장에서는 마무리하려 한다.

제 2 장

유대인 가정 신앙경건훈련역사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의 후손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셨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시내산 밑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지금까지 3,200년간 전수되어 오고 있다. 유대인들은 율법 중에서 셰마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셰마란 히브리어 단어는 들으라는 뜻으로(신 6:4-9), 유대인들이 자녀에게 자자손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축복의 말씀이다. 유대인들은 셰마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셰마 말씀 중심으로 신앙경건훈련을 시킨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날을 장구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효가 심히 번성하리라”(신 6:1-3).

먼저 유대인들이 가정에서 셰마 말씀을 가지고 신앙경건훈련 교육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유대인 가정의 신앙경건훈련 교육

유대인들은 가정은 부모로부터 셰마 말씀을 배우는 신앙경건훈련의 장소로,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로 생각한다. 먼저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셰마 말씀을 받았을 때의 종교적 토양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유대인들의 신앙경건훈련의 종교적 토양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40년간 신앙경건훈련을 시키셨다. 유대인들은 우상을 전혀 볼 수 없는 곳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타종교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에서 우상을 섬겼던 것을 기억하고 돌출행동도 하였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우상은 곧 사라졌다.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 그 땅에는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창 15:19-21) 이미 살고 있었으며 이들은 여러 종류의 이방신들을 믿고 있었다. 이들이 섬기던 이방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고신은 엘(EL)신으로 다른 신들은 모든 일을 그에게 아뢰었다. 그렇지만 실제적인 면에서는 바알신이 더 중요한 의미를 그들에게 갖고 있었다. 구약에서 그의 이름은 여러 장소의 지명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는 뛰어난 다산(多産) 신으로, 폭풍의 신인 하닷과 동등한 존재로 구약에는 알려져 있었다. 바알과 다곤 신전이 우가릿에 하나 있었다. 바알이 지하계(地下界)에 내려가 부재중 일 때는 아타르(Attar)신이 바알을 대신했다. 바알은 엘 신의 배우자였던 아드룻(Aterat)의 아들이었다. 여신들 중에는 아낏(Anath)과 아세라(Asherah)와 아스다룻(Astarte; Ashtaroth)이 있었는데, 이들은 성(sex)과 전쟁의 여신들이었다. 아낏은 농경의식에서 중요하게 의식되었다. 이 여신은 아타랏(Attarat)신과 관계가 있다. 세 번째 여신인 아세라(아드룻)는 엘의 배우자였다. 사루(Sharu; 새벽별)신과 샬무(Shalmu; 저녁별)신과 달의 신 야루(Yarhu)와 그의 배우자 니칼(Nikkal)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의해서 숭배된 것은 확실하다. 다른 신들로는 재앙과 죽음의 신인 레셉(Resheb)과, 가뭄과 죽음을 지배하며 바알의 적수인 모트(Mot)가 있다.⁵⁾

가나안 원주민들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에서 단을 쌓고 조각한 신상들을 놓고 이방신들을 섬겼다. 또, 성경에 보면 자녀를 몰렉에 주어 불로 통과케 하기도 하였다(레 18:21).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세마 말씀을 온전히 자손 대대로 전수시키기 위하여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하고, 그들이 섬겼던 이방종교의 모든 것들을 제거하

5) 한영제, *기독교백과사전*, 제1권 (서울: 기독교문사, 1980), 59.

고, 그 자리를 거름더미로 만들라고 명령하셨다. 또,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 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찌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네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신 7:1-5).

이처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타 종교의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 하셨다. 또 가나안 땅을 점령한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본적이 없는 자들이었다. 그러므로 가나안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광야 40년 때보다 좋은 종교적 토양에서 신앙경건훈련을 하게 되었다.

2. 유대인들의 신앙경건훈련은 가정 중심

이스라엘 땅에는 많은 종류의 유대인들이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세마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정통파 유대인의 가정을 중심으로 한 신앙경건훈련을 살펴보려한다. 왜냐하면 정통파 유대인은 가장 보수주의를 고집하는 종파이기 때문이다. 모세의 종교적 전통과 계율을 전면적으로 굳게 지키고 있다.⁶⁾ 그러므로 이들은 모세 때에 행하던 신앙경건훈련을 지금까지 가정에서 그대로 행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를 방랑하면서도 이방문화에 물들지 않은 것은 유대인들의 가정에서 행한 신앙경건훈련 때문이다.

유대인의 가정은 신앙경건훈련의 최우선 장소이다. 또한 “가정이야말로 그들의

6) Kling Simcha, *Embracing Judaism* (New York: The Rabbinical Assembly, 1987), 30-31.

신성한 성전”⁷⁾이라고 믿고 있다. 유대인이 전 세계를 방랑하면서도 이방 문화에 물들지 않고 열조가 물려준 신앙의 세대 차이를 막았던 핵심교육은 바로 가정교육이다. 유대인은 가정의 질서를 존중한다. 유대인의 가정교육은 군대 이상으로 철저하다.⁸⁾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신앙경건훈련을 시키는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적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권위가 자녀들을 정신적으로 조리 있는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믿는다.⁹⁾ 한편 가정에서 가정의 일에 대한 모든 결정권은 어머니에게 있다.¹⁰⁾ 유대인 부부 사이에는 대화의 원칙이 있다. 부부사이에는 웬만해서는 화를 안 낸다. 부정적인 이야기도 금하고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만을 하도록 노력한다. 따라서 자녀나 남을 비방하는 이야기보다는 그들의 장점만을 이야기 한다.¹¹⁾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경건한 신앙의 자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좋은 종교적 토양을 가지고 있다. 이제 구체적으로 셰마 말씀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가. 가정은 신앙경건훈련 교육장소

유대인은 가정이 성전이란 개념을 갖고 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든 가정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다. 먼저 아담과 하와가 만든 가정이 성전임을 어원적으로 살펴볼려 한다.

히브리어로 남자를 이쉬 *ish*라고 부르고, 여자를 이쉬, *ishah*(남자에서 나왔다는 뜻)라고 부른다.¹²⁾ 또 가장 거룩한 히브리어 네 자로 된 하나님의 이름(*יהוה*) 중 두자가 남자의 이쉬에서 한자(*י*), 그리고 여자인 이쉬에서 한자(*ה*)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미면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그 부부가 꾸민 가정 속에 임재 하신다. 이 말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면 하나님의 신이 그 가정에 임재 하신다는 뜻으로 즉 성도가 결혼하여 이루어진 가정은

7) 현용수,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 1권 (서울: 조선일보사, 1998), 204.

8) Ibid., 324.

9) Ruth, Shilo, *아들딸은 유태식으로 키워라*, 김현수, 방계숙 역 (서울: 민지사, 2000), 45-46.

10) 현용수,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 3권, 65.

11) 현용수,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 2권, 81.

12) Nosson Scherman & Meir Zlotowitz, eds., *The Chumash* (Brooklyn: Mesorah, 1994), 13.

성전이다.¹³⁾ 또한 유대인의 가정이 성전임을 그들의 안식일 절기에서도 볼 수 있다. 그들은 현재에도 각 가정의 안식일 식탁을 광야의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예식처럼 지킨다. 여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 주후 70년에 유대인은 로마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겼고 그 후부터 가정의 식탁을 성전으로 대신하였다.¹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 없는 식탁을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사 28:8)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의 상이라 하더라”(겔 41:22b)에서 “여호와 앞의 상”은 여호와 앞의 “제단”(겔 41:22a)을 뜻한다. 유대인의 식탁은 하나님에게 축복받는 장소요, 안식의 장소요, 먹는 기쁨의 장소요, 여호와와 말씀의 전하는 장소요, 조상의 전통을 후세에게 전하는 장소요, 가정의 화목을 이루는 천국의 모형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첫째 음식을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를 해야 하고, 둘째, 여호와와 율례와 법도에 따라 먹어야 하고, 셋째, 정결한 음식만을 먹어야 하고, 넷째, 여호와와 말씀을 배우며 먹어야 한다. 그리고 다섯째,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먹어야 한다.¹⁵⁾

그러므로 유대인은 가정이 성전이기 때문에 가정에 기쁨이 넘치고 화기애애하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그들은 가정에서 떡을 떼는 시간, 즉 식사 시간을 최대한 이용한다. 그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데에는 그들의 식사문화가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¹⁶⁾

나. 가정성전의 3대 조건

가정은 성전이기 때문에 가족원이 거룩하여 세속과 구별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레 19:2)고 말씀하셨다. 이처럼 가정성전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가정 안에 사는 사람들이 육적 청결, 마음 청결, 영적 청결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3) 현용수,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 1권, 324-326.

14) Lamm Maurice, *Living Torah in America* (West Orange, NJ: Behrman House, Inc., 1993), 54-55.

15) 현용수,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 3권, 176.

16) 현용수,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 1권, 343.

(1) 육적 청결

유대인의 육적 청결은 몸을 깨끗이 하고 옷을 빨고 주위환경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을 말한다. 세계 어느 민족보다 깨끗한 민족이 유대인이다. 그들은 가정의 개념이 성전이기 때문에 여호와와 율례와 법도에 따라 가정이 까다롭다 싶은 정도로 청결하게 유지한다. 매주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대청소를 한다. 일년 열두 달 그들의 달력을 보면 쉬는 달이 없을 정도로 절기로 꽉 차있다. 한 절기가 끝나면 다음 절기를 정성껏 준비한다. 매절기마다 대청소를 해야 하는데 특히 유월절 때는 더욱 철저히 대청소를 한다.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몇 주 전부터 온 집안을 대청소하며 효소가 들어있는 음식도 없앤다. 음식 담은 그릇과 요리기구들은 정결 예식에 따라 끓는 물에 삶고 불꽃에 그슬린다. 또한 손 씻는 것은 물론 목욕도 철저히 하게한다. 특히 여성들은 목욕을 자주하고 화장도 깔끔하게 한다. 왜냐하면 가정은 성전이기 때문이다.

(2) 마음의 청결

성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눈에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이다. 눈에 보이는 집안이나 교회를 청결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나 보이지 않는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유대인의 가정에서 마음을 타락시키는 모든 육의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자녀 교육의 필수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그들은 나쁜 비디오나 성에 관한 사진이나 잡지, 술, 담배, 마약 등 자녀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모든 물건이나 책들을 성전인 가정에서 추방한다.

(3) 영적 성결

가정의 육적 청결과 마음의 청결은 바로 영적 청결을 이루도록 도와준다. 인간의 영적청결은 기도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생활로 가능하다. 영적 성결을 유지하는 정통파 랍비 에들러 스테인은 “나는 아침 5시에 일어나 6시에 회당에 가서 새벽기도를 40분 동안 드리고 그후 30분간 탈무드를 읽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아침식사를 하고 직장에 갑니다”라고 간증하고 있다.¹⁷⁾

17) 현용수,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 1권, 331-342.

이처럼 유대인은 가정이 성전이기 때문에 청결하게 할 뿐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 자신도 육적, 마음적, 영적으로 성결하게 하여 거룩함을 유지합니다.

3. 유대인들의 신앙경건훈련의 부모역할

유대인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교육하는 일은 철저히 분업화되어 있다. “자녀에게 사상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버지의 역할이고, 정서교육은 어머니의 몫이다.”¹⁸⁾ 다음은 유대인들은 자신의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가. 유대인 부모가 자녀를 보는 관점

유대인 어머니는 임신을 하면, 자신이 낳을 아이를 받기 위한 거룩한 강보를 정성스럽게 수를 놓아 만든다. 그리고 출산할 때 아이가 산모와 분리되는 순간 그 강보로 아기를 감싼다. 세속과 구별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나온지 8일 만에 선민의 표로 할례를 행한다.¹⁹⁾ 이처럼 유대인은 출생부터 선택받은 선민으로 거룩히 구별하여 키우려고 한다.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와 주신 기업(선물, a gift of the Lord)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말씀 중 “자식은 여호와와 주신 기업”이라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자녀의 근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둘째, 자녀는 하나님의 유산 상속자이다. 이 선물(gift)이란 단어를 히브리적 사고로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유산”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유대인의 자녀개념은 하나님의 유산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기업인 가나안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자들이다.²⁰⁾ 또 부모들은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자녀들에게 가르쳐 전수시켜 “말씀 받은 자(율법의 아들)”로 키워야 할 사명이 있다.²¹⁾ 그러므로 유대인 부모들이 자녀를 보는 시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가 다음 후손에게 “말씀을

18) 현용수,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 1권, 257.

19) 현용수, *부모여 자녀를 제자 삼아라* (서울: 아름다운 세상, 2000), 82.

20) 현용수,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 1권, 278.

21) 현용수, *부모여 자녀를 제자 삼아라*, 137.

전달하는 전달자”로 보고 있다.

나. 신앙경건훈련을 위한 부모교육의 역할분담

유대인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철저하게 신앙경건훈련을 시키고 있다. 이때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신앙 교육하는 것들이 철저하게 나누어져 있다. 먼저 아버지가 자녀를 교육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아버지교육

가정에서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의 개념과 동일하다. 즉 가정에서 자녀들의 “아버지”와 신령한 교회에서 성도들이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의 사역적인 면에서 동일하다. 히브리어에서의 “아버지”는 가족 관계에서 사용되지만, 그 사역 면에서는 네 가지 뜻을 갖고 있다. 첫째, 공급자(supplier), 둘째, 보호자(protector), 셋째, 인도자(guider), 넷째, 교육하는 자 혹은 훈계하는 자(instructor)이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선민사상을 전수해주는 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 특히 탈무드에 의하면, 유대인의 토라 교육은 남성이 맡는다. 따라서 유대인 자녀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아버지인 동시에 선생님으로 모신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인 선생님”으로 부르고 있다.²²⁾

또, 아버지의 교육은 첫째, 그들의 조상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자손 대대로 말씀의 변질 없이 순수하게 보전하느냐 하는 것이고, 둘째, 어떻게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여 의롭게 사느냐 하는 것이다.²³⁾ 아버지는 자녀를 가르칠 때에는 주입식으로 강요하지 않고 지혜를 써서 스스로 따라오도록 한다. 아버지는 자녀가 기쁨으로 율법의 말씀을 실천하도록 유도한다. 지혜교육은 머리를 고도로 써서 가르치는 교육이다. 교육에 관한 유대인의 격언에는 “자녀가 성장해 가면서 부모를 잊는 것은 부모의 교육이 나빴기 때문이다.”²⁴⁾라 하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자녀교육에 사용된 습관화된 방법 중에 하나는 자녀를 껴안는 것이

22) 현용수,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 2권, 52-53.

23) 현용수,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 1권, 117.

24) Marvin Tokayer, *잘못한 탈무드* (서울: 기독 태인 문화사, 1989), 234.

다. 유대인의 속담에 “오른손으로 벌을 주었으면 왼손으로 껴안아 주라”는 말이 있다.²⁵⁾ 유대인 부모는 자녀를 키울 때 처벌과 애정 표현을 적절히 조화시켜 가르친다.

(2) 어머니 교육

유대인의 자녀는 어머니에 따라 유대인이냐 아니냐가 결정된다. “아버지가 이방인이더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이다.”²⁶⁾ 가정에서 어머니가 자녀들과 늘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많으므로 어머니가 성경말씀대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자녀를 훈련시킨다(잠 22:26). 유대인 어머니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반복교육”²⁷⁾을 사용한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취침할 때까지 자녀들을 가르치며 반복교육을 통하여 습관을 만들어내고, 유대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철저하게 가르치고 감독한다.²⁸⁾ 그러므로 유대인 자녀는 어머니 교육에 의하여 유대인으로 만들어진다.

유대인부모는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성경말씀을 읽어주는 독특한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다. 아이들이 깨어 있을 때에는 자녀들을 악한 형실에서 구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 잠을 잘 때는 부모가 그들의 영혼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꿈에서라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지내도록 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어 준다. 이러한 경험을 가진 자녀가 성장하여 어머니가 되며 마찬가지로 자신의 자녀에게 잠자기 전 이야기를 들려주게 된다. 이로써 유대인의 신본주의 자녀 교육방법도 대물림된다. 또, 유대인 어머니는 자녀들이 잠을 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셰마 기도를 외우게 한다. 셰마는 유대인의 성경적 자녀 교육의 대명사이다.²⁹⁾

어머니 교육에 의하여 “자선하는 유대인”이 만들어진다. 유대인들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은 습관화 되어있으며 어려운 사람을 돕는 방법도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직접 가르친다. 유대인 가정마다 남을 돕기 위한 조그마한 저금통(꺄다카 박스)이 있다. 유대인 어머니는 금요일 오후 안식일 촛불을 켜기 전에 나이 어린 자녀들 앞에서 먼저 저금통에 동전을 넣는다. 그러면 자녀들도 각자가 준비한 동전을 넣는다.³⁰⁾ 이렇게 모

25) Ruth Shilo, *아들딸은 유대식으로 키워라*, 83.

26) 현용수,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 1권, 121.

27) 현용수, *성공집단 유대인의 인성교육노하우*, 1권 (서울: 서로사랑, 2004), 198.

28) 현용수,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 3권, 131.

29) Ibid., 163-165.

은 헌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아이들이 직접 건네도록 교육시킨다.

(3) 부모의 권위와 축복권

성경은 부모님의 권위에 대하여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출 21:17; 레 20:9). 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레 19:3).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모의 권위를 안식일 지키는 계명과 같은 위치에 놓았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권위에 순종할 것을 가르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녀의 좋은 성품은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자세에서부터 시작된다.³¹⁾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머리를 통하여 내리신다.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머리의 권위(headship)”라고 부른다. 가정의 머리는 아버지이다. 아버지는 가정의 머리이면서 동시에 그 가정의 제사장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내리실 때 가정의 머리인 아버지를 통하여 내리신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손을 누구의 머리에 얹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진다는 진리이다. 또, 할아버지(야곱)가 손자(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해 주었다. 그러므로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후손들에게 영적 축복을 해주는 권위가 있다. 히브리인의 사상에 의하면 오른손은 왼손보다 더 큰 축복을 상징한다. 아버지는 안식일 절기 날 제사장의 권한으로 절기 식탁의 순서에 맞추어 자녀들 머리에 일일이 축복기도를 해 준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신 것 같이 축복하기를 원하노라”고 기도한다. 딸에게는 “하나님이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과 레아를 축복한 것 같이 너희 딸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노라”라고 기도해 준다.³²⁾

(4) 예절교육

유대인 부모는 예절 교육을 시킬 때 꼭 가정에서의 소유권을 구별하도록 가르친다. 어떤 물건이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를 따진다. 물건의 소속은 첫째 “나의 것,” 둘째

30) Ruth Shilo, *Raise A Child as Jew*, 231.

31) Hayim Halevy Donin, *To Raise A Jewish Child: A Guide for Parents* (New York: Basic Books, 1977), 50.

32) 현용수,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 2권, 240-244.

“너의 것,” 셋째 “우리의 것”으로 구별할 수 있다. 가정에서 소유권을 구별하는 것은 공중 도덕심을 기르게 한다. 가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도 타인의 불편을 생각해서 나 자신부터 청결하게 사용하도록 가르친다.³³⁾ 이러한 가정에서의 습관은 밖에 나가서도 다음 사람을 생각하게 되며 공공기물을 사용하는데 예의 바른 행동을 하게 된다.

제 2 절 유대인의 신앙경건훈련 교육 내용

유대인의 종교교육 즉, 사상 학문의 근본 지침은 셰마에서 시작된다. 다시 말하면, 셰마 없이는 유대인 자녀교육을 말할 수도 없거니와 오늘날의 유대인도 있을 수 없다. 유대인의 역사적 우수성은 그들의 종교교육인 셰마에서 부터 시작되었다.³⁴⁾

유대인이 말하는 토라라는 단어는 세 가지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좁은 의미에서 모세가 저술한 모세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및 신명기를 말한다. 둘째, 전체 구약성경, 즉 모세오경에 성문서 및 선지서를 더한 것이다. 유대인은 그들의 성경을 TANAKH이라고 부른다. 이는 Torah(모세오경), Nevi'im(선지서: Prophets), 그리고 Kethuvim(성문서: Writings)의 머리자를 딴 것이다.³⁵⁾ 셋째, 넓은 의미에서 탈무드를 포함한 유대인 교육전체를 말한다.³⁶⁾ 먼저 셰마에 대하여 살펴보려 한다.

1. 암송할 셰마 말씀

셰마란 말은 신명기 6장 4절의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Hear, O Israel, the Lord is our God, the Lord is One)”의 첫 글자인 “들으라(셰마)”란 히브리어 단어이다.

유대인들이 마음 판에 새기고 지키는 셰마는 신명기 6장 4-9절, 신명기 11장

33) 현용수,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 2권, 178-179.

34) 현용수,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 1권, 294.

35) Maurice Lamm, *Living Torah in America*, 90.

36) 현용수,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 2권, 240-244.

13-21절, 민수기 15장 37-41절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하나님 여호와께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신 6:4-9).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와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구함 같으리라”(신 11:13-2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와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민 15:37-41).³⁷⁾

유대인 자녀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접하는 영적 교육이 셰마란 단어이다. 유대인 자녀는 어머니의 품안에서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부터 셰마란 단어를 배

37) 현용수,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 1권, 296-297.

운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죽어 가는 임종시에 모든 가족과 주위 사람들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유언처럼 부탁하는 말도 역시 셰마이다. 즉 셰마는 바로 지상명령이다. 또한 유대인 어머니는 자녀들이 잠들기 전 셰마를 외우게 한다. 그 이유는 혹시 잠을 자다가 죽을 경우 셰마가 마지막 유언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유대인의 인생은 셰마에서 시작하여 셰마로 끝을 맺는다.³⁸⁾ 이 셰마와 멀어지는 것은 유대교를 떠나는 것으로 하나님과 결별을 뜻한다.

2. 암송할 613개의 계명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을 따로 정리해 놓았다. 하나님께서 “하라”라는 명령 248개와 “하지 말라”는 명령 365개이며 다 합하면 613개의 계명이 된다. 613개 계명의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구분해 놓은 제목들을 살펴보려고 한다.³⁹⁾

가. “하라” 명령(248개)

A.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한 명령들

1.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사람은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어야 한다 :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신 5:6).

B. 토라를 연구하는 것과 관련한 명령들

C. 성전과 관련한 명령들

D. 희생 제사를 다루는 명령들

E. 서원(맹세)을 다루는 명령들

F. 의식적 정결을 다루는 명령들

96. 레위기 11:8,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다 : “너희는... 그 주검도 만지지 말

38) Philip Birnbaum, *Encyclopedia of Jewish Concepts* (New York: Hebrew Publishing Company, 1991), 554-555.

39) John H. SailHamer, *모세오경*, 하권, 김동진 역 (서울: 새순출판사, 1997), 479-543.

라.”

G. 성전에 드리는 것을 다루는 명령들

H. 안식년을 다루는 명령들

I. 짐승을 잡는 것을 다루는 명령들

J. 절기들을 다루는 명령들

155.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은 성별하라 :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K. 공동체 내에서의 질서를 다루는 명령들

L. 우상숭배와 관련한 명령들

M. 전쟁을 다루는 명령들

N. 사회구조를 다루는 명령들

194. 레위기 5장 23절(Lev 6:4), 훔친 물건은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 : “그는 훔친 물건을 돌려보내되...”

O. 가족과 관련한 명령들

248. 민수기 27장 8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그 딸에게 돌릴 것이요, 기업을 수반하는 판결 :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나. “하지 말라” 금지명령(365개)

A. 우상숭배 및 거짓 종교와 관련한 금지들

1.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사람은 다른 신의 존재를 믿어서는 안 된다 :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B. 역사적 사건들과 관련한 금지들

C. 신성모독과 관련한 금지들

D. 성전과 관련한 금지들

E. 희생제사와 관련한 금지들

F. 제사장과 관련한 금지들

158. 레위기 21장 7절, 그들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 거룩함이니라. 제사장은 창녀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 “그들은 기생을 취하지 말 것이며.”

G. 음식과 관련한 금지들

H. 나실인과 관련한 금지들

I. 농업과 관련한 금지들

J. 상업과 관련한 금지들

K. 공의의 집행과 관련한 금지들

L. 가족 관계와 관련한 금지들

335. 레위기 18장 10절, 너는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너의 하체니라

M. 왕과 관련한 금지들

365. 신명기 17장 17절,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3. 평생 연구할 탈무드

유대인에게는 두 가지 성경이 있다. 유대인은 “쓰여진 성경”을 “율법”(mitzvos, the commandments)이라고 부르며, 구전으로 내려오는 “장로의 유전”을 “설명”(explanation)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매 율법을 주신 후 율법에 대한 설명을 주셨다. 매 “율법”은 “토라”로 “설명”은 “장로의 유전”으로 전승되었다.⁴⁰⁾ 이 두 가지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들이다. 바벨론 포로기 전까지 이 두 성경이 해석과 주석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포로기인 BC 500년 이후부터 당시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는 토라와 장로의 유전을 유대인 종교 교육의 내용으로 체계화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당시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

40) Lampel Zvi, trans., *Maimonides' Introduction to the Talmud* (New York: Judaica Press, 1975), 35.

여 무지한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스 7:10-12). 이는 토라를 주석했다는 의미에서 탈무드의 첫 “미드라쉬”(Midrash)라고 부른다. 미드라쉬는 “연구”(study)와 “해석”(interpretation)이란 뜻이다. 또, 외세의 침공으로부터 “장로의 유전”을 보존하기 위하여 기억하기 쉽게 요약하여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이 작업은 BC 200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여 220년경에 마무리되었다. 그것이 “미쉬나”(Mishna)이다. 미쉬나는 히브리어로 “반복하다”(to repeat) 혹은 “가르치다”(to teach)라는 뜻이다. 이것이 탈무드 태동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200-500년 사이에는 미쉬나에 주해 및 해설, 즉 일종의 주석을 더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게마라”(Gemara: 배움이란 뜻)이다. 후에 미쉬나와 게마라에 현자들의 주석을 달아 완성한 것이 탈무드이다. 탈무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는 모세오경의 해석부분으로 전체의 약 2/3를 차지한다. 이를 “할라카”(halaca)라고 한다. 둘째는 조상들의 지혜모음이다. 지혜모음은 대부분이 인생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난해한 비유들로 쓰여 있다. 탈무드는 2천여 명의 유대인 지혜자들이 약 1천년에 걸쳐 편찬한 총 1만2천 쪽에 달하는 방대한 책이다. 탈무드는 6부, 63제, 525장, 4,187절로 구성되었다. 유대인 정신문화의 총집합체이다. 그들의 사상과 철학, 문학, 역사, 과학, 의학, 법률, 율법, 일반생활 모든 것이 망라되어 있다. 유대인은 기록으로 남겨진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구전으로 내려오던 미쉬나에 지혜자들의 글과 주석까지, 그리고 이에 성문서나 선지서 등을 총망라한 탈무드를 평생교육 교과서로 삼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탈무드 전체를 토라와 구분하지 않고 똑같은 성경으로 간주한다. 유대인 랍비들은 탈무드가 내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읽는 책이 아니라 연구하는 책이라고 말한다.⁴¹⁾

유대인들은 방대한 탈무드를 아이에게 처음으로 읽힐 때 부모는 반드시 꿀물 한 방울을 책에 떨어뜨리고서 아이에게 입을 맞추게 한다.⁴²⁾ 이것은 탈무드에 대한 애착을 갖도록 하는 동시에 공부가 사람에게 매우 달콤한 것임을 가르쳐준다.⁴³⁾

41) 현용수,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 2권, 112-116.

42) 현용수, *뜻을 팔아 책을 사라* (서울: 아름다운세상, 2000), 180.

43) - 탈무드는 모세의 업적과 에스라의 업적을 공정하게 비교 -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받아 방황하는 유대인에게 전수한 선지자라면 에스라는 유대인이 바빌론 포로시기에 성전 없이 타락한 유대인에게 율법을 해석하여 그들의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안내자로 발전시켜 후대에 전한 학자이다. 따라서 유대인 율법학자들은 모세와 에스라 두사람을 율법보존의 은인으로 존경한다. 현용수,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 2권, 113.

4. 쉼마(신 6:4-9)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

쉼마의 근본정신에 대하여 유대인과 기독교인 사이에 차이가 없음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은 세부분, 첫째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한 것과(신 6:4), 둘째 성도가 하나님께 해야 하는 도리(신 6:5), 그리고 셋째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이 자녀에게 해야 할 도리 중 성도의 마음 자세 및 가르치는 때(신 6:6-7)는 유대인들의 해석과 동일하다. 이것은 신약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가장 큰 계명이기도 하다. 마가복음 12장에 서기관이 예수님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물었다. 이 질문의 내용은 “유대인이 지키는 613개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이다. 이때에 예수님은 첫째로 신명기 6장4절과 5절의 쉼마 말씀을 주셨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막 12:29-30).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 중요한 계명으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인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막 12:31)는 말씀을 주셨다. 예수님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 22:40)라고 말씀하셨다.⁴⁴⁾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쉼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말씀하셨다.

제 3 절 유대인의 신앙경건훈련 방법

유대인 부모는 자녀가 13세가 되면 신앙경건훈련을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은 자”로 인정을 받는 성년식을 치른다. 성년식을 히브리말로 “바 미찌바(Bar Mitzva)”라고 한다. 이 말은 “율법의 아들”이란 뜻이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말은 자”(롬 3:2)란 뜻이다.⁴⁵⁾ 그러므로 부모는 13세 이전에 신앙경건 훈련을 모두 마쳐야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이제 유대인 부모들이 구체적으로 신앙경건훈련 하는 것을 살펴보려한다.

44) 현용수,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 1권, 319-320.

45) Ibid., 248.

1. 성장에 따른 신앙교육 내용

유대인 자녀가 태어나면 3세부터 “셰마”를 암송하기 시작하고, 5세에 성경연구, 10세에 미쉬나 연구를, 13세에 계명의 완성에 관한 연구를, 15세에 탈무드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들은 자녀에게 끊임없이 학문할 것을 권고한다. 연구의 중단은 성장의 멈춤이며, 죽음이라고까지 말한다.⁴⁶⁾

2. 셰마 말씀 교육의 방법

유대인의 율법교육은 암기 교육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엄청난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외우면 안 되기 때문에 반복하여 정확히 외운다. 탈무드에서 랍비 힐렐(Hillel)은 “100번 연습하는 것보다 101번 연습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했다.⁴⁷⁾

유대인의 셰마 말씀은 그들이 매일매일 기도할 때에 읽는 기도 책에 쓰여져 있다. 유대인이 이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들의 기도서에 명시된 지침에서도 볼 수 있다. 그들은 기도시간에 셰마를 소리 내어 외울 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외워야 하다. 그리고 그 말씀의 명령을 수행하겠다는 각오로 외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다시 반복하여 외워야 한다. 또한 만약 외우다가 잡생각이 들어가 방해되었을 때에도 처음부터 다시 외워야 한다.⁴⁸⁾

다음으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셰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경건훈련을 하는 3가지 방법을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신 6:8)란 말씀에 따라 유대인은 매일 기도할 때에 셰마, 즉 축복의 말씀을 넣은 사각형 상자를 미간(이마)과 손목에 끈으로 매고 기도한다. 이를 “테필린”이라고 한다. 우리말 성경에는 “경문”(마 23:5)이라고 번역되었다. 둘째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 할지니라”(신 6:9)란 말씀에 따라 유대인은 셰마, 즉

46) 현용수,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 2권, 145.

47) N. Drazin, *History of Jewish Education* (Baltimore: The Johns Hopkins Press, 1940), 112.

48) Nosson Scherman, *The Complete ArtScroll Siddur* (New York: Mesorah Publication Ltd., 1992), 982-983.

축복의 말씀을 조그만 직사각형 상자 속에 넣어 문설주에 붙여 놓는다. 이를 “메주자”라고 한다. 그들은 출입할 때마다 그 쉼마에 손을 댈다. 그리고 그 손을 자신의 입술에 대고 키스를 한다. 셋째 “술단 저고리”는 세 가지 쉼마 말씀 중 세 번째인 민수기 15장 37-41절까지의 말씀에 근거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민 15:37-38)라는 말씀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그 술을 다는 목적은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와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민 15:39)라고 못 박았다. 이 말씀에 따라 유대인은 “술 단 저고리”라는 “찌찌”를 만들어 입는다. 이를 혹은 “탈리트 카탄”(tallit katan)이라고도 한다. 유대인은 이 옷을 만들 때에도 교육적으로 율법의 수와 연관지어 만든다. 찌찌(tzitzit)는 원래 옷에 다는 술(threads)을 말한다. 찌찌라는 히브리 자음들의 알파벳수치를 더하면 600이 된다. 이 600에 여덟 가닥의 술과 다섯 매듭(the eight threads and the knots)인 13을 더하면 도합613이 된다. 613이란 숫자는 613개의 토라의 율법들을 상징한다. 정통파 유대인 남성은 그 천을 상의 속에 내복처럼 입고 다니다. 그들은 여호와와 율법을 상징하는 술과 매듭을 볼 때마다 여호와와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민 15:39).⁴⁹⁾

또, 유대인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들에 아주 독특한 신앙경건훈련방법을 사용한다. 유대인은 13세 이전에 신앙을 전수할 때에 인간의 오감 모두를 철저히 사용하게 한다. 첫째 음악을 들으며(청각: 귀로 듣기), 둘째 절기 옷을 입거나 촛대 및 다윗의 별 등을 반복하여 보거나 춤을 추어 서로 보며(시각: 눈으로 보기), 절기 음식을 먹으며(미각: 입맛), 온몸을 흔들며 기도하거나 토라를 손으로 만지며(촉각: 피부로 느끼기) 그리고 안식일 마지막에 향기로운 향을 피워 냄새를 맡으며(후각: 코로 냄새를 맡으며) 그 문화를 익히게 한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3세부터 지각을 통해 기도서를 암송하게하고, 토라를 가르쳐 선과 악을 구별하고 깨닫게 하는 교육을 시킨다. 따라서 유대인의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등학교까지 이러한 수직문화에 대한 이미지가 두뇌에 뿌렸한 영상으로 형성되게 하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성 토양은

49) 현용수,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 1권, 316-318.

자연스럽게 옥토가 된다. 그리고 선악을 구별하는 성경적 가치관과 인격이 뚜렷하게 형성된다. 두뇌에 형성된 영상은 지각을 통해서 깨달을 뿐 아니라 오감을 통해 입력된 수직문화 전체를 말한다. 즉 눈이나, 귀, 코나 입 및 촉각을 통하여 모두 조상들이 해오던 종교적인 상징들, 종교음악, 냄새 및 촉감이 그대로 대뇌에 각인되어 있다.⁵⁰⁾

유대인들의 교육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질문과 답변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귀납적 교육방법이 유대인을 어려서부터 천재로 만드는 데 크게 공헌한다. 그들의 탈무드 교육 자료들도 대부분 많은 질문을 한 다음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게 하도록 내용이 전개돼 있다. 유대인 부모는 질문에 대한 답을 빨리 주지 않는다. 그리고는 왜 이 답이 맞고 저 답이 틀린가에 대해 논리적으로 질문하고 토론하며 스스로 깨닫게 만든다. 따라서 유대인은 어려서부터 자녀가 고도의 분석적인 사고방식과 분별력 및 창의력을 갖도록 교육한다.⁵¹⁾ 유대인 부모는 자녀들에게 귀납법적 천재교육방법으로 셰마의 말씀을 조상대대로 전수하고 있다.

제 4 절 유대인의 특별한 신앙경건훈련의 예

유대인은 절기를 통하여 신앙을 전수한다. 왜냐하면 절기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유대인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오순절 혹은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성막절)이다. 이외에도 민족적으로 지키는 큰절기로 로쉬하샤냐(신년), 욀키퍼(Yom Kippur:대속죄일), 하누카, 부림절 및 티샤바브(Tishah B'Av) 등이⁵²⁾ 있다. 특히 그들은 매주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며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된다.

1. 절기를 통한 신앙경건 훈련

유대인들은 가정을 성전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성전에서 행하는 것들을 가정으로 옮겨 신앙교육을 자녀들에게 시킨다. 유대인들이 절기 교육에 주로 사용하는

50) 현용수, *성공집단 유대인의 인성교육 노하우*, 1권, 197-198.

51) 현용수,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 2권, 77.

52) 현용수,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 3권, 253.

심볼은 다음과 같다. “여호와와 말씀과 눈에 보이는 세마의 경문, 문설주의 메주사, 613개의 율법을 상징하기 위하여 입은 옷 찌찌, 다윗의 별, 촛대, 안식일 절기 예식과 음식”⁵³⁾ 등이다. 매주일 지키는 안식일과 3대(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절기를 대표하여 유월절에 행하는 신앙경건 훈련을 살펴보려 한다.

가. 안식일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며 가족과 함께하는 잔치날이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성전보다는 가정교육중심의 절기이다. 그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데에는 두 가지 동기가 있다. 첫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출 20:1-17)라는 명령, 둘째 유대인은 안식일을 하나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로 여긴다(신 5:15). 안식일은 단지 육체적으로 쉬는 날만은 아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영적 안식도 취하는 날이다. 유대인 어머니는 안식일 음식을 일주일 동안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다. 화요일에 계획을 세우고 수요일에 장을 보고 목, 금요일에 음식을 만든다. 이 날은 집에서 가장 귀한 그릇과 식탁보 및 냅킨으로 식탁을 꾸미며 식탁에 꽃도 준비한다. 온 가족은 목욕을 하고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정장을 한다. 온 가족이 회당에서 돌아오면 가정예배식의 안식일 예식을 시작한다. 모든 의식은 가정의 제사장인 아버지가 진행한다. 먼저 어머니가 캄캄한 집안에 촛불로 어둠을 밝히는 순서로 시작된다.

안식일 예식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한 사람씩 축복기도를 해준다. 둘째, 평화를 기원하는 찬송을 부른다. 셋째, 잠언 31장 10-31절에 있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찬송을 불러 어머니를 기쁘게 해준다. 넷째, 포도주를 마셔 몸을 성결케 하는 예식을 한다. 다섯째, 떡을 떼기 위하여 부엌으로 가서 손을 씻는다. 여섯째, 떡을 떤다. 일곱째, 식사 중에 토라공부를 한다. 여덟째, 식탁에서 작은 공기에 담긴 물에 손가락을 씻는다. 아홉째, 식후 감사 찬송을 부른다. 열째, 후식을 먹는다. 열한째, 전통적인 찬송을 부른다. 이 예식은 보통 2시간 이상 걸린다. 토요일은 아침에 회당에 가고 집에 와서 점심때 안식일 음식을 먹는다. 마지막 안식일 음식은

53) 현용수, *성공집단 유대인의 인성교육 노하우*, 1권, 196.

해지기 전 오후 늦게 먹는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 안식일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주일을 맞이하는 예식을 치른다. 이때에는 아버지가 촛불을 켜다. 촛불을 켜는 이유는 하나님이 천지창조의 첫째 날 “빛이 있으라”(창 1:3)고 하셨기 때문이다.⁵⁴⁾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켰다기보다는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⁵⁵⁾고 보았다. 유대인들이 매주 지키는 안식일은 신앙경건훈련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나. 유월절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에 고통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이다. 유대인은 유월절 식탁에 몇 가지 상징적인 음식을 차린다. 쏜 나물은 그 중 한가지이다. 이것을 먹음으로써 유대인들은 패배의 쏜 잔을 되새긴다. 민족의 패배를 말로만 전하는 것으로는 모자라. 그것을 절기의식에 통하여 민족의 기억 속에 되새기는 것이다. 또, 다른 유월절 음식은 애굽에서 유대인들이 종살이를 할 때에 먹었던 “마초(Matzo)”라는 빵이다. 이 빵은 효소를 넣지 않은 맛이 없는 무교병이다. 유대인들은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한다. 또 한 가지는 상징적인 음식은 삶은 달걀이다. 달걀은 열이 가해지지 않았을 때에는 물처럼 흐물흐물한 상태이지만 열을 가해 삶으면 삶을수록 굳고 단단해진다. 마찬가지로 유대인은 고난의 열을 받으면 받을수록 신념과 결의가 굳고 단단해진다. 유월절 식사의 맨 마지막에는 “아라자”를 마신다. 이것은 최후의 승리와 최후의 해방을 상징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희망은 온 인류의 희망이다. 유대인은 유월절 밤에만 애굽의 종살이와 해방을 추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절기와 경축일마다 그들은 반드시 자신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거기서 탈출한 과거에 대해 언급하고 기도를 하면서 자신들의 현실을 살핀다.⁵⁶⁾

54) 현용수,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 1권, 368-372.

55) Hayim Donin, *To Be A Jew :A Guide to Jewish Observance in Contemporary Life*, 69.

56) 현용수, *뜻을 팔아 책을 사라*, 33-35.

2. 고난의 역사 교육

이방인은 승리의 날을 기념하지만 유대인은 유독 승리의 날보다 패배의 날을 더 기념한다. 유대인은 조상들이 겪었던 참혹한 고난의 역사를 일일이 밝혀서 자녀들에게 반드시 대대로 기억하도록 교육시킨다. 그들의 매일 기도문에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기억할 사건들”⁵⁷⁾이 있다. 이것은 토라가 항상 그것을 기억하도록 명했기 때문이다. 첫째 출애굽을 기억할 것(신 16:3): 유대인이 애굽에 종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신 사건이다. 둘째 시내산에서 말씀(토라)받은 것을 기억할 것(신 4:9-10):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받은 자”로 삼으셨다. 셋째 아말렉의 공격을 기억할 것(신 25:17-19): 아말렉이 유대인을 공격함으로써 이스라엘은 토라 공부를 하는데 실패한다. 넷째 금송아지 우상을 기억할 것(신 9:7):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 패역한 유대인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진노케 한 사건이다. 다섯째 미리암을 기억하라(신 24:9): 미리암은 동생 모세의 부인 문제를 비판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문둥병에 걸렸으나 모세의 기도로 다시 나왔다. 여섯째 안식일을 기억하라(출 20:8): 주중에라도 계속 안식일을 잊지 말라. 유대인은 누구나 이 “여섯 가지 사건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유대인은 자기 민족이 겪은 고난의 역사를 자녀들이 기억하도록 특별한 방법으로 교육시킨다. 그들은 머리로만 암기하도록 교육시키지 않고 시청각적으로 교육하거나 역사의 현장을 재현함으로써 감정적으로 받아들여 행동으로 옮기도록 교육한다. 그들은 철저한 여호와와 율례와 법도에 따라 행하도록 교육시키며 여러 가지 교육방법을 동원한다. 그들의 고난의 역사교육방법은 대략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그들은 조상들이 지켜온 절기를 통하여 2세들에게 가르치는 교육, 둘째 고난의 역사 현장을 보존 및 복원하여 자녀들을 견학시키거나 훈련시키는 현장교육, 셋째 그들의 생활예식을 통하여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특수한 교육방법⁵⁸⁾ 등을 사용한다. 유대인들은 고난의 역사를 가르치며 그 속에서 유대민족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을 가르친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신앙경건훈련의 역사를 고찰하였다. 유대인들이 신앙을 전수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본 논문은 긍정적인 면만 다루

57) Nosson Scherman, *The Complete ArtScroll Siddur*, 176-177.

58) 현용수,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 3권, 252.

었다. 유대인들은 자녀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신체 발달 연령에 따라 셰마 말씀을 암송하는 시기, 성경을 연구하는 시기, 미쉬나를 연구하는 시기, 계명의 완성을 위한 시기가 있다. 이 모든 것은 13세까지 마치게 되고 15세가 되면 죽는 날 까지 탈무드를 연구하며 살게 된다. 이러한 모든 것은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유대인들은 가정을 성전으로 알고 가정에서 부모가 셰마 말씀을 가지고 신앙경건훈련을 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서 셰마 말씀을 처음 가르칠 때에는 종교적 토양이 옥토여서 순수한 신앙을 전수하였다. 그들은 가정에서 식탁과 절기를 통하여 신앙경건훈련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또 가정이 성전이기 때문에 가정을 청결하게 할 뿐 아니라 가족원들도 육적청결, 마음청결, 영적청결에 힘쓴다. 유대인들은 자녀를 말씀 말은자(율법의 아들)로 만들기 위하여 아버지는 말씀을 가르치고, 어머니는 반복학습과 감독을 통하여 13세 이전에 말씀 말은 자로 만들어 낸다. 특히 그들이 가르치는 신앙의 내용은 셰마와 토라와 탈무드이다. 그들은 자녀가 성장할 때마다 그 연령에 따라 교육의 내용이 달라진다. 보다 효과적인 신앙전수를 위하여 귀납법적 성경공부와 절기 마다 독특한 상징물 등을 사용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또, 유대인들은 패배한 고난의 역사를 집중적으로 교육하여 유대민족을 위한 애국자로 만들어낸다. 다음은 한국교인 교회 신앙경건훈련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 3 장

한국교인 교회 신앙경건훈련 역사

기독교가 한국에 도래하기 전의 한국역사는 종교적으로 볼 때 3기로 나누어질 수 있다. 삼국시대까지의 하느님신앙-무속종교-도교시대, 통일신라와 고려의 불교시대, 그리고 조선의 유교시대이다. 이 종교들은 각기 오랜 기간 동안 국교로 신봉되었기 때문에 삶의 모든 영역에 깊이 파고들었다. 그리하여 심지어 그 이전 국교가 공식적으로 폐지된 다음에도 뿌리 깊게 존속하였다. 그 결과로 한국의 종교생활은 계속 축적되고 혼합되었다.⁵⁹⁾ 기독교는 이러한 혼합 종교적 바탕을 가진 사람들을 전도하여 신앙경건훈련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교회를 대표하여 장로교단(통합측)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한다. 먼저 한국교인들이 교회를 통하여 받은 신앙경건훈련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한국교인 교회의 신앙경건 훈련교육

한국교인들은 유대인들처럼 가정에서 신앙경건훈련을 시키지 못하고 교회에서 시켜 왔다. 한국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위해 교회로 나왔고 교회는 이들에게 신앙경건훈련을 시켰다. 먼저 한국인의 종교적 토양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한국교인들의 신앙경건훈련의 종교적 토양

기독교가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올 때에 있었던 타종교들을 살펴보고 타종교들이 기독교인들에게 깊은 영향을 준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⁶⁰⁾

59) 김경재, *한국문화신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3), 106.

가. 하느님(천신) 숭배

한민족이 본래 중앙아시아로부터 북방로(시베리아, 몽고, 그리고 만주)를 통하여 한반도에 이주해 왔기 때문에 그 지역의 종교인 무교와 천신숭배를 가지고 왔다. 천신숭배(고대 한국인이 믿던 하느님)에 익숙한 초기 기독교인들은 천신숭배 할 때처럼 하나님의 전에 나가기 전 먼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였다.

나. 무속종교

무속종교는 모든 문제들은 귀신들이 유발시키기 때문에 신령과 귀신들을 범하여 노하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믿었다. 따라서 사람들은 오로지 무당만이 “굿”이라는 마술적 의식을 통하여 다룰 수 있다고 보았다. 무교는 의식적이며 마술적이고 사제 중심적이다. 아직도 이런 것들이 한국인의 종교성 기저에 깊이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의 성화를 카리스마적인 목사나 예배의식 등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것은 또한 귀신에 대한 두려움, 축귀의 선호, 그리고 윤리에 대한 무의식 등을 고무시켰는데 이는 모두 오늘날 한국의 교회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 도교

BC 4세기 이후 점차 중국의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의 도교가 도입되었다. 도교는 중국에서 토속화된 미신적이고 마술적인 신앙으로서, 특별히 주역과 그 음양설에 의해 운명과 재수를 예언하는 점술이 중심이었다. 도교는 무교에 완전히 흡수되어 점, 칠성신에 대한 여인들의 기도, 부적, 그리고 묘와 집 자리에 대한 풍수지리설 등의 방식으로 대중에게 극도로 유행되었다. 도교는 한국인의 종교성에 종교적 성화의 개념과 그를 향한 열망을 깊숙이 심었다. 도교적 사상은 자기 부인, 철저하고 계속

60) 이정석, *한국교회의 성화사상, 교회의 영적 성장방법론* (강의안; 서울: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ummer 2004).

적인 수양, 신비적 연합, 불멸성, 그리고 신화 등 기독교의 성화론에서 발견되는 것과 유사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다.

라. 불교

불교는 삼국시대에 도입되었는데(고구려에는 372년, 백제에는 384년, 신라에는 535년)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도 불교는, 무교, 도교, 유교,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종교와도 폭넓게 혼합되는 양상을 보였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유포된 형태의 불교는 후에 개발된 정토불교인데(정토불교는 중국, 한국, 그리고 일본에서 가장 대중적인 형태의 불교로서 한국에서는 7세기에 원효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것은 오로지 현세에서도 축복된 삶을 살고 내세에도 낙원에 가기를 원하는 개인주의적 욕망이 있을 뿐이다. 기도는 그것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다. 기도의 질보다는 양을 추구하도록 부추겼는데 이는 정토불교가 기도의 양에 따라 세속적인 욕망을 포함한 모든 간구를 부처와 보살이 응답해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 형태의 불교가 천년이상 한국사회를 지배해 왔으며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도입된 종교적 상황이었다.

마. 유교

유교는 비록 불교보다 먼저 들어왔으나 불교 후에야 한국의 국교가 되었다. 초기에 유학이란 단순히 중국고전 연구를 의미하였다. 조선시대가 창건되면서 유교를 국교로 선포하였다. 유교는 누구나 자기의 심성을 수양하여 충분히 통치할 능력을 개발하면 통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지지하였다. 유교의 순수성과 정통성을 지키기 위하여 분파투쟁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유교의 근본주의적 사고방식은 점차 분파주의, 지역주의, 그리고 경쟁적인 분당사이의 끊임없는 정치적 투쟁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유교는 한국의 초기 기독교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많은 교파를 만들었다. 이는 많은 초기의 기독교인들이 유교에서 개종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종교들이 들어와 혼합되고 융합되어 체질화된 수양의 전통적 방법들을 가지고 있었다. 초기 기독교인들

은 타종교들의 수양된 전통적 방법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히는 방식으로 신앙경건훈련이 시작되었다. 유대인들과의 차이점은 유대인들은 타종교를 완전히 제거하고 마음이 옥토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신앙경건훈련을 했다면, 한국교회는 타종교들의 혼합되고 융합된 체질화된 수양의 전통적 방법들을 모두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경건훈련을 하였다. 다음은 교회로 나온 교인들의 신앙경건훈련을 살펴보려고 한다.

2. 한국교인들의 신앙경건훈련은 교회중심

기독교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의 가부장적 제도가 팽배한 봉건사회의 가정의 형태를 이루었다. 이런 사회상에서 서양의 기독교가 한국인가정으로 파고 들 수가 없었다. 당시 지도층에 있던 양반들은 제사를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제사문제를 우상숭배로 정죄하는 기독교를 거부했다. 양반들 중에서 예수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문중에서 축출 당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가정에서조차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전도할 대상을 어린아이와 부녀자들로 한정하였다. 먼저 초창기 한국교인들(어린아이와 부녀자들)이 교회중심의 신앙경건훈련을 받게 된 것을 살펴보려고 한다.

가. 교회는 신앙경건훈련 교육장소

교회는 선교사들에 의하여 세워졌으며 이들이 만든 선교정책에 의하여 교회에서 신앙경건훈련이 시작되었다.

한국주재 선교사 일동은 1890년 6월말, 중국에서 다년간 선교에 종사한 네비우스(John L. Nevius) 목사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열었다.⁶¹⁾ 이때에 만든 10가지 선교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류 계층보다 서민층 전도를 우선한다. 둘째, 부녀자 전도와 여성을 위한 교육에 주력한다. 셋째, 지방에 초등교육기관을 널리 설립한다. 넷째, 교역자양성에 특

61) 김광주, *한국민족기독교백년사* (서울: 기독교문사, 1978), 43.

별 유의한다. 다섯째, 성경번역의 진행과 보급에 노력한다. 여섯째, 모든 기독교 문서에 한글을 사용한다. 일곱째, 선교사가 돕는 교역자 수를 줄이고 자급하는 교회로 육성한다. 여덟째, 한국인 스스로 동족에게 전도하는 자립 전도의 훈련을 강화한다. 아홉째, 의료선교사는 시료(施療)와 복음전도를 병행한다. 열째, 퇴원환자의 집을 방문 전도한다.

한국교회는 10가지 선교정책에 입각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들은 교회중심으로 신앙경건훈련을 지금까지 받고 있다. 다음은 신앙경건훈련에 교회가 갖추어야 할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 교회의 공동체 훈련

교회가 교인공동체 안에서 실시하는 섬김의 훈련, 가르침의 훈련, 선포의 훈련, 교제의 훈련을 살펴보자.

(1) 섬김의 훈련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란 말은 “식탁에서 시종들다” “돌보다”, 그리고 “섬기다”이다. 요세푸스는 이 단어를 “식탁에서 시종들다, 순종하다” 그리고 심지어 “제사장으로서 봉사하다”를 지칭하는데 사용하였다. “식탁에서 시종들다”라는 의미가 누가복음 17장 8절과 요한복음 12장 2절에서 나타난다. 예수 자신도 섬기는 자로서 계신다(눅 22:27).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르는 길은 섬김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고난과 죽음을 통과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큰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은 모든 사람의 종, 심지어는 노예가 되는 것이다(막 9:35). 그러므로 식탁에서의 섬김 이상의 것이 요구된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섬김은 곧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다. 따라서 그것은 죽음조차도 마다하지 않는 섬김을 요구할 수 있다(요 12:25-26).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삶은 섬김의 삶이다.⁶²⁾

62) Gerhard Kittel, & G. Friedrich, *신학성서 신학사전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a Testament)*, 신약원어 신학사전 번역위원회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87), 171-173.

(2) 가르침의 훈련

헬라어로 디다케는 분명한 의미로 “가르치다”이다. 가르침은 예수님의 주요역할들 중 하나이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고(마 9:35),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막 12:35). 물론 예수님은 이러한 곳 외에도 가르치셨다. 그의 가르침의 방식은 동시대의 전형적 교사의 가르침 방식을 따르고 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성경을 읽고, 자리에 앉아서 해당구절을 해설하셨고(눅 4:16ff) 또한 앉아서 가르치셨다(눅 5:3). 예수님은 교육과 교정을 위해 전인(全人)을 요구함으로써 율법의 가르침의 참 노선을 따르신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제자들 역시 가르치기 시작했다(막 6:30). 가르침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제자들이 위임받은 임무의 일부가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 가르침의 첫 번째 목적은 예수께서 약속한 메시아라는 것을 성경으로부터 입증하는 데 있다. 이런 의미에서 가르침은 “주 예수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이다(행 8:31).⁶³⁾

(3) 선포의 훈련

헬라어로 케리그마란 말은 그리스도께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많이 사용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이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셨다(막 4:17). 예수님은 성취시키는 자로서 그렇게 하셨다. 따라서 예수님의 선포 자체는 사건이다(눅 4:18ff). 제자들은 회개와 하나님 나라의 가까움을 선포하고 또한 병자들을 고치기 위해 보냄을 받는다. 그들은 예수님께 들은 것을 담대하게 선포했다(마 10:17). 그리스도의 삶, 죽음 및 부활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선포는 하나님의 구원계획의 일부이다. 구원을 가져다주는 이러한 사실들을 선포하는 목적은 그러한 사실들이 신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실체가 되게 하려는데 있다. 십자가 자체뿐 아니라 십자가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다(고전 1:18). 죄인들은 그 사건을 선포하도록 위임을 받았다. 그들이 전파한 그리스도는 그들 자신보다 더 위대하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이다.⁶⁴⁾

63) Kittel, & Friedrich, *신학성서 신학사전*, 181-183.

64) Ibid., 491-495.

(4) 교제의 훈련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란 말은 “참여, 구제, 친교”를 의미한다. 그리스도와의 친교는 그와 함께 살고, 고난 받고, 죽으며, 유산을 받고, 다스리는 것도 의미한다(롬 6:8 ; 딤후 2:12 고후 7:3). 여기에는 교제의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겸손과의 친교이며, 둘째는 그의 승리와의 친교이다.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믿음과 봉사의 협력 안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의미한다. 코이노니아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게 하는 살아 있는 끈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또 기독교 단체나 기독교 재산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생활에서 세워지고 표현된 친교단체를 의미한다.⁶⁵⁾

이처럼 교회공동체는 신앙경건훈련으로 남을 섬기는 훈련, 말씀을 가르치는 훈련, 말씀을 선포하는 훈련, 그리고 교인간의 교제의 훈련이 반복적으로 계속되어야 한다. 다음은 한국교인들이 신앙경건훈련을 시키는 목회자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3. 한국교인들의 신앙경건훈련의 목회자역할

초기 한국교인들의 대부분은 선교사들에 의하여 전도된 사람들이었다. 교회로 전도된 대부분의 교인들은 선교사들에 의하여 신앙경건훈련을 받게 되었다. 또 한국인 목사가 배출되면서 이들에 의하여 교회 중심으로 신앙경건훈련을 받게 되었다. 먼저 목회자에 관한 성서적 이해를 살펴보자.

가. 목회자에 관한 성서적 이해

신약성서에 나타난 목회자의 의미를 살펴보면 목회자란 헬라어 포이멘(ποιμην)을 번역한 것인데, 그것은 “보호한다”는 어근에서 유래한 것임을 알 수 있다.⁶⁶⁾ 이러한 목회자의 개념이 종교개혁자 쾰링글리(Zwingli)에 의하여 목사는 목자와 같은 기능을 연상케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⁶⁷⁾ 지금은 목회자란 교회에서 목회를 전념하는 사람을 일컬어 사용되고 있다.

65) Kittel, and Friedrich, *신학성서 신학사전*, 510-513.

66) 기독교 대백과사전, “목사.”

67) Seward Hiltner, *목회신학원론*, 민경배 역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68), 13.

목회자는 목자로서, 선포자로서, 예언자로서, 청지기로서, 종으로서 등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그 중에 교회에서 신앙경건훈련을 시키기 위한 목자로서의 목회자, 선포자로서의 목회자,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한다.

(1) 목자로서의 목회자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목자로서 소개하고 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삿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능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삿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요 10:11-15).

또한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 요한복음 10장에서 양들에 관한 사정을 알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목자,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목자는 양을 지키고 키우며 인도하는 목자, 요한복음 10장 14-15절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목자, 또 잃은 양의 비유, 탕자의 비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잃은 양을 찾는 목자로 나타난다.

(2) 선포자로서의 목회자

예수그리스도는 공생애 시작부터 회개를 결단하는 말씀과 복음을 선포하는 선포자로 활동하셨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막 1:14-15). 또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선포하였다.

(3) 청지기로서의 목회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전하는 책임 맡은 청지기로서 나타내어지고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임박함과 회개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복

음을 전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충실한 청지기로서의 그의 본분을 감당한 것이다. 또, 바울은 고전4장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군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하였다. 바울은 목회자를 하나님의 청지기로 규정하고, 하나님의 청지기가 어떠해야 하는 것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입장에서 표명하고 있다. 디도서 1장 7절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여”라고 기록하였다. 바울은 감독이나 장로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보았다. 목회자도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돌보는 거룩한 청지기직이다.

나. 목회자의 신앙경건훈련 교육

목자로서의 목회자는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에 목회중점을 두어야 한다. 목회자는 교인들에게 생명을 사랑하며 영혼구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도 교육을 시키고 실제로 전도하게 하는 신앙경건훈련을 시켜야 한다. 또, 병원에 입원한 환우나 어려움에 처한 교우들을 찾아가 돌보며 그들이 주님께 붙어 있도록 신앙경건 훈련을 시켜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해야 한다.

선포자로서의 목회자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여 주님께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 포사이스(Forsyth)는 “그리스도 교회는 설교에 의하여 존립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다”⁶⁸⁾고 말했다. 그만큼 설교는 주님을 대신해서 선포하는 말씀이기에 매우 중요하다. 설교를 들을 때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이 경험되기 때문에 설교는 회중과의 대화가 이루어져서 인간에게 은혜로서의 삶의 가능성을 마련해 준다. 결국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성립되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성장한다.⁶⁹⁾ 목회자가 전한 설교의 말씀을 듣고 교인들의 신앙이 자라기 때문에 설교와 가르침은 신앙경건훈련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한국교회 목회자는 새벽기도회,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주일 낮 예배, 설교 외에도 심방을 가서까지 수많은 설교를 함으로 선포자로서의 목회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청지기로서의 목회자는 교회를 위임받아 전체를 보살피는 청지기이다. 목회자 혼

68) Raymond Abba, *기독교예배의 원리와 실제*, 허경삼 역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74), 60.

69) Donald Macleod, *Presbyterian Worship* (Virginia: John Knox Press, 1965), 41.

자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으므로 교인들에게 직분을 주어서 교회의 일을 나누어 지고 있다. 먼저 목회자가 자신이 맡은 일을 충실히 행하는 청지기로서 본을 보여 주어야 한다. 또, 교인들이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여 봉사 할 수 있도록 청지기 사명을 심어주는 신앙경건훈련을 시켜야 한다. 다음은 한국교인들의 신앙경건훈련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2 절 한국교인의 신앙경건훈련 방법

한국교회는 교회중심으로 신앙경건훈련을 하였다. 1890년부터 1907년까지 교회에서 하는 신앙경건훈련 중에 대표적인 것은 성경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사경회이다. 한국교회는 사경회의 영향으로 어린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하여 주일학교, 하기 여름성경학교를 만들었다. 한국교회는 주일학교와 하기 아동성경학교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집중적인 신앙경건훈련을 오늘날까지 하고 있다. 먼저 사경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사경회

언더우드 목사는 한국에서 장로교 최초로 사경회를 하였다. 1890년 언더우드 목사는 그의 구내 서남쪽 작은 방에서 7명(북에서 2명, 소래에서 2명, 서울에서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경연구를 시작하여 2주간 공부한 후에 조사(助事)로서 파송되었다.⁷⁰⁾ 또, 1897년부터 평양에서도 사경반이 조직되어 1898년까지 5개 사경반이 조직되었으며 165명 정도가 참가했다. 또한 선천, 재령, 강계, 대구, 부산, 안동, 청주, 전주 등지로 널리 퍼져 사경회를 계속 열었다. 1904년 보고에 따르면 한국교인 전체의 60퍼센트가 사경회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⁷¹⁾ 사경회는 일종의 성경학원, 신앙대회 및 문화 강연회를 겸한 것이었고, 이른 봄이 되면 매년 부인 전체 사경회가 열렸는데 이 성격은 남자 사경회와 대동소이한 것이었다.⁷²⁾

70) 주선애, *장로교 여성사* (서울: 혜선문화사, 1979), 28.

71) 이만열 외, *한국기독교와 민족운동* (서울: 보성, 1986), 244.

72)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73), 315.

한국교회는 1907년 이전까지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경건훈련에 집중하였다. 말씀의 토대 위에 성령운동이 일어나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 사경회 운동은 전국적으로 번져 1909년에 북장로교 선교 구역에 모두 5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800회의 사경회에 참석했으며 1917-1918년에 총 신자 117,000명 중 65퍼센트에 달하는 76,000명이 사경회에 참석했다고 한다.⁷³⁾

이처럼 성경공부 중심의 사경회는 오늘날까지 계속되어 한국교회 안에는 많은 종류의 성경공부 반들이 있으며 목회자들은 성경공부반을 통하여 교인들에게 신앙경건훈련을 시키고 있었다. 다음은 주일학교의 신앙경건훈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주일학교

한국 주일학교의 태동은 1888년 1월 15일이었다. 서울 정동 이화학당에서 처음으로 어린이 17명과 부인 3명을 모아 성경을 공부한 것이 우리나라 주일학교의 시초였다.⁷⁴⁾ 한국의 주일학교는 처음에는 장년 성경반에 합반되어 성경을 배우는 데 그쳤지만 기독교 교육의 장족의 발전이 거듭되어 1890년에 첫 번 유년주일학교가 시작되었고, 1897년에 평양에 유년주일학교 다섯이 설립되었다.⁷⁵⁾ 1905년(선교사 공의회설립)부터 1911년 까지는 주일학교가 급속히 발전하게 되었다. 1920년에는 주일학교수가 14,000개로 증가되었고, 1922년에는 조선주일학교 연합회가 조직되었다.⁷⁶⁾

1920년대 초에 교회가 급격히 성장한 것처럼 주일학교도 급격히 성장하였다. 3.1 민족해방운동 이후에는 교육열이 더욱 고조되었고 민족운동을 이끌어간 민족 지도자들은 거의 모두 실제로 교육운동에 참여하여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⁷⁷⁾

1920년 조선예수교 장로회 제9회 총회에 제출한 주일학교부 보고에 의하면 처음으로 동년10월 17일을 “주일학교 진흥주일”로 지키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1921-1922년 1개년을 주일학교 성장의 해로 정하고 특별 전도를 하였다. 성장방침으로 “총회에서 노회에 권유하여 각 노회에 주일학교 교사 강습소를 설치하여 교사를 양성하되 사경

73) 주선애, *장로교 여성사*, 63.

74) 김득용, *주교 교육학* (서울: 정음출판사, 1973), 31.

75) 대한기독교교육협의회, *한국기독교교육사*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74), 38.

76) 박안전, *한국교회사* (서울: 기독교서회, 1970), 166-168.

77) 이현희, “1920년대 국내 민족운동연구,” *자유학보* 20호 (1976).

회시에 겸하든지 특별히 하든지 반드시 1921년 4월 이내로 시작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강습회 예정지 중 서울, 춘천, 대구, 광주, 안동 등지에서 강습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조선예수교 장로교 제10회 총회 회의록을 보면 1920년에 비해 1921년 주일학교 학생수가 30퍼센트나 증가하였다.⁷⁸⁾

그 당시 얼마나 교수재료가 빈약했던지 미국 주일학교가 사용했던 그림엽서나 도표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요긴하게 사용하였다. 그때 상황을 보면

몇 명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 그림엽서들을 가지고 마을로 나가서 비신자 아동들에게 지금 주일학교가 시작되고 있으니 같이 가서 노래를 부르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카드를 1장씩 나누어 주었다. 그러면 15분 이내에 많은 아동들이 모여들고 조그마한 개인집 방이나 그와 비슷한 장소에 모여서 노래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삶에 대해 공부했다. 이것이 매 주일 반복되면서 이러한 방법으로 주일 학교는 성장하고 이 주일학교는 나중에 교회가 되었다.⁷⁹⁾

1948년 3월 23일 해방된 기쁨 속에서 “조선주일학교 연합회”를 “대한 기독교 교육 연합회”로 개칭했고, 6.25 동란이 지나가 각 교단별로 활발한 주일학교 운동을 전개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⁸⁰⁾

이처럼 한국교회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일학교를 통하여 아동들에게 신앙경건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키며 오늘날까지 왔다. 다음은 하기 아동성경학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 하기 아동 성경학교⁸¹⁾

하기 아동성경학교는 1922년 서울 정동교회에서 교사 5명과 학생 100명으로 최초로 시작되었으며⁸²⁾ 1923년에는 이화학당 학생들에 의해서 32개의 여름학교가 운영되

78) 마포삼열,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 제 10회 회의록* (평양: 광문서, 1920), 81-83.

79) F. L. Clerke, *The Korea Mission Field* (March 1921), 44.

80) 김득용, *주교교육학*, 48.

81) Daily Vacation Bible School을 ‘하기아동성경학교’로 불린 이유는 vacation(방학)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당시 수만 명 이상의 한국 어린이들에게는(학교에 다니지 않음) 실제로 아무 의미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82) 김양선, *한국기독교사 연구* (서울: 기독교문사, 1971), 138.

었다. 이때 교육받은 어린이는 1,841명이었다.⁸³⁾ 그러나 1923년에 이화학당 학생들에 의해서만 하기 아동성경학교가 실시된 것은 아니었다. 총 11개의 도시와 마을에서 46개 학교가 설립 운영되었고, 여기에 종사한 젊은 남녀 교사는 154명이었으며 3,013명의 어린이들이 참석하였다.⁸⁴⁾

1928년 조선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당시 발간했던 주일학교통신을 보면 연합회는 전 조선 주일학교가 매 교회에 “하기아동성경학교” 하나씩은 반드시 설치하기를 권하고 있으며 주일학교의 효과에 대하여 다음과 말하고 있다.

학생들이 4주일 동안 교육 받는 것이 참으로 주일학교에서 1년 났
난 것 보다 만히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
르는 아희들이 기만명이나 되며 또한 알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업는
문맹이 기만인지 알 수 업습니다. 하기 학교는 이런 아동을 위하
야 위대한 사업을 반다시 하여야 될 것입니다.⁸⁵⁾

1930년 하기 아동성경학교 준비 강습회는 6월 4일-7월 26일까지 전국 32곳에서 개최되었는데 참가 단체 및 교회는 83개였고, 전문학교 7, 중학교 8개교에서 참가, 총 강습회원 수는 5,869명이었다.⁸⁶⁾

하기 아동성경학교에 참석한 어린이들 중 70퍼센트가 그전에 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는 어린이들이었다.⁸⁷⁾ 글을 읽지 못하였던 어린이들이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많은 성경학습과 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 하기 아동성경학교에 처음으로 교수된 과목은 한국어, 산수, 노래 부르기, 성경, 계산법, 기초적인 위생학이었다. 여기에 놀이시간과 일종의 수공시간이 하루 프로그램에 포함되었다. 이 학교들의 교육기간은 10일에서 3주 정도였다.⁸⁸⁾ 세월이 지나면서 학생들이 늘어나고 체계화되고 조직화되면서 교사 강습회 추가 과목은 “학교 조직과 관리법, 교재교수법, 음악, 위생, 캠프유희”⁸⁹⁾ 등이었다.

83) F. L. Clerke, *The Korea Mission Field* (February 1932), 36.

84) F. L. Clerke, *The Korea Mission Field* (June 1924), 113-115.

85) 조선주일학교 연합회, 주일학교 통신, 1928년 4월호, 1.

86)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 제 20회 회의록 주일학교 연합회 보고, 77.

41) F. L. Clerke, *The Korea Mission Field* (June 1924), 248-250.

88) F. L. Clerke, *The Korea Mission Field* (February 1932), 36.

89)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 제 20회 회의록 주일학교 연합회 보고, 77.

1928년 하기 아동성경학교의 목적과 정책을 살펴보면 목적으로 문맹퇴치, 성경교수, 추락방지(학교에 다니는 청년남녀들이 하기 방학에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쉬우니 이를 방지한다는 의미)로 학교의 기간은 4주간을 최고로 정하였으며, 일과는 오전8시 혹은 8시30분부터 3시간만 교수하고 오후는 운동이나 경기 혹은 원족(소풍)하는 것이 좋으며 협동의 정신으로 임하라⁹⁰⁾고 하였다.

1929년에 발행된 하기 아동성경학교 교재는 미국 테네시 주 내쉬빌 시에 있는 남침례 교회 주일학교 교재를 그대로 번역해서 만든 것이었다. 하기 아동성경학교는 성경공부 외에 한글을 가르치는데 계속 주력하였는데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록에 의하면 하기 아동성경학교를 통해서 한글을 처음으로 깨우친 아동이 1930년에는 15,127명이었고, 1933년에는 18,489명, 1934년에는 23,394명이었다.⁹¹⁾

이처럼 하기 아동성경학교를 통하여 많은 학생들이 한글을 읽을 있게 되었다. 교회는 한글을 깨달은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어 신앙경건훈련을 체계적으로 시키어 오늘날까지 왔다. 한국교회는 하기 아동성경학교를 통하여 수많은 어린학생들을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였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성장한 이면에는 하기 여름성경학교를 빼놓을 수가 없다. 다음은 교회가 교인들에게 신앙경건훈련을 했던 교육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3 절 한국교인의 신앙경건훈련 교육내용

초창기 한국교회는 사경회기간에 성경공부를 하였다. 사경회기간에 성서를 집중적으로 가르침으로 성서에 대한 이해가 빈약했던 유교에서 개종한 신자들에게 뜨거운 관심과 열정을 불러일으켰다. 또 선교사들은 입국 당시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왔고, 선교활동 중 일반인에게 성경 가르치기는 일을 우선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한국선교는 성경공부와 함께 시작되었고 성경공부로 인하여 성장했다고 할 수 있다.⁹²⁾ 한국교회에서 사경회는 신앙경건훈련을 시키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 본 절

90) 조선주일학교 연합회, 주일학교 통신, 1928년 6월호, 2.

91)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 제 19회, 제 22회, 제 23회 회의록 종교교육부 보고.

92) Horace Grant Underwood, *The Call of Korea*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908), 107.

에서는 한국교회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신앙경건훈련을 시켰는지 알기위하여 사경회의 교육내용, 주일학교의 공과내용, 그리고 교인들이 누구나 암송하는 성경구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사경회 교육내용

초창기 사경회 방법은 새벽기도회로부터 시작하여 오전에는 성경공부 오후에는 반을 나누어 일반상식과 개인전도법을 공부하고 흠어져 가정전도, 심방 등을 하였으며 저녁에는 성경공부를 하거나 전도 강연을 하였다.⁹³⁾ 한국의 초대교회는 성경연구와 학습에 열중하여 성경을 함께 읽어가는 사경회제도가 선교지역을 중심으로 각 지방과 작은 지 교회에 까지 널리 시행되었다.⁹⁴⁾

사경회의 교육내용은 주로 성경으로 사복음, 예수와 생애, 바울서신들이고 교리문답,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 등 신앙의 핵심들을 가르쳤다. 사경회의 교육내용 중에는 성경과 신앙교육뿐만 아니라 간단한 과학지식, 계몽적인 근대화 교육도 병행되었고, 특별히 아동, 위생교육 등은 실제적인 효과가 컸다. 사경회 과정 중에는 개인전도시간도 두어 참가인원들이 인근지역에서 노방전도 및 축호전도를 실시하여 많은 결실 자를 얻기도 했다.⁹⁵⁾ 다음은 주일학교 공과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주일학교 공과 내용

한국교회가 선교 초창기에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글로 된 성경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1887년 마가복음과 교리문답이 한글판으로 출판되어 보급하였다. 이러한 한글성서와 소책자와 기도서 등이 모두 주일학교의 교재로 사용되었다. 먼저 한국교회 장로교단 통합 측 주일학교 공과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884년부터 1910년 까지는 어떤 공과를 사용하였는지 분명한 기록이 없다. 주일학교공과는 1911년 이래로 계속해서 만국통일공과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미국에서 출

93) 주선애, *장로교 여성사*, 64.

94) 장희근, *한국장로교회사* (서울: 아성출판사, 1970), 101.

95) 한영제, *기독교 사전* (서울: 기독교문사, 1991), 460.

판된 공과를 토대로 해서 한국어 공과를 편집해야 했으므로 1919년에 미국에서 사용한 공과를 1921년에 한국에서 출판해서 사용했다.⁹⁶⁾ 선교사 공의회에서 주일학교 교육교재를 편집했는데 공과의 내용은 성경 이야기를 쉽게 쓴 것인데 미국에서 사용한 통일공과를 한국에 실정에 맞춘 것이다.

주일학교는 1960년대 전후까지는 통일공과를 사용했고, 1970년대를 전후로 “성서와 생활”인 계단공과, 1980년대 전후로 말씀과 삶인 계단공과, 1990년대 전후로 “말씀과 삶”을 수정 작업했으며 이때 청년부, 장년부 공과까지 출간, 2000년대 이후 새 교육 과정의 요청과 도전으로 *하나님나라: 부르심과 응답*이다.⁹⁷⁾

여러 가지 공과 책을 대표로 말씀과 삶의 공과 내용을 알기 위하여 교재가 다루고 있는 범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성경>

1.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석상을 알게 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의의를 깨닫게 한다.
2. 따라서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그의 교훈과 완전한 생활을 본받아 다시오심을 기다리며,
3. 이 세상에서 날마다 그를 따르며 증거하는 생활을 하도록 한다.

<그리스도>

1. 하나님의 아들로 도성인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의의를 깨닫게 한다.
2. 따라서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그의 교훈과 완전한 생활을 본받아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3. 이 세상에서 날마다 그를 따르며 증거하는 생활을 하도록 한다.

<교회>

1.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로서 계속하여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며 인간과 화해하시기 위한 기관임을 깨닫게 한다.
2.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약속의 백성으로서 교회의 예배와 친교, 봉사 및 교육과 선교활동에 참여하면서 그의 의를 경험하고 그 안에 생의 뿌리를 박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96) F. L. Clerke, *The Korea Mission Field* (May 1921), 103.

97) 서울서북노회 훈련원, 총회교육부의 새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제2회 서울서북노회 목회자 세미나 강의안, 2004), 20.

한다.

3. 교회는 오늘의 문제를 바로 파악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터한 사회건설의 사명을 수행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제자 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⁹⁸⁾

결국 “말씀과 삶”의 모든 교재의 내용은 위에 나타난 성경, 그리스도, 교회로 구
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교인들은 예배 중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있으며 세례교육을 통하여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성경구절을 암송하고 있다. 다음은
한국교인의 특별한 신앙경건훈련의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 4 절 한국교인의 특별한 신앙경건훈련의 예

한국교회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특별한 신앙경건훈련이 있다. 한국
인은 오랜 역사 속에서 타종교들의 체질화된 수양적 전통방법을 나름대로 가지고 오
다가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한국인 체질에 맞는 특별한 신
앙경건훈련을 만들어 냈다. 또 한국교회는 1907년부터 오늘날까지 교회마다 부흥회를
통하여 교인들에게 신앙경건훈련을 시키고 있다. 1907년 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철야
기도, 새벽기도, 구역예배가 활성화 되었다. 먼저 부흥회를 통한 신앙경건훈련을 살펴
보고자 한다.

1. 부흥회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을 참석한 하리스 감독(Bishop M.c. Harris)이
1908년에 보고한 글을 보면 당시에 변화 받은 신앙의 모습을 잘 알 수 있다.

이 부흥운동은 참으로 놀라운 영향을 끼쳤다. 교회의 영적수준이
훨씬 높아졌으며, 미리 성경 지식을 잘 닦은 뒤에 일어났기 때문
에 광적인 경향이 없이 모두가 올바른 정신 상태로 자기들의 양심
의 명령에 따라 행동했다. 그리하여 주님의 사업에 몸 바쳐 일하
겠다는 사람이 수십 명 생겼고, 성경을 공부하려는 열심히 일어

98)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교육부, *말씀과 삶*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6), 6-7.

나... 수천 명이 성경 읽기를 시작하고 의심되는 것을 물었으며, 술, 주정꾼, 노름꾼, 도적, 살인자, 간음죄인, 지각없는 중들, 수많은 무당 판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나게 되어 모든 옛것이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다.⁹⁹⁾

이처럼 1907년 부흥회는 한국교회를 말씀과 기도위에서서 신앙경건훈련을 하게 하였다. 낮에는 사경회로 성경공부를 하고 밤에는 부흥전도회가 되었는데 은혜를 갈망하는 교인들의 기도소리가 폭포소리로 천지를 진동시켰고 신비스러운 경험을 계속했으며 눈물과 감격으로 밤을 새워 기도했고, 이 감격의 파장은 며칠을 계속했다.¹⁰⁰⁾

성령의 불길은 장대현 교회(1893년 설립)에 모인 모든 군중의 마음속에 요원의 불길처럼 타올랐던 것이다. 이 불길은 마침내 전국 방방곡곡의 모든 부흥사경 집회에 작용하여 신앙의 심화와 사랑의 실천, 뜨거운 전도열과 십일조운동, 죄의 포기와 교회에 대한 애착 그리고 새로운 헌신 등을 불러일으키면서 100만 신도 구령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¹⁰¹⁾

한국교회는 부흥회 강사에 의하여 신앙경건훈련에 많은 영향을 받았음으로 연대별로 한국교회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김선주 목사, 김익두 목사, 이용도 목사의 특징을 살펴보려 한다.

1900년은 김선주 목사의 회개와 사경회중심의 부흥운동이다. 김선주 목사가 등장하여 대부흥운동의 실질적 구형자로서 독특한 유형의 신앙을 형성해 나갔다. 새벽 기도회를 처음으로 실현하게 되었으며 예배 도중에 함께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통성기도 의식¹⁰²⁾을 창안해 냈다. 김선주 목사의 부흥운동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교회에 회개운동을 일으켜 주도했다. 둘째, 성경 중심적 사경부흥회였다. 셋째, 김선주 목사의 사상은 말세론이 주종을 이루었다.¹⁰³⁾

김익두 목사는 1920년대부터 남쪽 지방에서 이적과 권능의 부흥운동을 일으킨 한국의 대표적 부흥운동 인물이다. 첫째 치유와 이적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시켜 주며 일제의 억압 속에 좌절하고 있던 신자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힘을

99) 박만전, *한국교회사*, 121-122.

100) W. N. Blair, *Gold in Korea* (New York: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1957), 65.

101) Jonathan Goforth, 1907 한국을 휩쓴 성령의 불길 (*When the Spirit Fire Swept Korea*), 김용련 역 (서울: 생명출사, 1977), 14-15.

102) 김진환, *한국교회 부흥운동사* (서울: 크리스찬 비전사, 1976), 99-101.

103) 유동식, *한국신학의 광맥* (서울: 전망사, 1982), 58.

주었다. 이것을 계기로 백만 구령운동(1909-1911)을 전개했고 한국최초의 조직적인 전도운동이 시작되었다. 둘째 그의 설교의 중심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천국에 갈자, 회개 등의 순수한 복음만을 증거 했다.¹⁰⁴⁾

1930년대 이후에 이용도 목사가 등장하여 한국교회사에 영원히 잊지 못할 빛의 흔적을 남겨 놓았다. 이용도 목사는 어떤 교회나 교파, 대 소간을 불문하고 삼천리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한국교회를 개혁시켰다. 이용도 목사의 부흥운동의 성격은 첫째 전국적으로 기도의 불을 일으켰다.¹⁰⁵⁾ 둘째 당시에 자기만족에 빠진 당시의 교계지도자들, 즉 선교사, 목사, 부흥사들에게 교만과 파벌에 대한 맹성을 촉구하므로 새 생명의 바람을 전국에 일으켜 1930년대 초기의 교회를 부흥 내지 개혁시켰다.

1960년 이후부터는 초대형 부흥집회가 등장하였다. 한 목회자가 부흥운동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연합하여 신앙경건훈련을 시킨 것이 특징이다. 1965년에는 “삼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라는 표어로 내건 초교파적인 한국복음화운동이 일어났고, 1970년대부터는 계획적인 대중 집회 성격을 띤 부흥전도 집회가 교계에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여의도 광장은 대규모 종교집회가 계속 열리었다. 1972년의 “빌리그레함 전도대회”, 1974년의 “엑스포로 74”, 1977년의 “민족복음화 성회”, 1980년 “세계복음화 성회”, 그리고 1984년 “선교 100주년 기념대회”가 열렸다. 한국교회는 100만 명이상 모이는 초대형 집회를 5번이나 열어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거듭남의 체험을 경험함으로 다함께 신앙경건훈련을 받는 계기를 만들었다.

가. 철야기도

철야기도의 처음시작은 1907년 1월 8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주일 저녁에는 1,500여명의 신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그날 밤 철야기도를 가졌다. 이 철야기도 석상에서 길선주 장로가 일어나 “친구 미망인의 소유 가운데 미화 100불에 상당하는 재산을 사취한 사실”을 고백하면서 통회자복하자 온 회중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났다.¹⁰⁶⁾

104) 손학풍, “한국교회 부흥회와 교회성장의 관계에 관한연구”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87), 60-62.

105) Ibid., 66-70.

106) Jonathan Goforth, 1907 한국을 휩쓴 성령의 불길, 10-12.

평양에서 일어난 부흥집회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교회마다 부흥회를 통하여 은혜 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철야기도가 시작되었다.

1950년 6.25사변 이후의 한국교회는 북으로부터 남하한 피난 성도와 더불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특별 기도운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부산 초량교회에서는 피난교역자들이 일심 단합하여 밤을 새우면서 조국의 구원을 위하여 철야기도회를 가졌다.¹⁰⁷⁾ 1950년 한국을 방문한 미국인 로버트 핀레이(R. Robert Finley)는 당시의 기도운동을 이렇게 묘사했다.

나는 한국의 성도들이 매일 새벽 5시에 기도모임을 갖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나는 미국에서 그러한 신앙훈련을 하는 것을 결코 본적이 없으며, 주께서 온전히 헌신하여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순수한 신앙으로 밤을 지새우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 그는 주저하는 마음으로 삼각산 기도 집회에 참석한 청중들에게 설교했으며, 하루는 오후 4시에 모인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4시 모임 이후 1,000여명의 사람들은 그룹별로 흩어져 밤새워 금식기도를 했다. 그들은 이박 삼일 동안 계속 그렇게 했다. 그 기도는 금식과 도교의 철야 및 새벽기도였다.¹⁰⁸⁾

1970년대 이후로 정부의 산업화정책으로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정부는 대도시로 몰려드는 사람들을 분산하기 위하여 위성도시를 건설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교회마다 성장을 부르짖게 되어 철야기도를 강조하게 되었다. 철야기도는 밤을 새우며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므로 중요한 신앙경건훈련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나. 새벽기도

구약시대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매일 성소에 들어가 향을 사르는 시간도 새벽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의 일과를 놓고 기도하셨다(막 1:35). 그러므로 새벽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한국 교회는 특별히 1905년부터 시작된 새벽기도가 지금까지 교회

107) 김광수, *한국민족기독교 100년사* (서울: 기독교문사, 1978), 113.

108) 김명혁, *한국교회쟁점진단* (서울: 규장, 1998), 40.

마다 계속하고 있다.

한국교회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새벽기도운동은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이다. 1905년 가을 길선주 장로의 새벽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걱정하고 새벽에 교회에 나가 기도하기 시작했다. 날이 갈수록 교인들이 호응하여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였는데 얼마 후에는 300-500명의 교인들이 새벽에 모이기 시작하였다. 길 장로는 교회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매일 수백 명의 교인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당회에 정식허가 요청(1905년 9월)하였으며 장대현 교회 당회가 허락하여 새벽기도회를 시작하였다. 한국교회의 새벽기도는 평신도가 기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깨닫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것이 함께 기도하고 싶은 교인들이 몰려오면서 교회 전체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되었다.¹⁰⁹⁾

이때부터 시작된 새벽기도는 지금까지 교인들의 신앙경건훈련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새벽기도는 어떤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원하여 시작하였다. 또, 새벽기도는 자신들의 영적인 생명회복과 더불어 민족을 위한 몸부림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새벽기도회는 분명 평양에 있는 “장대현 장로교회”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지금은 모든 교회들이 새벽기도를 통하여 신앙경건훈련을 매일 시키고 있다.

다. 구역예배

장로교회는 여전도회가 먼저 구역회제도를 받아들였다. 한국최초의 여전도회는 1898년 2월20일 평양 널다리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으며 지회의 규모에 따라 여전도회 안에 지역별로 원주회를 두었는데 이것이 점차 구역회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수요일 혹은 금요일 저녁에 구역예배를 드렸고 6.25 사변 이후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구역예배가 활발하게 성행하여 왔다.¹¹⁰⁾

대개 한국교회의 구역예배(구역성경공부)는 금요일로 정해져 있다. 거기에는 두

109) 강경규, “한국개신교의 새벽기도 영향” (D.Min. diss., Dubuque Theological Seminary, 2000), 136.

110) 김종석, *구역예배공과* (서울: 예장총회 출판부 1984), 9.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날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억하자는 뜻이고, 둘째는 일요일, 수요일, 금요일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주일을 앞두고 이틀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공부하면서 친교를 나누고 주일을 준비하기에는 금요일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구역예배는 일단 구역구성원이 어느 한 장소에 모이게 되면 자연스러운 인사가 교환된다. 그리고 나서 묵도, 찬송, 기도 후에 성경공부가 시작된다. 이 때 성경공부인도는 파송된 교역자나 훈련받은 구역장(속장)이나 구역 성경공부 강사가 리더 한다. 성경공부 후에는 기도 헌금, 찬송, 주기도의 순서로 끝나고 친교의 시간 혹은 토의시간으로 연결된다.¹¹¹⁾

한국교회에서 가장 작은 교회는 구역이다. 이 구역 안에서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은 구역장들이 구역식구들에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헌금으로 신앙경건훈련을 시키고 있다. 특히 구역식구들이 둘러앉아서 신앙을 간증하고 각자의 기도제목을 놓고 합심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좋은 신앙훈련 장소이다. 모든 한국교회는 구역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초신자가 교회에 등록을 하면 구역장을 통하여 신앙경건훈련을 받고 있다.

2. 절기를 통한 신앙경건 훈련

한국교회는 교회중심으로 신앙경건훈련을 시키고 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세례와 성만찬이다. 이러한 것들은 교회의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나 교회 창립주일을 전후해서 하는 것이 보통이다. 먼저 성례전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가. 성례전(세례, 성찬)

세례는 헬라어(바프티조)로 “잠금다”는 뜻이며 바울은 세례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뜻으로 말했다(롬 6:1-11). 우리는 세례의 방법보다 의미를 더 중요

111) 오만균, “성경공부와 사경회제도가 교회성장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D.Min. diss., 호남신학대학, 2001), 31.

하게 여겨야 한다.

칼빈은 세례의 의미에 대하여 죄 씻음 받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 주님과 교제를 말하면서 처음 두 가지는 세 번째에 의존한다고 하였다. 즉 세례의 궁극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것을 말했다.¹¹²⁾ 그러므로 세례는 생명의 출발점이요 한편 그리스도 교회의 입회 의식으로 인식하여 왔다.

한국교회는 세례를 아주 중요시 여겼다. 교회에서는 직분을 줄 때는 세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주었다.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교육과 문답을 통하여 초신자들에게 신앙경건훈련을 시키어 왔다. 해마다 교회의 형편에 따라 다르지만 교회절기인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전후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성찬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전 11:24)고 한 말에 근거한다. “나를 기념하라”의 말은 주님의 죽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¹¹³⁾ 성찬은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고전 11:26)인데 “전하다”는 선포하다는 서술적 의미인데, “기념”이 떡과 잔에 대한 감사로 이해된다는 점에서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고백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구속적 죽음과 그의 현재적 통치가 엄숙하게 선언된 세계를 향하여 찬양을 고백하는 내용이 있다. 여기서 초대교회가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향하고 있음을 본다.¹¹⁴⁾

성찬에서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그리스도의 승리의 약속에 참여하고 모든 인류의 죄와 죽음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힘의 현실을 자유와 환희와 노래로 축하하는 것이다.¹¹⁵⁾

나. 교회절기(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한국교회는 크게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을 지키고 있다. 이러한 절기를 지킬 때에 공통점은 모두 교회에서 함께 지키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있다. 절기마다 절기 특별헌금을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112) Wilhelm Niesel, *칼빈 신학*, 이종성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3), 216.

113) 김지철, “성만찬에 대한 바울의 신학적 이해,” *교회와 신학*, 1977년 3월호, 111.

114) Ibid., 120.

115) 정웅섭, *기독교교육의 새 전망*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72), 181.

부활절은 주로 주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셨다 하여 부활절 새벽예배를 강조하여 왔다. 주로 성례식(세례와 성찬)을 하고 삶은 계란을 나누어 주며, 오후예배는 부활절 특별 음악예배를 드리고 있다. 추수감사절은 농산물로 강단 장식을 하고 감사절 떡 잔치를 하는 것이 관례가 되고 있다.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교회는 성탄절 추리를 장식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세상에 알리어 왔다. 성탄절 전날 저녁에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성탄축하 발표회를 하고 성탄절 날 새벽에 교인들의 집 앞에서 예수님 탄생의 기쁨을 알리는 새벽 송을 불러 축복해 주는 전통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성탄카드를 보내고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것을 당연시 하여 왔다.

지금까지 한국교인 교회 신앙경건훈련 역사를 고찰하였다. 한국인들이 신앙을 전수하는데 있어서 부정적인면도 있다. 한국교회는 기독교가 전래되기 전에 있었던 타종교의 것들을 용납하면서 교회를 성장시켰다. 그것으로 인하여 기복주의, 대 사회적인 것에 무관심, 많은 교파를 만들어 내었다. 그러나 본 논문은 긍정적인 면만 다루었다.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경건훈련을 직접 대물림시켰지만 한국교인들은 교회에서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신앙경건훈련을 직접 시켰다. 그 이유는 한국에 전래된 기독교는 선교정책 적으로 어린아이와 부녀자를 전도하였다. 한국교인들이 유대인들과 다른 점은 유대인들은 타종교를 완전히 제거하고 마음이 옥토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신앙경건훈련을 했다면, 한국교회는 타종교들의 혼합되고 융합된 체질화된 수양의 전통적 방법들을 모두 수용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경건훈련을 하였다.

교회의 목회자는 목자로서, 선포자로서, 청지로서 교인들에게 신앙경건훈련을 시키고 있다. 또 교회공동체는 신앙경건훈련으로 남을 섬기는 훈련, 말씀을 가르치는 훈련, 말씀을 선포하는 훈련 그리고 교인간의 교제의 훈련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두 가지 축으로 신앙경건훈련을 하고 있다. 하나의 축은 성경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는 사경회중심의 축이다. 한국교회는 1890년부터 사경회중심의 신앙경건훈련을 시키고 있다. 한국교회는 사경회의 영향으로 어린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하여 주일학교, 하기 여름성경학교를 만들어 신앙경건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키고 있다. 한국교인들은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암송하고 있으며 주일학교의 공

과 책은 성경, 그리스도, 교회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 하나의 축은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는 부흥회중심이다. 한국교회는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난 성령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한국인 체질에 맞는 특별한 신앙경건훈련을 만들어 냈다. 부흥운동은 기도중심으로 신앙경건훈련을 시키어 왔다. 한국교회는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아 철야기도, 새벽기도, 구역예배가 활성화 되었다.

한국교회는 성례식을 아주 귀하게 여겨왔다. 그래서 세례교육을 몇 주간씩 했으며 세례문답을 통하여 신앙을 점검했다. 한국교회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절기에 맞추어서 특별새벽기도와 절기의 의미를 나타내는 여러 행사를 해오고 있다. 한국교인들은 유대인들과 달리 신앙경건훈련을 모두 교회중심으로 실시하였다. 다음은 구파발 교인들의 신앙경건역사를 연구 분석하고자 한다.

제 4 장

구파발 교인들의 신앙경건역사 연구 분석

본 연구는 한국교회교인들의 신앙경건역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파발교회를 선택했다. 구파발교회를 표본으로 삼은 이유는 46년의 역사(1958년 9월 21 창립)를 가진 교회이며 임종헌 목사가 37년을 한 장소에서 목회하시고 은퇴하셔서 신앙경건역사를 연구하는 좋은 조건을 갖추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 지금은 오을영 목사가 후임으로 부임하여 4년 동안 전임목회자의 뒤를 이어 목회를 계승하고 있다. 먼저 구파발 지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구파발지역의 종합평가

구파발 지역은 행정구역상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진관내동, 외동이었다. 구파발 지역은 1969년 무장공비 김신조 일당이 남침하여 이곳을 통과한 후 군사보호지역, 그린벨트 등으로 묶이면서 지금까지 건축이 통제되었고 이로 인해 구파발 지역의 주택 등 모든 건축물들은 6.25전후의 피폐한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¹¹⁶⁾

그러다가 이 지역은 1972년에 서울시로 편입되어 은평구 진관내동, 외동, 구파발동으로 되었다. 2002년도에 이르러 이명박 서울시장은 “강남, 강북을 균형 있게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구파발 지역을 뉴타운 개발의 모델로 선정하였다. 2004년부터 “은평 뉴타운” 개발이 시작되어 모든 주민들이 이 지역을 떠났다가 은평뉴타운이 완성되는 2008년까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먼저 구파발 지역에 대한 종합평가로 지리적, 교통적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16) 구파발교회 40년사 편찬위원회, *구파발교회 40년사* (서울: 소망사, 1998), 118.

1. 지리적, 교통적 상황

먼저 구파발(舊把撥)이라는 이름을 역사적 의미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교회사학가 이진호에 의하면 파발(把撥)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하였다. 하나는 공문서의 전달, 관청의 물자수송, 관리의 출장을 위한 교통운수 기관인 역참(驛站)¹¹⁷⁾을 말한다. 또 다른 하나는 공문 전달을 위하여 역참 사이를 나르는 파발꾼이나, 이때에 사용하는 말(馬)을 줄여서 말하는 경우가 있다. 파발을 살펴보면 한양을 중심으로 황해도, 평안도, 중국에 이르는 서발(西撥)과, 강원도 지방으로 가는 북발(北撥), 그리고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에 이르는 남발(南撥)이 있었다. 이중에 황금노선이 서발이었는데 그 첫 출발지가 지금의 구파발이고, 또한 서북지방과 중국에서 오는 종착역이 또한 구파발이다. 한양으로 들어가는 사신은 여기서 의관을 가다듬고 역졸은 말에게 먹이를 주기도 했다. 이렇게 옛 파발인 구파발은 사연도 많고 애환도 많았던 땅이다. 남발(南撥)의 첫 역은 지금의 양재동으로 말죽거리다. 현재 교통상황을 보면 지하철 3호선인 남발인 양재역과 서발인 구파발역을 거쳐 일산으로 이어져 지리학적으로 볼 때에 매우 의미 있다. 구파발 지역은 북한으로 가는 “통일로”가 시작되는 곳이다. 이 통일로로는 북한 사람들이 휴전선을 넘어 자유 서울로 들어오는 관문이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판문점으로 관광을 가는 통일로의 출구이다.¹¹⁸⁾ 이런 역사적인 곳에 구파발교회가 세워진 것은 세계선교를 꿈꾸는 교회로 참으로 의미가 깊다.

2. 경제적인 상황

구파발 지역은 군사보호지역과 그린벨트지역으로 서울에서 격리된 곳이었다. 이 지역은 가난한 주민과 서울에서 실패하여 집값이 싼 곳으로 이주해온 사람들로 형성되어 있는 까닭에 교인들의 헌금 능력은 한계에 달해 있었다.¹¹⁹⁾

117) ‘역참(驛站)의 기원’은 매우 오래되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신라 소지왕 9년(서기 487년)에 중국 당나라제도를 따라 우편역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시초라고 말한다. 이 역참은 지금 같은 철도나 자동차 등 교통이 발달되지 아니한 시대의 우편, 수송기관이었다. 그런데 역참은 관청의 업무만 담당하였고 개인의 일은 다루지 아니하였다.

118) 구파발 교회 30년사, 51-52.

119) 임종현, 성장 20년사 (서울: 구파발교회, 1978), 32

이 지역은 행정구역상 서울시이지만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집을 수리할 수가 없어서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가정이 많고,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서 연탄과 기름보일러를 사용하여 난방비가 많이 드는 곳이다. 지금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나이 많은 노인들로 정든 집을 떠나지 못하고 지키고 있는 실정이다. 자녀들이 성장하여 결혼하면 열악한 환경 때문에 이곳을 떠나 다른 지역에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젊은층과 유아동층이 없는 지역이다. 교회에서 하는 어린이 집과 유치원에 아이들이 없어서 다른 지역에서 데리고 오는 실정이다.

지금까지도 구파발 진관 시장통로는 1960-1970년대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서 자주 1960-70년대의 영화 촬영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한다.

3. 종교적 상황

구파발 지역의 옛날 지명이름을 살펴보면 종교적인 상황을 알 수 있다. 서울시로 편입되기 전의 행정구역은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진관내동, 외동이었다. 이 지역은 이름 그대로 미신(迷神)을 섬기는 읍이라 하여 귀신을 섬기는 고장으로 유명한 곳이다. 이곳은 신도(神道)라는 이름이 뜻하듯 무당과 점치는 곳으로 장안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진 무녀(巫女)골¹²⁰⁾로 8대를 무당으로 내려 온 집안이 진관외동에 자리하였으며, 내 동인 구파발동에는 큰 무당으로 양대 세력의 점술가(占術家)가 자리하고 있던 고장이었다.¹²¹⁾

진관동이라는 이름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관외동이란 진관사가 진관외동에 있어서 절을 중심으로 안쪽을 내동, 바깥쪽을 외동이라 불러서 진관동이 된 것이다. 진관사는 고려 현종(顯宗)왕 원년(1010년)에 진관국사를 위하여 절을 창건하고 절 이름을 진관사라라고 불렀다. 이 진관사는 6.25동란 때 소실되었으나, 6.25후 다시 중건하여 현재의 웅장한 역사적 사찰이 되었다. 이 진관사는 비구승들의 전통적인 사찰로 지역에 불교문화창달을 위해 깊은 뿌리를 내렸다. 과거에 이 지역의 주민들 중에는 90퍼센트가 진관사에 의하여 생계를 이어왔었다.¹²²⁾

120) 임종현, *성장 20년사*, 30.

121) *구파발교회 40년사*, 93.

122) Ibid.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05년 연희대학(현 연세대) 창설자 언더우드 선교사와 대학생들이 교통편도 없는 이곳에 30 리를 걸어 와서는 복음을 외쳤으나 워낙 귀신이 세게 역사하는 고장이라, 복음의 씨는 떨어졌으나 싹도 터보지 못하고 말라버렸다. 그 후 1958년에 구파발교회가 개척되고 난 후 이 지역에 교회가 하나 둘씩 개척되기 시작하였다.¹²³⁾ 지금은 구파발 교회를 중심으로 23개의 교회가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다. 그 결과 과거에는 구파발 지역 어디를 가든 무당이 굿하는 소리, 경을 외는 소리가 밤낮 없이 들렸으나 지금은 교회들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소리들이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구파발교회 개척 초기에는 박해도 많았고 예배시간에 돌을 던지고 예배당 안에 배설을 하는 일도 있었으나 지금은 지역주민들이 점점 교회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고 교회에 대한 좋은 호감을 갖게 되었다.¹²⁴⁾

4. 구파발 지역 신시가지형 “은평 뉴 타운” 건설

구파발 지역은 강남, 강북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개발되는 신시가지형 은평 뉴 타운이 건설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계획적, 체계적, 단계적 신시가지형 은평 뉴 타운 조성으로 역사, 문화 등 강북의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주거단지가 조성될 것이다. 또, 노후 불량주거지 밀집으로 상징되는 강북은 새로운 방식의 뉴 타운 개발계획에 따라 산, 구릉, 도심 등 지역별 특성에 따른 주거단지 개발과 이곳에 다양한 소득계층이 함께 모여 사는 품격 있고 경쟁력을 갖춘 21C형 주거환경공간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또한 은평 뉴 타운은 강남사람이 부러워하는 21C형 강북모델마을로 조성될 것이다. 은평 뉴 타운은 “리조트형 생태 전원도시”로 조성되어 실개천, 생태습지 숨 쉬는 초록마을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먼저 은평 뉴 타운 개발 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다.

123) 임종현, *성장 20년사*, 30-31.

124) *구파발교회 40년사*, 93.

가. 사업개요

위치: 은평구 진관 내, 외동, 구파발동 일대 3,495천 m^2 (1,057평)

사업방식: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 현재 8,177가구 25,100명=> 14,000가구 39,200명

사업기간: 2002.10- 2008.12 (사업비 : 2조 9,531억원)

사업추진: SH공사 자체사업

나. 생태형 도시

풍부한 공원, 녹지 공간(뉴타운 개발부지의 35퍼센트)을 조성하며 습지와 실개천 2곳을 복원하고 주변에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을 조성하며 인구밀도는 분당, 일산보다도 적은 ha당 100명 내외로 계획되었다.

다. 인간중심 도시

획일적인 판상형 대신 다양한 높낮이와 디자인으로 배열하고 경사지에는 일조권과 조망권 확보를 위해 테라스하우스를, 도로변에는 1층을 비워 시각적으로 여유를 주는 가로형 공동주택을, 역세권에는 타워형 아파트로 배치되었다. 그리고 주택단지는 일률적 높이와 형태를 지양하고 같은 단지 내라도 높낮이가 다르게 배치하여 주택단지 자체가 조망성 있도록 구성되었다.¹²⁵⁾

제 2 절 구파발 교회 신앙경건역사

구파발 교회는 1958년 9월 21일 창립된 교회로 구파발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구파발 교회는 구파발 지역에 있는 23개 교회들과 연합하여 지역복음화를 위하여 일하며 지역주민을 섬기는 교회로 우뚝 서 있다. 구파발 교

125) SH공사, “뉴타운 조성사업,” *행복한 도시 생활의 열린 파트너 SH 공사*, 15.

회는 이웃에 있는 신도초등학교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 왔으며, 추수감사절에는 교인들이 봉헌한 과일과 농산물들을 지역에 있는 노인정, 복지시설, 관공서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으며, 성탄절에는 불우 이웃돕기 성금을 모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라면 한 상자씩을 지역에 있는 많은 복지시설들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교육 선교 사업으로는 미취학 아동들을 위하여 어린이 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들을 위하여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구파발 교회의 역사를 살펴 보고자 한다.

1. 구파발 교회의 역사

구파발 교회는 1958년 서울 용산지역에 소재한 도원동 교회가 황막한 이곳 산 중턱에 지대를 다듬고 12평 남짓되는 판자교회를 건축하면서 시작되었다.¹²⁶⁾ 1958년 9월 21일(셋째 주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진관 교회”라는 간판을 교회 앞에 걸므로 본교회가 태동된 것이다. 그 후 3년 만에 “진관교회”를 “구파발 교회”로 개칭하고 1960년에 노회에 가입하였다. 창립예배를 드린 첫 성도는 남자 2명과 여자 13명 그리고 어린이 10명으로 모두 25명이었다. 그 후 이곳에서도 주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나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모여들었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이 무당들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 관계로 그 반발이 교회에 음으로 양으로 미쳐와 교회의 집회를 방해해 왔다. 개척교회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으나 그래도 모교회인 도원동 교회의 지원과 새문안 교회 여전도회에서의 도움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 장일형 목사는 1958년 9월 21일부터 3년간 주일설교만 하시다 사임하셨고, 또 이귀선 목사는 1961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설교목사로 수교하셨다.¹²⁷⁾ 또한 초기 4, 5년 동안 교역자와 예배인도자가 여섯 번이나 바뀌는 악순환을 거듭했으며 때문에 몇 사람 안 되는 교인들은 갈피를 잡지 못했다. 1962년 중순경 오세철 목사의 부임으로 교회는 어느 정도의 안정을 찾아 나가다가 1964년에 임종현 목사의 부임으로 교회는 급성장해 나가시 시작했다.¹²⁸⁾

126) 임종현, *성장 20년사*, 106.

127) *구파발교회 40년사*, 97.

128) 임종현, *성장 20년사*, 30-31.

임종헌 목사는 행정적인 기반을 가지고 차근차근히 조직하여 그 동안 어려움을 겪은 교회를 새로운 방향으로 출범시켰다. 먼저 구역을 재정비 하며 교인의 가정을 종점심방하여 신앙생활을 교회중심으로 유도했다. 1966년 6월부터 교회가 자립해 나가는 큰 계기가 되었다. 교회설립10주년 만에 교인 수는 400여명에 이르렀고, 8개 구역과 200세대의 교인을 갖는 이 지역에서의 큰 교회로 성장했다.¹²⁹⁾

20주년에는 장년 600여명, 유년부 500여명, 중고등부 250여명, 대학청년부 50여명, 6개교구 34구역, 550세대의 교회로 성장했다.¹³⁰⁾ 30주년에는 장년 810명, 유년 325명, 중고등부 238명, 대학청년부 51명의 교인, 3교구 103구역, 793세대의 교회로 성장을 했다.¹³¹⁾ 40주년에는 장년 1,151명, 유년 212명, 학생 181명, 대학청년부 133명, 4교구 103구역, 1,204세대의 교회로 성장했다.¹³²⁾

37년간 목회를 하신 임종헌 목사는 2000년 12월에 원로목사로 추대되었고, 그 후임으로 2000년 12월 첫 주부터 오을영 목사가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원로목사의 목회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2. 구파발 교회의 신앙경건 훈련 내용

구파발 교회는 46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다음은 교회가 46년간 신앙경건훈련을 해왔던 특별한 내용들을 정리하려고 한다.

1958년 구파발 교회가 세워지면서 성경구락부가 중등부과정으로 출발하였다. 처음에는 연세대학교 학생 몇 명이 봉사했고, 1959년부터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학생 2명의 지원을 받았었다. 학생들이 처음에는 수십 명이 되었으나 가난한 학생들이 낮에는 일터에서 일하고 밤에는 모여 공부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1960년도부터는 성경구락부 본부 지원도 받고 해서 1, 2학년으로 구분하여 교육을 했으나 교실 난으로 천막을 교회 마당에 치고 '성광중학'이라 간판도 걸었다. 1964년에 이르러 성경구락부는 학생이 적어져서 자연 문을 닫게 되었다. 다시 1970년대에 와서 청

129) 임종헌, *성장 20년사*, 40-41.

130) Ibid., 41-42.

131) 임종헌, *1988년 구파발 교회 교인수첩*, 56-78.

132) *구파발 교회 40년사*, 561.

년회가 주관이 되어 야간 구락부를 3년 했으나 점점 학생 수가 감소되어 폐교하고 오늘에 이르렀다.¹³³⁾

주일학교를 살펴보면 1959년 4월 19일 20명의 학생으로 주일학교가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1960년 3월 20일 최초의 주일학교 졸업생 학생은 7명이었다. 주일학교가 성장하여 1966년 4월 17일 부활절 축하 음악예배를 유년부 주최로 드렸으며, 1968년 말에는 어린이 평균출석 140여명이었다.¹³⁴⁾ 그 후 여름성경학교가 가장 활성화 될 때는 1,000명의 학생들이 모인 적이 있었다.

총회 종교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성경통신대학에 전체 제직들이 입학하도록 권장하여 1976년 7월 3일에 53명의 졸업생을 내고, 그 후 매년 졸업생을 내어 1977년 20명, 1978년에 13명의 졸업생을 내었다.¹³⁵⁾ 1980년 11월 9일 “70인 전도대”를 발족하여 전도교육을 철저히 시켰다. 훈련교재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왜 전도해야 하는가? 두 번째 그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세 번째 누구에게 증거 할 것인가? 네 번째 복음 전도자 자신의 향상과 인격의 훈련. 다섯 번째 전도에 관한 요절을 중심으로 외우며 그 외에 60구절 주제별 성경암송 이었다.¹³⁶⁾

그동안 해왔던 성경공부를 살펴보면 1986년에는 크로스웨이 제1기 수강생 83명의 졸업자¹³⁷⁾를 배출했으며, 1993년에도 벨엘 성서 속편 졸업식을 성대히 하였으며 밤과 낮 두 반으로 공부해서 졸업식을 했다.¹³⁸⁾ 1996년부터 본 교회는 저녁 예배로 드리던 시간을 교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오후 2시30분에 예배를 드리면서 점심식사 후 예배드리기까지의 시간 활용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당회는 1997년 3월을 기하여 주일 장년 성경공부 반을 개설하기로 결의 하였다. 점심식사 후 1시 30분부터 2시 10분까지 40분간 성경공부 반으로 6개 반으로 나누어 성경을 공부하였다. 첫 번째 교재는 소망사에서 발간한 *경건한 삶* 두 번째 교재는 *ABC성경공부 시리즈*로 하였다.¹³⁹⁾ 1998년부터 새 신자들을 위하여 등록 후 4-6주, 교육시간은 수요일 오전 10시 반에서 12시까지, 오후 수요일예배 후 1시간 정도 교육을 실시했다. 그 교육내용을 보면 제1주:

133) *구파발 교회 40년사*, 100-101.

134) 임종현, *성장 20년사*, 107-108.

135) Ibid., 115-116.

136) *구파발교회 40년사*, 303-305.

137) Ibid., 122.

138) Ibid., 159.

139) Ibid., 297-298.

구원의 확신(4영리를 중심으로), 제2주: 신앙의 성장은 어떻게?, 제3주: 성경을 배웁시다, 제4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제5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6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갑시다.¹⁴⁰⁾

교회가 20주년이 되었을 때에 출석하는 교인들 중 70퍼센트 이상의 대다수 교인들이 어린 시절 유년주일학교에 다닌 경험이 있었으며, 주일학교의 감화 있는 교육에서 신앙생활을 배웠음을 알 수 있었다.¹⁴¹⁾ 또 구파발 교회의 46년의 짧은 역사 중에 23명의 목사가 평신도에서 배출하였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다.¹⁴²⁾ 다음은 구파발 교인들의 신앙경건훈련에 대하여 연구 분석을 하려고 한다.

제 3 절 구파발 교인들의 신앙경건훈련 연구 분석

본 연구는 한국교회교인들의 신앙경건훈련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파발교회'를 선택했다. 구파발교회를 표본으로 삼고 설문조사를 한 이유는 구파발교회는 통합측 장로교회로 46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이기 때문이다. 구파발지역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지역이었다. 구파발지역의 옛 이름이 신도(神道)읍으로 귀신이 역사하는 읍이었으며, 무당이 8대까지 대물림되어 역사하던 지역이다. 또, 진관사를 중심으로 불교의 세력이 천 년간 이 지역에 영향력을 주었던 지역이다. 따라서 구파발교회가 개척될 때부터 무당들은 동네 젊은이들을 충동시켜 돌맹이질을 하게하고 직접 와서 갖은 모양으로 방해하였다.¹⁴³⁾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음을 전하여 등록된 교인이 3,000명이 넘는 이 지역을 대표하는 큰 교회로 성장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본 논문은 설문조사를 하였다.

1. 조사의 범위와 방법

설문은 31문항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는데 그 내용분류는 다음과 같다. 설문지

140) 구파발 교회 40년사, 299-300.

141) 임종현, 성장 20년사, 107.

142) 구파발 교회 40년사, 129.

143) Ibid., 54.

구성은 개인의 신앙에 대한 9문항의 질문, 가정에서 신앙경건훈련에 대한 12문항의 질문, 교회에서 신앙경건훈련에 10문항의 질문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조사한 이유는 부모 자신의 개인 신앙을 알아보고,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경건훈련을 위하여 노력을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 교회는 부모들에게 신앙경건훈련을 시키는 자료를 어느 정도 제공해 주는지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조사 대상자는 가정을 가진 구파발 교회 교인으로 30대-70대를 중심으로 현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봉사자를 주요 대상으로 삼았으며, 설문조사의 정확성을 높이려고 향촌직분자를 대표로 당회원들, 4개 교구를 대표로 구역장들, 교회학교 대표로 소년부 교사들, 성가대 대표로 호산나 성가대원들을 선정하여 표본 조사를 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사람은 82명(30대-7명(9퍼센트), 40대-19명(23퍼센트), 50대-29명(35퍼센트), 60대-24명(29퍼센트), 70대-3명(4퍼센트)이었다. 다음은 회수된 설문지의 응답 결과다. 결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항목마다 도표를 사용하여 정리하였다. 부모 자신의 개인 신앙생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시키는 신앙경건훈련, 교회에서 목회자가 부모에게 시키는 신앙경건훈련 등 구체적으로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부록에 있는 설문지는 실제로 구파발교회 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던 것이다).

2. 조사결과 분석

본 연구자는 먼저, 본 설문 응답자의 개인의 신앙을 알아보기 위하여 9문항의 기본적인 질문, 가정에서 신앙경건훈련을 알아보기 위하여 12문항, 교회에서 신앙경건훈련을 알아보기 위하여 10문항을 질문하였다. 그 응답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같은 칸에 윗줄의 숫자는 응답자의 수, 점선 아랫줄의 숫자는 퍼센트다).

가. 개인의 신앙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의 나이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나이

분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합계
응답자	명	7	19	29	24	3	47
	퍼센트	9	23	35	29	4	100

응답자 82명중 30대-7명(9퍼센트), 40대-19명(23퍼센트), 50대-29명(35퍼센트), 60대-24명(29퍼센트), 70대-3명(4퍼센트)이었다. 이상에서 보는 이와 같이 교회의 봉사자는 50대가 35퍼센트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60대로 29퍼센트, 40대가 23퍼센트로 나타나 오래된 교회임을 입증하고 하고 있다. 30대가 9퍼센트로 나타나 젊은 층의 봉사자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설문응답자의 친가와 외가의 신앙의 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친가

분류		1대	2대	3대	4대	기타	합계
응답자	명	36	26	13	2		77
	퍼센트	46	34	17	3		100

<표 3> 외가

분류		1대	2대	3대	4대	기타	합계
응답자	명	18	17	5	6	1	47
	퍼센트	38	36	11	14	2	100

친가(응답자 77명)와 외가(응답자 47명) 신앙의 대를 살펴보면 1대째는 친가 46퍼센트/외가 38퍼센트, 2대째는 친가34퍼센트/외가 36퍼센트, 3대째는 친가 17퍼센트/외

가 11퍼센트), 4대째는 친가 3퍼센트/외가 14퍼센트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에 4대째를 살펴보면 친가 쪽은 3퍼센트로 이지만 외가 쪽으로는 14퍼센트로 나타나 선교사들에 의하여 복음이 전파될 때에 신앙경건훈련은 여성들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설문에 응답한 구파발 교인들은 구파발 교인됨의 금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 4> 구파발 교인으로서의 금지는?

분류		매우 만족함	만족함	보통	그저 그렇다	기타	합계
응답자	명	34	31	10	3		78
	퍼센트	44	39	13	4		100

응답자 78명중에 구파발 교인으로서 매우 만족하는 사람이 44퍼센트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만족함이 39퍼센트, 보통이 13퍼센트, 그저 그렇다가 4퍼센트, 순이었다. 구파발 교인으로서 금지를 가지고 83퍼센트(매우 만족함 44퍼센트, 만족함 39퍼센트)가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구파발 교인들이 처음으로 구파발 교회에 출석한 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구파발 교회 출석한 시기

분류		유치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청년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합계
응답자	명	4	3		4		8	34	16	6	1	2	82
	퍼센트	5	4		5		10	43	21	8	1	3	100

응답자 82명 중에 구파발 교회에 처음 출석한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연령층은 30대로 43퍼센트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40대-16명 21퍼센트, 청년부-8명 10퍼센트, 50대-6명 8퍼센트, 유치원, 고등학교-4명 5퍼센트, 초등학교-3명 4퍼센트, 기타-2명 3퍼센트, 순이다. 구파발 교회학교(유치부 5퍼센트, 초등부 4퍼센트, 고등부 5퍼센트, 청년부 10퍼센트)를 졸업하고 본 교회에 정착한 인원은 24퍼센트다. 위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파발 교인들의 64퍼센트는 30-40대부터, 교인의 12퍼센트는 50대 이후부터 처음으로 구파발 교회에 출석하였다. 문제점은 교육에 많은 지원을 했지만 교회학교(유치부-고등부)를 졸업한 사람(14퍼센트)만이 교회에서 정착했다는 사실이다. 교회학교에서 성장한 자녀들의 86퍼센트가 구파발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30-40대의 많은 사람 64퍼센트가 새로 교회에 유입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설문에 응답한 구파발교인들이 처음으로 거듭남을 체험한 때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거듭남의 체험

분류		유치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청년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합계
응답자	명	4	6	7	2	2	6	20	18	9			75
	퍼센트	5	8	9	3	3	8	27	24	12			100

응답자 75명 중에 거듭남을 가장 많이 체험한 연령은 30대로 27퍼센트이었다. 그 다음은 40대 24퍼센트, 50대 12퍼센트, 중등부 9퍼센트, 초등부 8퍼센트, 청년부 8퍼센트, 유치부 5퍼센트, 고등 부 2퍼센트, 대학부 2퍼센트, 순이었다. 응답자 중에 거듭남을 체험한 30대-40대가 51퍼센트로 반 이상이었다. 응답자 중 교회학교(유치->청년) 때에 거듭남을 체험하는 사람은 36퍼센트며, 60-70대는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구파발교인들이 하루 동안 성경을 읽는 시간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하루에 성경 읽는 시간

분류		10 분	10-20 분	20-30 분	30-60 분	60-90 분	90-120 분	2시간 이상	기타	합계
응 답 자	명	10	13	16	17	5		4	10	75
	퍼 센 트	13	18	21	23	7		5	13	100

응답자 75명 중 하루에 성경을 30-60분간 읽는 사람이 23퍼센트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20-30분간이 21퍼센트, 10-20분이 18퍼센트, 10분이하가 13퍼센트, 60-90분이 7퍼센트, 2시간 이상이 5퍼센트로 순이었다. 구파발 교인 중에 30분 이하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52퍼센트며, 2시간 이상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5퍼센트이었다.

설문에 응답한 구파발 교인들이 하루 동안 기도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표 8> 하루의 기도시간

분류		10분 이하	10-30 분	30-60 분	60-90 분	90-120 분	기타	합계
응 답 자	명	13	42	16	2	3	4	80
	퍼 센 트	16	53	19	3	4	5	100

응답자 80명 중 10-30분기도하는 사람은 53퍼센트로 가장 많다. 그 다음은 30-60분으로 19퍼센트, 10분이하가 16퍼센트, 한 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은 7퍼센트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구파발교인들은 신앙경건훈련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다음 <표 9>와 같다.

응답자 78명 중에 신앙경건훈련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말씀이 35퍼센트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기도 26퍼센트, 대예배 21퍼센트, 찬송 7퍼센트, 가정예배 6퍼센트, 간증 4퍼센트 순이었다. 실제적인 신앙경건훈련의 시간을 보면 교회에서 드리는 대예배는 주일 하루 한 시간이지만, 가정예배는 7일간 계속 할 수 있

다. 그러므로 가정예배가 신앙경건훈련에 아주 중요하지만 실제로 교인들은 가정예배보다 대예배를 더 중요시 여기고 있다.

<표 9> 신앙경건훈련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분류		기도	말씀	간증	찬송	가정예배	대예배	합계
응답자	명	20	27	4	6	5	16	78
	퍼센트	26	35	5	7	6	21	100

설문에 응답한 구파발교인들은 신앙경건훈련을 책임질 사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표 10> 신앙경건훈련 책임질 사람

분류		가정과 부모	교회와 교역자	개인이 알아서	기타	합계
응답자	명	41	29	5	1	76
	퍼센트	54	38	7	1	100

응답자 76명 중 신앙경건훈련을 책임질 사람으로 가정과 부모에 응답한 사람이 54퍼센트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교회와 교역자 38퍼센트, 개인이 알아서 7퍼센트, 기타 1퍼센트 순이었다. 따라서 신앙의 경건훈련은 가정에서 부모가 중점적으로 하고 교회와 교역자가 신앙경건훈련의 내용을 제공하면 좋은 결과 92퍼센트를 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가정-신앙경건훈련

설문에 응답한 구파발 교인들은 유대인들이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고 있었다.

<표 11> 직접 성경을 가르침에 대하여

분류		정확히 알고 있음	대충 알고 있음	모르겠음	기타	합계
응답자	명	40	40	1		81
	퍼센트	49	49	2		100

응답자 81명 중에 정확히 알고 있음 49퍼센트, 대충 알고 있음 49퍼센트로 나타났다. 구파발 교인들은 유대인들이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경건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에 대하여 98퍼센트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구파발교인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직접 가르친다고 응답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표 12> 성경을 직접 가르치는가?

분류		예	아니오	합계
응답자	명	19	59	78
	퍼센트	24	76	100

응답자 78명 중 성경을 자녀들에게 직접 가르치는 사람은 19명 24퍼센트,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59명 76퍼센트로 나타났다. 구파발 교인들은 유대인들이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직접 가르친다는 것을 98퍼센트가 알고 있어도 자녀들에게 직접 말씀으로 신앙경건훈련을 시키는 가정은 24퍼센트에 불과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구파발교인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하여 교재개발이 시급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 80명 중에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교재개발이 시급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83퍼센트, 아니오라고 응답한 17퍼센트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려고 해도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부모가 직접 가르칠 수 있는 교재개발을 83퍼센트가 시급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13> 성경을 직접 가르치기 위해 교재개발이 시급한가?

분류		예	아니오	합계
응답자	명	66	14	80
	퍼센트	83	17	100

설문에 응답한 구파발교인들 중에 가정에서 자녀에게 신앙경건훈련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다음과 같다.

<표 14> 신앙경건훈련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분류		기도	가정예배	교회출석	성경읽기	봉사	큐티	합계
응답자	명	10	10	48	10	1	3	82명
	퍼센트	12	12	59	12	1	4	100퍼센트

응답자 82명 중에 신앙경건훈련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출석 59퍼센트로 보았다. 그 다음으로 기도 12퍼센트, 가정예배 12퍼센트, 성경읽기 12퍼센트, 큐티 4퍼센트, 봉사 1퍼센트 순이었다. 구파발 교인들 59퍼센트는 교회 출석하게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신앙경건훈련으로 보고 있다.

설문에 응답한 구파발 교인들이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5> 가정예배 횟수

분류		매일	격일	주 1회	월 2-3회	연 3-4회	합계
응답자	명	10	4	12	12	21	59
	퍼센트	17	7	20	20	36	100

응답자 59명 중에 가정예배는 일 년에 3-4번 드리는 가정이 36퍼센트로 가장 높

았다. 그 다음으로 가정예배를 일주에 1회가 20퍼센트, 한 달에 2-3회가 20퍼센트, 매일이 17퍼센트, 격일이 7퍼센트로 나타났다. 가정예배를 1주 1회 이상 드리는 가정은 44퍼센트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구파발 교인들은 가정에서 성탄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같은 절기를 특별히 지키는 가정은 다음과 같다.

<표 16> 가정에서 특별히 절기를 지키는가?

분류		예	아니오	합계
응답자	명	40	42	82
	퍼센트	49	51	100

응답자 82명 중에 가정에서 교회 절기를 특별히 지키는 가정은 49퍼센트이며, 지키지 않는 가정이 51퍼센트로 2퍼센트가 더 많았다. 구파발 교인들의 절반 이상이 교회절기는 교회에서 지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집에서는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구파발교인들이 가정에서 하루 동안 자녀와 대화를 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표 17> 자녀와의 대화시간

분류		10분	20분	30분	40분	60분	1시간이상	합계
응답자	명	26	13	18	5	1	12	75명
	퍼센트	35	17	24	7	1	16	100퍼센트

응답자 75명 중에 자녀와 대화시간이 10분인 사람은 35퍼센트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30분 24퍼센트, 20분 17퍼센트, 한 시간 이상 16퍼센트, 40분 7퍼센트, 한 시간은 1퍼센트로 순이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30분 이상 대화를 하는 가정은 24퍼센트, 30분 이하로 대화를 하는 가정은 76퍼센트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구파발교인들은 가정에서 자녀들과 신앙적인 대화를 몇 퍼센트나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표 18> 가정에서 자녀들과 신앙적인 대화를 얼마나 하는가?

분류		10퍼센트	20퍼센트	40퍼센트	60퍼센트	80퍼센트	100퍼센트	기타	합계
응답자	명	18	18	9	11	5	2	9	71
	퍼센트	25	25	13	15	6	3	13	100

응답자 71명 중에 자녀들과 신앙적인 대화는 10퍼센트와 20퍼센트가 25퍼센트씩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60퍼센트가 15퍼센트, 40퍼센트와 기타가 13퍼센트씩, 80퍼센트가 6퍼센트, 100퍼센트가 3퍼센트로 순이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나누는 대화중에 20퍼센트의 신앙의 대화를 나누는 부모가 50퍼센트나 되었다.

설문에 응답한 구파발 교인들은 가정에서 온 가족이 매일 성경(5쪽)을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가정은 다음과 같다.

<표 19> 온 가족이 매일 성경(5쪽)을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는가?

분류		예	아니오	합계
응답자	명	29	48	77
	퍼센트	38	62	100

응답자 77명 중 온 가족이 매일 성경 5쪽을 읽고 묵상하는 가정이 38퍼센트, 그렇지 않는 가정이 62퍼센트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구파발 교인들 중에 가정에서 밥상공동체의 말씀을 암송하고 식사기도를 하는 사람은 다음 <표 20>과 같다.

응답자 80명 중에 밥상공동체 말씀을 암송하고 식사를 하는 가정이 55퍼센트, 암송하지 않고 식사를 하는 가정이 45퍼센트로 나타났다.

<표 20> 가정에서 밥상공동체의 말씀을 암송하고 식사기도를 하는가?

분류		예	아니오	합계
응답자	명	44	36	80
	퍼센트	55	45	100

설문에 응답한 구파발 교인들 중에 신앙의 대물림을 위하여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축복기도를 해주는 정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1> 자녀를 위한 축복기도 횟수

분류		매일	주 1-2번	월 2번	연 1-2번	합계
응답자	명	45	19	8	8	80
	퍼센트	56	24	10	10	100

응답자 80명 중에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축복 기도를 매일하는 사람은 56퍼센트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 순으로 일주일에 1-2번이 24퍼센트, 한 달에 1-2번이 20퍼센트, 일 년에 1-2번이 10퍼센트이었다. 구파발 교인들은 일주일에 1-2번 이상으로 자녀들에게 축복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80퍼센트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구파발 교인이 신앙의 대물림을 위하여 선택한 모델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2> 신앙의 대물림 모델

분류		야곱 형	요게벳 형	한나 형	다윗 형	생각한 적 없다	합계
응답자	명	24	5	14	21	9	73
	퍼센트	33	7	19	29	12	100

응답자 73명 중에 야곱 형이 33퍼센트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다윗 형

29퍼센트, 한나 형 19퍼센트, 요게벳 형 7퍼센트 순이었다. 신앙의 대물림의 모델을 생각한 적이 없는 사람이 12퍼센트나 되었다. 구파발 교인들의 부모들은 88퍼센트가 신앙의 대물림을 위한 모델형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구파발 교인들은 신앙의 대물림이 여성형(요게벳, 한나) 26퍼센트, 남성형(야곱, 다윗) 62퍼센트로 여성보다는 남성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교회-신앙경건훈련

설문에 응답한 구파발 교인들이 자녀를 구파발 교회에 보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표 23> 자녀를 구파발 교회에 보내는 이유

분류		한 가정의 한 교회를 섬겨야 되기에	부모님의 권유로	자녀들이 가고 싶어 하기에	신앙교육을 잘 받을 수 있기에	기타	합계
응답자	명	64	1	1	7	5	78
	퍼센트	83	1	1	9	6	100

응답자 78명 중에 한가정이 한 교회를 섬겨야 되기에 83퍼센트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신앙교육을 잘 받을 수 있기에 9퍼센트, 부모님의 권유로 1퍼센트, 자녀들이 가고 싶어 하기에 1퍼센트, 기타가 6퍼센트로 순이었다. 구파발 교인들은 83퍼센트로 구파발 교회를 중심으로 가족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앙교육을 잘 받을 수 있기에 응답한 사람이 9퍼센트로 나타나 신앙의 질적인 신앙교육의 수준을 높여야 하며, 자녀들이 가고 싶어 하기에 1퍼센트로 나타나 자녀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신앙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설문에 응답한 구파발교인들이 이사를 가서 동네교회로 보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표 24> 동네 교회에 보내는 이유

분류		공부 때문에	거리가 멀어서	자녀가 원해서	시간이 맞지 않아서	친구가 없어서	성장하면 돌아올 수 있기에	합계
응답자	명	2	8	12				22
	퍼센트	9	36	55				100

응답자 22명 중에 자녀가 원해서 동네교회로 가는 보내는 가정이 55퍼센트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은 거리가 멀어서 36퍼센트, 공부 때문에 9퍼센트로 순이었다. 구파발 교인들은 이사를 간 후 교회를 결정 할 때에 자녀들의 의견을 55퍼센트가 듣고 동네교회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파발 교회로부터 멀리 이사를 가면(82명 중 22명 응답) 27퍼센트의 자녀들이 본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구파발교인들은 주일설교를 듣고 신앙경건훈련에 도움을 받는 정도는 다음과 같다.

<표 25> 주일설교를 듣고 신앙경건훈련에 도움을 받는 정도

분류		대단히	보통	가끔	전혀	기타	합계
응답자	명	45	26	8	3		82
	퍼센트	55	32	9	4		100

응답자 82명 중에 설교말씀을 듣고 신앙경건훈련에 대단히 도움을 받는 사람이 55퍼센트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보통 32퍼센트, 가끔 9퍼센트, 전혀 4퍼센트로 순이었다. 주일설교를 말씀을 듣고 87퍼센트가 신앙경건훈련에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4퍼센트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구파발교인들은 교회에서 부모들에게 신앙경건훈련을 강조하는 정도는 다음과 같다.

<표 26> 교회에서 부모들에게 신앙경건훈련 강조하는 정도

분류		대단히	보통	가끔	전혀	기타	합계
응답자	명	38	35	4			77
	퍼센트	50	45	5			100

응답자 77명 중에 교회에서 부모들에게 신앙경건훈련을 대단히 강조한다고 생각한 한 사람이 50퍼센트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보통으로 45퍼센트, 가끔이 5퍼센트로 나타났다. 구파발 교인들은 교회가 부모들에게 신앙경건훈련을 95퍼센트 강조한다고 보고 있다.

설문에 응답한 구파발 교인들은 교회에서 자녀들을 위한 신앙경건훈련의 교육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공한다고 보았다.

<표 27> 구파발교회에서 신앙경건훈련을 위한 교육자료 제공하고 있는가?

분류		대단히	보통	가끔	전혀	기타	합계
응답자	명	11	39	13	13	1	76
	퍼센트	14	51	17	17	1	100

응답자 76명 중에 교회가 신앙경건훈련을 위한 교육자료 제공에 보통이 51퍼센트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가끔 17퍼센트, 전혀 17퍼센트, 대단히 14퍼센트, 기타 1퍼센트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17퍼센트가 교회에서 신앙경건훈련을 위한 교육 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구파발 교인들은 앞으로 교회에서 자녀를 교육시킬 신앙경건훈련 교제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정도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 79명 중에 예로 대답한 사람이 92퍼센트, 아니오가 8퍼센트 이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경건훈련을 시키는 교제 개발이 시급함을 말해주는 수치이다.

<표 28> 교회에서 자녀를 교육시킬 신앙경견훈련 교제를 제공받기를 원하는가?

분류		예	아니오	합계
응답자	명	73	6	79
	퍼센트	92	8	100

설문에 응답한 구파발교인들은 교회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한 부모 교육에 참석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표 28> 교회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한 부모교육 참석여부

분류		예	아니오	합계
응답자	명	53	19	72
	퍼센트	74	26	100

응답자 72명 중에 성경을 가르치기 위한 부모교육을 하면 참석한다고 74퍼센트가 예로 대답했다. 그러나 아니오가 26퍼센트로 나타났다. 아니오가 26퍼센트로 높게 나타난 것은 응답자의 상당수가 이미 자녀들이 성장을 하여 부모교육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설문에 응답한 구파발교인들이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의 참여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9>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 참여 정도

분류		매우 노력	노력하는 편	가끔	전혀	합계
응답자	명	39	38	3		80명
	퍼센트	49	48	3		100퍼센트

응답자 80명 중에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에 참여에 매우노력이 49퍼센트, 노력하는 편이 48퍼센트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가끔이 3퍼센트,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다. 구파발 교인들은 97퍼센트가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에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구파발교인들이 현재 자녀를 바라보는 신앙 대물림의 만족도는 다음과 같다.

<표 30> 신앙 대물림의 만족도

분류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보통 이하	실망	합계
응답자	명	12	38	20	9	3	82
	퍼센트	15	46	24	11	4	100

응답자 82명 중에 자녀를 바라보는 신앙의 대물림에 만족하는 사람은 46퍼센트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보통 24퍼센트, 매우 만족 15퍼센트, 보통 이하 11퍼센트, 실망 4퍼센트로 순이었다. 신앙의 대물림에 매우 만족, 만족하는 사람이 61퍼센트로 높게 나타났다. 또, 신앙의 대물림이 보통 이상인 사람이 85퍼센트며, 신앙의 대물림에 보통 이하가 15퍼센트로 나타났다. 신앙의 대물림에 실망한 사람이 4퍼센트이었다.

설문에 응답한 구파발 교인들이 교회에 가장 즐거운 마음으로 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표 31> 교회 오는 가장 즐거운 이유

분류		예배	만남	봉사	성경공부	직분	합계
응답자	명	69	3	4	2	2	80
	퍼센트	85	4	5	3	3	100

응답자 80명 중에 교회 오는 가장 즐거운 이유로는 예배(말씀선포)가 85퍼센트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봉사(섬김) 5퍼센트, 만남(교제) 4퍼센트, 성경공부(가르침) 3퍼센트, 직분 때문 3퍼센트로 나타났다. 구파발 교인들은 교회의 여러 기능인 섬김의 공동체, 가르침의 공동체, 선포의 공동체, 교제의 공동체 중에 예배(말씀선포)공동체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요약 및 평가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대표하여 46년의 역사를 가진 구파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경건훈련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구파발 교인들의 개인 신앙생활을 보면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대한 긍지(96퍼센트)가 매우 높은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교육한 교회학교의 학생들이 교회 정착 정도가 10퍼센트 대라는 것에 충격을 주고 있다. 교육의 내용을 보아도 교회학교에서 거듭남을 체험한 비율이 36퍼센트로 저조하게 나타나 체험중심의 신앙교육이 추가 되어야 한다.

교인들의 가정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부모중심의 신앙교육을 새롭게 형성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인들은 유대인의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경건훈련을 시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가정에서 실천하는 가정이 24퍼센트이었으며 59퍼센트의 교인들은 자녀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신앙경건훈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인들은 교회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교재개발을 92퍼센트 시급히 원하고 있으며, 교재를 통한 부모교육을 할 경우 74퍼센트가 참석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17퍼센트, 매일성경을 읽는 사람이 38퍼센트, 식사할 때에 성경구절을 암송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55퍼센트, 자녀를 위하여 매일 축복 기도하는 사람이 56퍼센트, 가정에서 교회 절기를 특별하게 지키는 사람이 49퍼센트, 교회에 나오는 가장 즐거운 이유가 예배 때문이라는 사람이 85퍼센트이었다.

가정에서 유대인과 한국교인의 신앙경건훈련을 비교해보면 유대인들은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경건훈련을 책임지고 가르치는 반면에 한국교인들은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경건훈련을 책임지고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열악한 것으로 드러나 신앙교육이 가정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한국교인들의 가정에서 신앙경건훈련을 시키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

제 5 장

교회에서 쉼마 말씀 교육 제언

한국교회는 기독교 역사 120여 년 동안 국내외에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기독교교육의 자료와 교육방법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해 왔다. 그러나 근대에 와서는 교인의 가정에서조차 신앙의 대물림이 약해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유대인의 쉼마 교육을 연구하는 현용수는 그 원인을 3가지로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종교성 토양이 점점 황폐화 되어가기 때문이다. 둘째,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제자 삼는 유대인의 쉼마 교육이 아니고 부모들이 거의 교회교육에만 의지했기 때문이다. 셋째, 대부분의 수많은 현대 기독교교육의 자료와 교육방법인 프로그램들이 하나님의 기쁘게 해드리는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 말씀과 기도중심이 아니라, 어린이를 기쁘게 해주는 인본주의적 프로그램 위주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민족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첫째, 종교성 토양을 옥토로 만드는 인성교육이 필요하고, 둘째, 부모가 직접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제자로 삼아야 하고, 셋째, 초대교회와 같은 순전한 복음의 능력과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교육의 자료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 유대인의 선민교육인 쉼마 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¹⁴⁴⁾

구파발 교회에서는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는 유대인의 선민교육인 쉼마 교육 방법을 교인들에게 교육하여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신앙을 전수하게 하려고 한다. 먼저 구파발교회 교육목회로 가르칠 쉼마 교육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144) 현용수, *성공집단 유대인의 인성교육* 노하우, 1권, 296-297.

제 1 절 지성교육 쉼마 말씀 신앙경건훈련

교회에서는 쉼마 말씀 부모교육을 철저히 훈련시켜야 한다. 훈련받은 부모는 가정에 돌아가서 어린 자녀들에게 쉼마 말씀으로 신앙경건훈련을 철저히 시켜야 한다. 또한 교회는 쉼마 말씀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주어야 한다. 먼저 쉼마 말씀 교육을 실시하려면 신년예배부터 교인들의 마음을 새롭게 결단을 시켜야 한다.

1. 송구영신 및 신년예배

구파발 교회는 매해 1월 1일이 되면 송구영신 및 신년예배를 드린다. 신년을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려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신년을 맞을 준비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유대인들의 신년(로쉬 하샤나 רושׁ הַשָּׁנָה)은 두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다. 첫째로 이날은 “심판의 날(욥 하딘, יּוֹם הַדִּין)”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날이다. 지난해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은 없는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칠 것은 없는지 스스로 살펴보면서 먼저는 하나님과, 다음으로는 사람과 화해하는 날이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날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날을 “욥 하라트 올람”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세상의 생일”이라는 뜻이다. 세상의 시작을 기념하는 이날, 유대인들은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 다시 자기들의 삶 속에 창조되기를 기원 한다.¹⁴⁵⁾

유대인들이 신년을 맞으면서 회개를 준비하는 것처럼 구파발 교인들도 설날 그믐날 새벽기도회에 모두 참석하여 회개기도를 드리며 아침금식을 하고 자신의 과거를 반성한다. 교인들은 설날 그믐날 하루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일 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 된 것이 없는지 자신을 살피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고칠 것이 없는지 스스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화해 할 것을 찾은 후에 오후에는 목욕을 하고 금식을 마치는 식사를 한다.

145) 최명덕, “설교를 위한 유대관습 연구,” 두란노 목회자료 큰 백과, 제8권 (서울: 두란노 출판사, 1996), 201.

구파발 교회는 신년예배를 드리기 전 한해를 보내는 의미로 송구회개의 밤 행사를 한다. 송구회개의 밤은 설달 그믐날 밤10시-12시까지이다. 이때에 교인들은 아침부터 회개할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 교인들 간에 회개한다. 밤 10시-11시까지는 찬양과 부르짖는 회개의 기도시간이고 밤 11시-11시 45분까지는 성도들 간에 돌아다니며 서로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해주는 화해의 시간이다.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서로 화해할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교인들이 하나씩 떡(백설기)을 들고 다닐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준비한다. 교인들 간에 서로 잘못했던 일들을 회개하고 용서한 후 상대방이 들고 있는 떡을 서로 떼어 먹음으로 용서해준 증거가 된다. 밤 11시 45분이 되면 다시 한자리에 모여서 통성으로 회개 기도를 한다. 신년예배 사회자가 자정이 가까워지면서 시편 47편을 일곱 번 낭송하면 모든 교인은 기도를 멈추게 되고 신년 자정을 알리는 징소리를 듣고 새로운 마음으로 신년예배를 맞이한다. 구파발교회 신년예배는 1월 1일 자정에 시작된다. 구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누그러뜨리는 힘이 있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믿고 있다. 그래서 신년(로쉬 하샤나) 전 달인 엘룰월에 많은 유대인들이 구제에 힘쓰며 신년을 준비한다.¹⁴⁶⁾ 구파발 교회도 신년예배에 드린 감사헌금은 유대인들처럼 이웃을 위한 구제로 쓰여 지게 된다. 신년예배 중에 드리는 예물은 감사 헌금, 한해의 소원을 적은 카드, 전도할 태신자의 명단을 함께 봉헌한다. 또, 예배 중에 교인들은 자신들의 소원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며, 성도의 교제시간에는 목회자와 당회원이 교인들 앞으로 나와서 교인들을 바라보며 서로 신년세배를 한다. 마지막순서로 원로목사가 등단하여 온 교인을 위한 축복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친다. 특별순서로는 신년예배 후 부모들이 자녀들의 머리에 한명씩 손을 얹고 마음껏 축복기도를 해준다.

2. 셰마 말씀의 날

교회에서 종교개혁 주일이 되면 셰마 말씀을 각인시키기 위하여 축제의 장을 의도적으로 만든다. 먼저 교회는 교인들에게 예배 중에 구약의 두루마리 성경을 보여주며 셰마 말씀의 중요성을 교육하며 하루 종일 두루마리 성경을 전시한다. 이때에 히

146) 최명덕, “설교를 위한 유대관습 연구,” 203-204.

브리어성경, 헬라이어성경, 영어성경, 한글성경 등을 전시하며 교인들 중에 성경을 한번 쓴 것들을 함께 전시하여 모든 교인에게 보여준다. 또, 성년식을 통과한 자녀들은 그 동안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셰마 말씀을 교육을 받을 때에 읽은 성경(7독), 성경전체를 큐티한 노트, 친구약성경을 1번 쓴 노트, 말씀을 암송할 때 사용한 것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한 비전 등을 전시한다. 또, 교인들이 유대인들의 셰마 말씀 교육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대략적인 개요를 정리하고 전시하여 교인들에게 동기를 부여한다.

구파발 교회는 종교개혁주일을 셰마 말씀의 날로 축제로 지킨다. 교회에서 1년 동안 성경을 일독한 사람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어주고 포도주스를 마음껏 먹도록 제공한다. 또 전교인들에게 가족대항 셰마 말씀 암송대회를 실시하여 상품을 주고 우승자에 한하여 부모들이 최연소 자녀를 무등 태우고 교회를 한 바퀴 돌게 하며 이때에 참석한 교인들은 우승한 가정에게 환호와 박수를 보내게 한다.

3. 셰마 청소년 비전 학교

청소년 셰마 비전 학교는 성년식을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학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인정을 받은 청소년은 미래의 세계를 짊어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비전을 품고 살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청소년들은 가정에서는 희망이요, 교회에는 섬기는 일꾼이요, 장차 청소년들은 남북통일을 위한 지도자요, 동북아시아의 이끌어가는 지도자요, 동북아시아의 세계선교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이들에 비전을 심어주는 일을 해야 한다. 교회에서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통하여 청소년 셰마 비전 학교를 하고 있다.

교육내용으로 좌우명 갖기, 인생 사명선언문 선포하기, 미래 이력서 쓰기, 20년 뒤 자신의 모습을 하루 한 번씩 품고 자성예언하기, 큰 바위 인물 품기, 좋은 습관 만들기, 건강한 자아상 만들기, 삶을 변화시키는 책 읽기,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을 말로 시인하기, 경건과 절제의 삶,¹⁴⁷⁾ 평생 비전 세우기, 고난의 역사현장 체험하기, 예절학교 입소하기, 각 분야 전문가와 대담의 시간 갖기, 1년간 영어권으로 교환학생 다녀오기, 구파발 교회 비전 배우기, 단기선교 체험하기 등이 있다.

147) 최광렬, *비전스타트* (서울: 도서출판 프란시스, 2003), 76-77

4. 웨마 청년 제자 사역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간 공생애 기간에 예수님을 닮는 제자로 훈련시키셨다. 청년들은 앞으로 가정을 가질 사람들이며 이들은 모두 자녀를 낳아 기르게 될 것이다. 청년들이 웨마 제자사역을 하는 특별한 목적은 청년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에 자신의 자녀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교회는 청년들에게 웨마 말씀을 가르치는 제자사역을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야 한다. 그 교육 방법으로 청년들 중에 팀장을 뽑고, 팀장을 목회자가 철저히 웨마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나눈 후에 팀장들은 팀원들에게 가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다시 가르쳐야 한다. 청년들이 웨마 말씀을 직접 가르쳐 제자를 삼는 훈련이 끝나고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에게 웨마 말씀을 직접 가르치게 됨으로 신앙의 대물림을 대대로 이루게 된다.

5. 웨마 가정 부부 성경공부 반

웨마 가정 부부 성경공부 반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가르쳐 신앙의 대물림을 이루기 위한 특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성경공부이다. 참가 자격은 부모와 자녀, 조손(祖孫)이 동의하여 자녀의 나이가 13세 때에 성년식을 하기로 준비된 가정을 중심으로 반이 구성된다. 지금까지는 기독교 교육이 회심과 양육이론에만 치우쳤다면 웨마 가정 부부 성경공부 반은 지성과 인성교육을 함께 실시하는 말씀공부 반이다.

웨마 가정이 되려면 가정을 성전으로 만들고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직접 가르쳐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한다. 웨마 가정은 가정의 토양을 종교적으로 옥토의 것으로 바꾸고, 성경공부를 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웨마 말씀을 철저히 반복교육 시키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지성교육과 인성교육을 함께 실시하여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 또, 교회에서 1년에 2번 웨마 가정수련회를 열어 부모들이 웨마 말씀으로 자녀교육을 한 것을 간증하게 하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웨마 말씀을 암송하며 같은 비전가진 가정들과 팀을 만들어 함께 자녀의 장래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도록

권장한다.

6. 셰마 노인대학

구파발 교회는 몇 년 전부터 노인대학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120-150명의 노인들이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3시까지 노인대학에 출석하고 있다. 그동안 노인대학에서는 노인들에게 성경공부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해왔다. 2005년부터는 노인대학의 학생들에게 셰마 말씀을 가르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새로운 것을 개발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천지창조, 노아 홍수 등 성경에 나오는 큰 사건들을 컴퓨터로 영상화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손자 손녀에게 수시로 들려주어 신앙을 직접양육하게 하려고 한다.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자손을 위한 축복기도의 놀라운 축복을 교육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노인대학 모임시간에 “자녀를 위한 축복의 시간”을 주어 기도하게 하려고 한다. 노인대학 발표회 시간에 자녀들을 초청하여 관람하게 하고, 이때에 자손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 대한 축복을 교육하여 자손들이 부모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여 가정에서 어른들이 대접받는 문화를 만들려 한다.

제 2 절 인성교육 셰마 말씀 신앙경건훈련

현재까지 한국교회는 회심과 양육이론인 지성교육에 치중을 하여왔다. 그 결과 한국교인들은 인성교육의 부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자, 인품이 좋은 사람”을 많이 양육하지 못하였다. 지금부터라도 셰마 말씀 교육을 통하여 인간의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인성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구파발 교회는 조선시대의 양반교육처럼 셰마 말씀을 가르치는 지성교육과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인품이 좋은 신앙인을 만들어 내려고한다. 앞으로 구파발 교회는 교인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셰마 세례식 잔치, 성년식, 고난의 역사학교, 절기학교, 예절학교, 셰마 공원을 개설하고자 한다. 먼저 셰마 세례식잔치에 대하여 제안하려고 한다.

1. 웨마 세례식(영적 결혼식) 큰 잔치

구파발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철저한 웨마 세례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세례식은 새 가족이 예수님과 영적인 결혼식을 하는 사건으로 일생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세례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이유는 새 가족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평생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기 때문이다. 또, 세례식은 새 가족이 십자가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했음을 많은 교인 앞에서 공적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가장 감격적인 영적결혼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다.

교회에 처음으로 나온 새 가족이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게 만들려면 웨마 세례교육을 철저히 교육하여 세례교인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야 한다. 새 가족이 등록하여 세례 받기까지는 웨마 새 가족 성경공부(4주), 웨마 일대일 제자양육(16주), 웨마 구파발 비전 학교(5주), 웨마 사계절학교(증보기도학교(8주), 부모학교(8주), 큐티학교(8주), 사영리학교(8주))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세례식(영적결혼식)을 축제로 만들기 위하여 세례준비 위원회를 둔다. 세례준비 위원회는 구역그룹전도부, 새가족부, 기도후원부를 둔다. 구역그룹전도부가 하는 일은 구역중심 그룹전도 때에 예수 믿기로 작정한 태신자를 구역에서 예비교인으로 양육하다가 태신자가 교회에 등록하기로 결심하면 새가족부로 연결시키는 일을 한다. 새가족부가 하는 일은 양육사를 양성하고, 양육사를 재교육하고, 세례 받을 자를 25주 동안 책임지고 양육하는 일을 하며, 예비세례자의 발굽과 출석을 관리한다. 기도후원부가 하는 일은 새 가족 1명이 세례를 받기까지 증보 기도자 5명 이상이 한 팀이 되어 세례 받는 날까지 하루 세 차례 이상 기도로 후원하는 일을 한다. 교회에서는 세례 받는 날을 새 가족이 주님과 결혼하는 영적인 결혼식이므로 큰 잔치를 베풀어준다. 잔치 날 세례 받은 새 가족과 그동안 세례받기 까지 수고한 모든 사람들과 만나 환담을 나누며 간증을 듣고 꽃다발로 축하해주며 먹는 음식을 구역별로 준비하여 공동잔치를 베풀어 준다.

2. 셰마 성년식(13세) 큰 잔치

유대인 부모는 자녀를 어려서부터 공부시키기 위하여 연령에 따른 조직적인 학과 과정을 만든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5세에 성경연구, 10세에 미쉬나 연구, 13세에 계명의 완성에 관한 연구, 15세에 탈무드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끊임없이 학문할 것을 권고하며 연구의 중단은 성장의 멈춤이며, 죽음이라고 까지 말한다.¹⁴⁸⁾ 이처럼 구파발 교인들로 13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배워 신앙의 독립을 상징하는 성년식을 해야 한다. 먼저 성년식에 암송할 말씀을 제안하려고 한다.

가. 암송할 말씀들

유대인의 율법교육은 암기 교육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엄청난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외우면 안 되기 때문에 반복하여 정확히 외운다.¹⁴⁹⁾ 구파발 교인의 자녀가 성년식을 하려면 아래와 같은 말씀을 암송해야 한다.

구약의 말씀으로 613개의 계명을 암송해야 한다. 유대인의 613개의 율법은 “하라”는 명령인 248개의 계명과 “하지 말라”고 금한 365개의 계명이다. 또, 신약의 말씀으로 산상수훈의 말씀(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29절까지)을 암송해야 한다. 또, 신구약성경 가운데 구약에 말씀 113구절과 신약의 말씀 88구절을 암송해야 한다.

나. 성년식의 때

유대인 소년은 13세가 되면 성년식을 치른다. 성년식은 유대인의 말씀 전수라는 측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되는 의식이다. 성년식을 히브리말로 “바미쯔바(Bar Mitzva)”라 한다. 이 말은 “율법의 아들”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롬3:2)”란 뜻이다. 이 의식은 유대인 소년이 성년이 되면, 본인 스스로

148) 현용수,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 2권, 145.

149) Ibid., 129.

율법을 지키도록 의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거행하는 행사이다. 따라서 그는 성년식 이후부터 유대인의 계율을 지켜 행할 의무가 있다. 유대인의 성년식은 그의 일생 중 가장 의미 있고 성대한 행사이다. 그러므로 본인이나 가족은 물론 친척들이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다. 성년식은 여호와와의 말씀이 대를 이어 전수하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이다.¹⁵⁰⁾

신약시대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물림하는 측면에서 성년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구파발 교회에서는 자녀의 나이가 13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데 성공했다는 의미에서 성년식을 실시한다.

다. 성년식 준비

성년식 준비는 태교에서부터 13세 때까지 준비한다.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일년에 성경 일독을 하게하여 최소한 6독을 해야 한다. 또, 매일 큐티를 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난 내용을 글로 옮겨야 한다(매일 한 장 큐티 5년 결림). 성경 암송 구절은 구약성경 중에서 “율법의 613개 말씀”, 신약성경 중에서 “산상수훈의 말씀”,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201구절의 요절 말씀”을 암송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가정에서 13년간 부모로부터 철저히 교육을 받게 되고 담임목사가 테스트하는 과정을 통과해야 성년식에 참여 할 수 있다.

라. 성년식 행사

성년식행사 전에 일주일간 성년식 수련회를 갖게 된다. 수련회 기간 동안 금식을 하며 성경을 한번 정독하게 된다. 이때에 6년간 성경을 읽은 표, 큐티 노트, 말씀 1,000구절 암송한 것을 검증 받게 된다. 성년식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비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다짐하는 서약을 한다.

마지막 날 성년식 예배는 그 동안 길러주셨던 부모님과 가족들이 모두 참석하여 축제로 드려지며, 예배 중에 부모와 자녀가 강대상에 올라와 부모가 손을 얹고 목회

150) 현용수,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 3권, 283-284.

자가 손을 얹고 마음껏 축복기도를 해준다. 성년식 예배가 끝날 무렵 목회자는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을 향하여 “이제 성년이 된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대를 이어 전수되었음을 선포하노라.”고 공포한다.

예배 후는 부모가 준비한 선물을 자녀에게 손목시계를 선물한다. 시계가 상징하는 것은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철저하게 아끼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아들이 되라는 교훈으로 주게 된다. 성년식을 마친 자녀들은 부모들이 무릎을 태우고 예배당을 돌며 “000은 우리 집의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000을 말씀 맡은 자로 세우셨습니다.”라고 외치며 환호한다.

마. 성년식 후 수련과정

성년식이 끝난 후 일 년 동안은 소년은 성인이 되는 훈련기간을 갖는다. 일 년 동안 어른 예배에 참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어른 예배에 참석하여 성경 봉독, 대표기도, 헌금위원으로 봉사하는 기회가 제공된다. 교회가 하는 사회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회가 제공된다. 부모는 성년식을 마친 자녀에게 견문을 넓혀주기 위해 그동안 준비한 세계여행을 보내주어야 한다.

3. 웨마 고난의 역사체험 학교

웨마 고난의 역사체험학교는 4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한다. 첫째는 과거 조상들이 겪었던 고난의 역사현장을 찾아가 고난의 원인이 죄 때문임을 돌아보고 현재 자신의 죄를 각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둘째는 후손들이 우리민족을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기 위함이다. 셋째는 후손들이 조상들이 겪은 고난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다. 넷째는 후손들이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¹⁵¹⁾

유대인은 자기 민족이 겪은 고난의 역사를 자녀들이 머리로만 암기하도록 교육시키지 않고 시청각적으로 교육하거나 고난의 역사의 현장을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그

151) 현용수,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 3권, 221-229.

고난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 행동으로 옮기도록 교육하고 있다. 이처럼 구파발 교회도 유대인들의 고난의 역사를 기억시키는 방법을 배워서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접목하려고 한다. 우선 학생들에게,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순교한 성지를 찾아가서 고난의 역사를 산 체험으로 각인시키고 고난의 패배의 역사를 기억하여 다시는 패배의 역사를 답습하지 않도록 교육하려고 한다.

4. 웨마 절기학교

유대인은 절기를 통하여 여호와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도록 교육시킨다.¹⁵²⁾ 유대인들은 회당이나 가정에서 자녀들의 종교교육을 위한 많은 상징물들이 있다. 예를 들면 문설주의 메주자, 남자들이 머리와 팔에 차는 테필림, 613개의 율법을 상징하는 옷 찌찌, 촛대 등이 있다. 유대인들은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성전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유대절기를 상징물을 가지고 지키며 절기의 의미를 신앙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구파발 교회에서는 절기학교를 개설하여 성서에 나오는 절기 중 한국 기독교인에 맞는 절기의 교육을 통하여 신앙을 성장시키려고 한다. 신년, 고난주간, 부활절, 추수감사절 및 성탄절 등을 절기로 명시하고 구파발 교인들이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지키는 것을 개발하여 보급하려고 한다. 절기학교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려고 한다. 첫째, 절기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살려 의미 있게 지킬 것인가? 둘째, 절기를 통하여 신앙의 대물림을 이룰 것인가? 셋째,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절기를 지킬 것인가? 고민하며 절기 교육을 시키려 한다.

5. 웨마 예절학교

웨마 예절 학교에서는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법을 집중적으로 가르칠 것이다. 예절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사람의 몸에 담아내는 도구이다. 이러한 예절은 부모로부터 가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한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믿음

152) 현용수,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 2권, 253.

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여호와와 율레와 법도의 기본인 효를 잘 가르치지 못했다. 이제 셰마 가정이 되어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이 성공하려면 철저한 효도교육과 예절 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¹⁵³⁾

우리나라도 유대인처럼 좋은 양반의 전통이 많다. 양반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지킬 독특한 예법이 있다. 또, 우리 조상들에게는 고귀한 청렴결백한 선비정신, 3대가 한 집에 더불어 사는 지혜가 있고, 위아래의 사랑과 따뜻함, 공동체를 위한 희생정신, 아무리 가난해도 흠어지지 않는 고고한 자세, 효사상 등이 있다.¹⁵⁴⁾ 셰마 예절 학교에서는 기독교의 효 사상을 연구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생활에 실천하는 일들을 구체화 하여 한국 기독교인의 인성교육을 다시 정립하여 가르치려고 한다.

6. 셰마 가족 공원

구파발 교회는 진관 공원녹지 안에 560평의 땅을 가지고 있다. 이 땅에 자연친화적 납골 공원을 만들어 신앙생활을 한 교우들이 죽으면 누구나 무료로 들어 갈수 있도록 만들려고 한다. 점진적으로 은평 뉴 타운 내에 거주자도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아 교회가 지역주민을 섬기려고 한다. 교회는 유족들을 위하여 명절 때마다 추도예배를 공동으로 드리게 하여 후손들이 구파발 교회를 내 공원처럼 들어올 수 있는 전도의 장을 만들려고 한다. 자손 대대로 구파발 교회를 섬기게 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

구파발 교회가 생각하고 있는 셰마 가족 공원은 기존의 납골 공원과는 거리가 멀다. 셰마 가족공원 안에 여러 개의 정원수를 만들어 놓고 순차에 따라 납골을 나무 밑을 파서 묻음으로 정원수가 자라는데 필요한 영양소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교회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납골을 나무 밑에 묻게 해야 한다. 교회는 이들의 등록된 주소로 명절에 추도 예배를 드릴 시간을 각 가정에 안내문을 보내고 추도예배를 통하여 전도의 기회를 삼게 된다.

153) 현용수,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 2권, 265.

154) 현용수, *부모여 자녀를 제자삼아라*, 287.

제 3 절 교회에서 셰마 말씀 교육 시행에 따른 평가

한국교회는 복음이 전래된 초창기부터 선교사들이 전수해준 교육방법을 기초로 하여 지금까지 성장하여 왔다. 이러한 성장과정을 거쳐서 농경문화와 유교중심의 문화에서 교회중심의 교회교육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산업화 시대를 넘어 정보화시대로 급격하게 환경이 변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해온 교회중심교육이 한계에 부딪혀 교회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안으로 제시된 유대인의 셰마 말씀 교육방법을 교회에 접목한다면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 먼저 교회에서 셰마 말씀 교육방법을 접목할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지성교육 셰마 말씀 신앙경건 훈련의 장단점

송구영신 및 신년예배를 드릴 경우 장점으로는 지난 1년 동안에 자신이 행한 일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어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충분한 회개가 일어나고, 교인들에게 잘못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직접 찾아가 용서를 빌고 화해함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될 것이다. 신년예배에 자신의 허물과 죄를 구제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겠다는 생각으로 인해 죄를 지으면 물질이 들어간다는 인식을 각인시킴으로 보다 더 성결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또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소원과 결단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준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신년예배 후에 부모가 자녀의 머리위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를 직접 해 줌으로 부모의 뜨거운 기도를 자녀들이 직접 체험함으로 신앙의 대물림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축복을 받은 자녀는 자신에게 복을 빌어주는 부모를 잘 섬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12월 31일은 직장을 출근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에 모두다 새벽부터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축복기도 해주는 시간에 어린 자녀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지만 다 성장한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해주는 것을 어색해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또 여러 교회로 출석하는 가정과 가족 중에 한 두 명만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

은 실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쉐마 말씀의 날을 제정할 경우 장점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말씀의 중요성을 각인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일 년 동안 성경을 일독한 사람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해 주며, 말씀암송대회에서 우승자에게 무등을 태우므로 말씀암송을 부각시키므로 교회가 말씀중심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교회가 너무 쉐마 말씀만을 강조한다는 반발이 예상되며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과 자녀가 다 성장한 부모는 방관자가 될 수도 있다.

쉐마 청소년 비전학교를 실시할 경우 장점으로는 청소년들에게 세계를 이끌고 갈 꿈과 비전을 심어주게 될 것이다. 13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교육을 마치고 성년식을 한 청소년들이 비전학교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준비한다면 세상을 새롭게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이제 시작단계이므로 성년식을 거친 청소년들이 적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또 말씀으로 준비되지 못한 청소년들이 꿈과 비전을 갖게 되면 세속적인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준비된 비전의 목회자와 교사가 있어야 청소년 비전학교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쉐마 청년제자사역의 장점은 청년들에게 직접 쉐마 말씀을 가르치는 훈련을 실시하여 제자를 삼으면 가장 빨리 쉐마 말씀교육을 가정에서 접목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들은 결혼하여 자식을 낳을 경우 집에서 어린자녀들을 쉐마 말씀교육 방법으로 직접 교육하여 13세 때에 말씀의 자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점으로 결혼할 배우자가 쉐마 제자사역을 함께 교육받은 사람이어야 쉐마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쉐마 가정부부 성경공부반의 장점은 부부가 함께 쉐마 말씀 교육을 받음으로 자녀들에게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 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일 것이다. 부부가 함께 교회에서 배운 것을 가정에 돌아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되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일 것이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부부반이기 때문에 이혼 남녀, 홀로된 분들이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쉐마 노인대학의 장점은 노인들이 공부하여 집으로 돌아가서 손자 손녀들에게 직접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직접 손자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를 해주어 기도를 통하여 신앙을 대물림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

그러나 단점으로는 노인들이기 때문에 배운 것을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과 손자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때는 교육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전교인들에게 지성교육으로 웨마 말씀 신앙경건훈련을 시킬 경우 장점으로는 목회자는 부모들에게 웨마 말씀의 내용을 교육시키면 부모는 가정으로 돌아가 직접 자녀에게 웨마 말씀으로 훈련시키면 된다는 것이다. 또 교회가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웨마 말씀을 가르치므로 교육의 내용이 통일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교회가 사람의 발달연령에 따라 가르칠 웨마 말씀의 내용들을 구분하여 제공해 주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2. 인성교육 웨마 말씀 신앙경건훈련 장단점

사람들이 웨마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마음의 토양을 옥토로 개간해야 할 것이다. 웨마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감성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별한 행사와 오락과 잔치와 상징적인 것들을 사용하여 신앙경건훈련을 시키어야 할 것이다.

웨마 세례식잔치의 장점은 짧은 시간(1년 반) 내에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게 되며 세례 받은 후 즉시 교회의 주인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세례 받은 후 세례식잔치를 해줌으로 예수님과 영적으로 결혼한 사람이라고 교회가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한 사람이 세례받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배후에서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웨마 성년식 큰 잔치의 장점은 13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전수를 끝내고 신앙을 전수하여 성년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또 교회에서 성년식의 잔치를 크게 하여 자녀들이 말씀을 맡은 자로 헌신하도록 만들어 주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게 하는 것이다. 성년식에 참여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이 대물림되었기 때문에 뜨거운 감격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부모는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교육하는 일을 반복하는 수고를 해야 할 것이다.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세계여행을 보내주는 비용과 성년식잔치의 비용을 준비하는 것이 부담이 될 것이다.

쉐마 고난의 역사체험 학교의 장점은 고난의 역사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역사를 시청각적으로 직접 몸으로 체험하여 패배의 역사를 다시 답습하지 않게 하고 앞으로 닥칠 수 있는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단점으로 고난의 역사를 재현하여 체험하기 까지는 많은 시간과 물질이 요구된다.

쉐마 절기학교의 장점은 성경에 나오는 절기를 시청각적으로 만들어 절기를 지킴으로 말씀만 가지고 하는 교육보다 상징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더 오래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개신교의 절기에 맞는 상징물을 새롭게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독교에서도 구약성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것들을 사용하여 교육할 수밖에 없는데 기독교인들 중에는 유대인의 것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 할 수 있을 것이다.

쉐마 예절학교의 장점은 쉐마 예절 안에 기독교의 인격을 담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예절로 표현하여 교양 있는 인격자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옛날 사대부 양반집의 교양 있는 예절처럼 기독교인들도 쉐마 예절을 만들어 예수님의 인격을 담아야 할 것이다. 또 기독교의 효사상을 연구하여 부모를 잘 공경하는 모델을 만들어 실천하므로 세상을 밝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세상적으로 보면 이미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진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좋은 인품과 예절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왕따를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쉐마 가족공원의 장점은 교회가 교회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납골터를 제공해주므로 교회에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에 납골터를 만들 경우 혐오시설이라고 싫어하는 교인들이 있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하여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킬 때에 상징적인 의식을 통하여 신앙을 전수하여 왔다. 그들은 신앙을 전수하기 위한 많은 절기들이 있고, 절기마다 독특한 의식이 있으며 그 의식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것들이 있다. 가정에서 실시하는 인성교육 쉐마 말씀 경건훈련은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여 쉐마의 말씀을 쉽게 마음에 각인시키기 위한 것으로 잘 활용하면 신앙교육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성교육을 위한 쉐마 말씀교육을 처음부터 만들어 나가야 함으로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들 것이다.

지금까지 구파발 교회에서 실시할 수 있는 쉐마 말씀교육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

였다. 사람은 지성과 인성교육을 함께 배움으로 인품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교인들도 지성적인 말씀교육과 인성적인 체험신앙을 함께 배움으로 좋은 인품을 가진 신앙인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래서 구파발 교회에서는 부모들에게 지성교육인 쉼마 말씀을 직접 가르쳐주면 교육을 받은 부모들은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녀들에게 쉼마 말씀을 가르치게 해야 한다. 교회에서는 신년예배 시부터 쉼마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마음의 받음 옥토로 개간 시켜야 한다. 또, 종교개혁주일을 쉼마 말씀의 날로 정하여 쉼마 말씀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야 하며 말씀공부는 평생 동안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교회에서는 13세 때에 성년식을 베풀어 하나님 말씀의 아들로 만들고, 14-18세까지는 비전학교를 통하여 어떤 비전으로 세상을 살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게 한다. 청년 때는 쉼마 제자학교를 통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준비를 시킨다. 인생 중반에 개종한 사람들을 위해서 쉼마 가정부부 성경공부를 개설하여 부모교육을 철저히 시키어 자신의 자녀들을 직접 가르치게 해야 한다. 또 노인들을 위하여 쉼마 노인대학을 개설하여 노인들에게 쉼마 말씀을 교육하여 가정에 돌아가 자손들에게 쉼마 말씀을 가르치게 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특별한 행사를 계획하여 쉼마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감정을 통한 인성교육을 실시해야한다. 세례식을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인 결혼식으로 큰 의미를 두어 교회에서 큰 잔치를 베풀어주고 세례 받은 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교회에서는 성년식 큰 잔치를 베풀어 주어 부모들로 하여금 13세 이전에 쉼마 말씀교육을 마치도록 유도해야 한다. 성년식 큰 잔치는 부모들이 직접 준비하여 자녀들이 평생을 기억하도록 해야 한다. 쉼마 말씀은 감정적인 측면에서 직간접 체험을 통하여 배울 수 있도록 고난의 역사체험 학교, 절기학교, 예절학교, 가족공원 참배하기 등을 실시하여 지성과 인성을 고루 갖춘 인품 좋은 신앙인을 만들어 내야 한다. 다음은 가정에서 쉼마 말씀교육에 대한 것을 제안하려고 한다.

제 6 장

가정에서 웨마 말씀 교육 제언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웨마 말씀을 직접 가르치는 신앙경건훈련을 하고 있다. 이제 구파발 교회 교인들도 유대인의 웨마 말씀 교육방법을 가정에 접목하여 신앙의 대물림에 성공해야 한다. 먼저 웨마 말씀을 전수하기 위한 가정성전에 대하여 제안하려고 한다.

제 1 절 웨마 가정 성전

부모가 자녀에게 웨마 말씀을 가르치려면 가정성전에 대한 새로운 이해, 말씀을 전수시키는 부모의 역할, 웨마 말씀의 내용, 축복기도 등을 알아야 신앙을 전수할 수 있다. 먼저 웨마 가정성전 선포에 대하여 제안하려고 한다.

1. 웨마 가정성전 선포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가르치기 시작하려면 먼저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성전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가정이 성전이 되는 이유를 유대인들의 가정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유대인들은 70년에 로마나라에 의하여 예루살렘성전을 잃어버리게 되어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더 이상 드릴 수 없게 되자 가정의 식탁을 성전으로 대신하였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성전에서 행하는 일들을 가정에서 행하기 시작하였다. 아버지가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제사장이 손을 씻는 것처럼 자신들도 손을 씻고, 안식일 전날 만나가 두 배로 내렸던 것을 기억하여 두 개의 빵을 만들고, 제물에 소금을 치라는 말씀대로 빵에 소금을 쳐서 먹

고, 말씀이 없는 식탁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같다고 하여 식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유대인들은 부모가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가르침으로 유대인을 만들어 내었다. 이처럼 구파발 교인들도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성전임을 선포하며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으로 자녀에게 직접 셰마 말씀을 가르쳐 신앙을 전수해야 한다.

2. 셰마 말씀 전수 부모역할

유대인의 부모들은 가정성전에서 셰마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한다. 유대인의 아버지는 제사장의 직분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를 해주며, 어머니는 아버지가 가르친 셰마 말씀을 자녀들이 실천하도록 반복적인 훈련으로 말씀 맡은 자로 만들어 낸다.

이제라도 구파발 교회 교인들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신앙을 대물림시키기 위하여 셰마 말씀을 직접 가르쳐주는 제사장이 되어야 하며, 자녀들을 축복해주는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또한 어머니는 자녀들을 말씀 맡은 자로 만들기 위하여 반복훈련 시키는 신앙의 조련사가 되어야 한다.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 부모는 신앙의 대물림을 이루기 위하여 셰마 말씀 교육방법대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쉬지 않아야 한다. 부모는 자녀들과 함께 식사시간마다 밥상공동체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고 식사기도를 해야 한다. 또, 매일 성경을 5쪽씩 읽는 것과 매일 성경 한 장을 묵상하는 큐티 훈련이 습관이 되도록 지도해야 한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 하루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한 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3. 셰마 말씀 내용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말씀은 구약의 율법의 말씀과 신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이다. 또, 신구약성경 중에 꼭 암송해야 하는 말씀들

을 정리하였다. 먼저 구약의 율법 613개의 말씀을 소개하려고 한다.

가. 구약 율법 613개 말씀

유대인들은 248개의 적극적인 명령들과 365개의 소극적인 금지명령들을 구분하여 가르쳤다. 사람의 몸은 248개의 구별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여 하나님의 적극적인 명령들에 순종할 것을 기억해야 한다. 또 일 년은 365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은 매일의 나날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지 말아야 함을 기억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613개의 율법의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자세한 내용은 부록에 있음).¹⁵⁵⁾

(1) “하라” 명령

A.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한 명령들

1. 출 20:1, 사람은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어야 한다 :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신 5:6).

D. 희생 제사를 다루는 명령들

50. 민 29:13, 속곳(장막)절에는 추가적인 제물이 드려져야 한다 :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F. 의식적 정결을 다루는 명령들

100. 레 12:2, 금방 아이를 낳은 여자는 부정하다 : “여인이 잉태하여... 를 낳으면”

I. 짐승을 잡는 것을 다루는 명령들

150. 신 14:11, 먹을 수 있는 새를 조사하는 것 :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N. 사회구조를 다루는 명령들

200. 신 24:15, 일꾼에게 임금을 제시간에 주어라 : “그 품삷을 당일치 주고...”

R. 일반적인 명령들

155) Sail Hamer, 모세오경, 하권, 479-543.

248. 민 27:8, 기업을 수반하는 판결 :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지켜야할 613개의 말씀 중에서 “하라”는 248개의 적극적인 명령들 중에서 몇 종류의 소제목들과 1, 50, 100, 150, 200, 248번을 살펴보았다.

(2) “하지 말라” 금지

A. 우상숭배 및 거짓 종교와 관련한 금지들

1. 출 20:3, 사람은 다른 신의 존재를 믿어서는 안 된다 : “너는 나 외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B. 역사적 사건들과 관련한 금지들

50. 신 7:2, 우상숭배자들에 대해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 : “그들을 붙잡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E. 희생제사와 관련한 금지들

100. 신 23:19(EVV 18), 창기의 값으로나 개의 값으로 받은 짐승을 드려서는 안 된다 : “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들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150. 신 26:14, 부정한 상태에 있을 동안에는 두 번째 십일조를 먹어서는 안된다 : “부정 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G. 음식과 관련한 금지들

200. 출 13:7, 유월절을 기념하는 동안 어떠한 누룩도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 :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네 지경 안에서 누룩을 네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J. 상업과 관련한 금지들

250. 레 25:14, 상업거래에서 서로를 속여서는 안 된다 : “네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K. 공의의 집행과 관련한 금지들

300. 신 25:2-32, 죄인을 때릴 때 그 죄에 합당하게 때릴 것이요 그 이상을 때려서는 안 된다 : “그 죄의 경중대로 여수히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M. 왕과 관련한 금지들

365. 신17:17, 왕은 많은 부를 쌓아서는 안 된다 :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지켜야할 613개의 말씀 중에서 “하지 말라”는 365개의 소극적인 금지명령 중에서 몇 개의 소제목들과 1, 50, 100, 300, 365번을 살펴보았다.

나. 신약 산상수훈 말씀(마 5:1-7:29)

예수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친 산상수훈에는 여러 가지 내용의 교훈이 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설교로서 성도들이 지켜야할 천국의 새 법과 새 생활에 대한 것이다. 즉 율법이 구약시대의 생활규범이라면 산상수훈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규범이라 할 수 있다.¹⁵⁶⁾

“산상수훈”은 다음과 같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안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마 5:1-7:29).

다. 암송할 신구약성경 구절

구약의 말씀(113구절): 창 1:1, 1:27-28, 12:1-3, 22:12, 50:20; 출 3:14, 20:1-17, 20:21, 34:6; 레 19:2, 19:18, 25:23; 민 12:3, 23:19, 35:33; 신 6:4-5, 10:17-18, 28:1; 수 1:7; 삿 8:23; 룖 1:16; 삼상 17:45; 삼하 7:11, 12, 13; 왕상 18:21; 왕하 22:13; 대하 20:12; 느 5:8; 에 4:14; 욥 1:21, 42:5; 시1:1-6, 23:1-6, 51:10, 84:10, 100:1-5, 119:105, 121:1-2, 133:1; 잠 1:7, 3:5-6, 16:18; 전 1:2-3, 12:1; 아 8:6; 사1:3, 9:6, 41:10, 53:4-6;

156) 김영진, 그랜드종합주석 Vol. 14 (서울: 성서교제주식회사, 1998), 212.

61:1-3; 렘 2:13; 20:9; 31:31; 애 3:26-28; 겔 18:23; 34:2-5; 단 7:13-14; 호 6:6; 욥 2:13; 암 5:24; 욕 1:15; 온 4:10; 미 6:8; 나 1:7; 합 2:4; 습 2:3; 학 2:8-9; 속 4:6; 말 3:10.

신약의 말씀(88구절): 마 1:1; 4:17; 5:3; 6:33; 7:7; 11:28; 28:19, 20; 막 1:1, 14-15; 8:29, 35; 10:45; 눅 4:18-19; 6:20; 11:2-4, 20; 23:43; 요 1:14; 3:16-17; 8:32; 10:11; 11:25-26; 12:24; 13:34; 20:31; 행 1:8; 2:38; 4:12; 16:31; 20:24; 롬 1:16-17; 3:21, 24; 4:25; 8:1-2, 26; 10:4; 12:2; 13:10; 고전 1:18; 3:16; 10:31; 11:23; 13:13; 15:45; 고후 3:17; 5:17; 13:13; 갈 2:20; 5:13-14, 22-23; 엡 2:14; 5:18; 빌 2:6-7; 4:6-7; 골 1:15; 살전 5:16-18; 딤펴전 6:11-12; 딤후 3:16; 히 4:12; 11:1-3; 약 1:15; 2:26; 벧전 2:9; 벧후 3:8; 요일 4:10, 16; 계 1:8; 계 21:1.¹⁵⁷⁾

제 2 절 쉼마 절기 교육

대부분의 한국교인들은 신앙생활을 교회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절기 행사도 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거의 모든 신앙교육이 가정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절기를 통하여 신앙교육을 하고 있다. 이제는 구파발 교인들은 신앙의 대물림을 위하여 가정에서 부모가 절기행사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직접 해주어야 한다. 먼저 가정에서 신앙 전수를 위한 주일 쉼마 가정예배를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주일저녁 쉼마 가정예배

대부분의 한국교인들이 매일 드리는 가정예배 순서를 보면 신앙고백, 찬송, 기도, 말씀, 찬송, 주기도 순이다. 이러한 가정예배는 단조롭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드러지는 경우가 많고 시간에 쫓겨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므로 자녀들이 성장하면 가정예배를 등한시 하려는 경향이 많다.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여 주일 저녁을 위한 특별한 가정예배를 만들어 보급함으로 가족공동체도 살리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쉼

157) 정기덕, *장로회신학대학 성경종합시험문제집* (서울: 교문사, 1987), 323-326.

마 말씀도 가르치고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어서 신앙의 대물림을 이루어야 한다.

주일 가정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준비를 해야 한다. 주일이 오기 전 토요일에 대청소를 하고, 주일날만 먹는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고, 식탁 테이블을 깨끗한 것으로 단장하고, 꽃을 준비하고, 가족의 뿌리를 알리는 나무를 준비하고(개별인물 사진 걸어두는 나무 장식), 가장 깨끗한 그릇과 아름다운 촛대를 준비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주일 저녁 가정예배를 맞을 준비를 한다. 먼저 온 가족이 손을 씻는 것으로 주일 가정예배가 시작된다.

손을 씻는 의식: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으로 먼저 손을 씻은 후에 가족들이 차례로 손을 씻고 가정예배에 참석한다(손을 씻는 이유는 성전에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위해 손을 씻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성결하기 위해 상징적인 의미로 손을 씻게 하여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촛불점화 의식: 온 가족이 모이면 어머니가 한 개의 촛대에 촛불을 점화 한다. 이때에 온 가족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5장 14-16절까지 암송한다(어머니가 촛불을 점화하는 이유는 어머니는 가정을 밝히는 기도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가족을 위한 축복(성경봉독으로 대신): 아버지는 먼저 자녀를 축복한다(창 27:25-29). 또, 남편은 아내를 축복한다(잠 31:10-31).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시편 112편을 낭송한다.

주일성수에 대한 말씀 선포: 아버지는 출애굽기 20장 8절과 이사야 58장 13절-14절까지를 읽고 난후 가족들이 주일성수를 잘하기 위하여 통성기도를 한 후 대표로 한 사람이 식사기도를 한다. 이때에 온 가족은 먼저 주일의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 함께 포도주스로 건배하며 “주일 성수를 잘하여 복을 받으시다”라고 외치고 마신다.

두덩어리 빵과 소금: 아버지가 두덩어리의 빵을 잘라 가족들에게 나누어 줄때에 어머니는 그 빵 위에 상징적으로 소금을 뿌려준다. 빵을 자르는 동안 온 가족은 마태복음 5장 13절을 암송한다(두덩어리 빵의 의미는 안식일 전날 두 배의 만나를 내려 주심을 기억하고 주일을 온전히 지킬 때에 두 배의 축복을 사모하기 위함이다. 소금을 뿌려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소금처럼 살게 하기 위함이다).

주일만 먹는 특별한 식사: 주일저녁에는 그 가정에서 만드는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자녀들이 주일 저녁에 먹는 음식을 기다리며 한 주간을 보낸다. 주일저녁에 만들어 먹는 음식은 다른 날에는 만들지 않아야 한다(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녁식사시간에 쉼과 말씀을 교육하기 위함이며, 가족들이 모두 모이게 하기 위함이며, 식사시간에 가족과의 대화를 나누기 위함이며,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함이다).

식사 후 감사기도: 아버지가 신명기 8장 10절을 읽고, 온 가족이 시편 126편을 함께 읽음으로 감사기도를 대신한다.

가장 좋아하는 찬양 부르기: 가족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찬송을 선택하면 그 찬송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를 간증하고 함께 즐거움으로 찬양한다.

아버지 어머니의 축복기도: 아버지(어머니)가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개인별로 축복기도를 해준다. 온 가족은 축복기도를 마치면 함께 민수기 6장 24-26절까지 암송한 후 주기도로 주일 가정예배를 마친다.

2. 지역별 쉼과 절기축제

구파발 교회는 부활절, 성탄절의 절기 축제를 가정으로 옮겨놓기 위하여 지역별(4-5개의 구역을 묶음)로 연합예배를 드리고 있다. 연합예배를 드리는 가정은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가정을 선정하고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참석하여 공동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 예배 후에는 각자가 준비한 음식을 나누어 먹음으로 성도의 교제를 돈독히 하게 된다. 지역별로 애경사가 나면 지역별로 교인들이 순서를 정하여 봉사하기 때문에 유대관계를 좋게 할 수 있다. 지역식구들은 연합예배를 준비하면서 절기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며 이러한 준비과정은 가정예배까지 영향을 미치어 가정에서도 가족들끼리 절기를 지키게 된다.

성탄절은 가정에서 신나는 축제로 만들어야 한다. 온 가족이 성탄절 장식을 함께 만들고, 성탄절 축하 파티로 특별한 음식을 만들고, 가족들 끼리 선물 교환을 준비하고, 카드를 보내고, 가족들끼리 게임을 준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평화를 누리게 되어 최고의 기쁨을 나누는 절기로 만들어야 한다.

또 기독교의 최대의 명절인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은 전 교인이 마당에서 공동으

로 식사를 하는 큰 잔치를 베풀어 절기의 의미를 살리려 한다. 모든 식사는 교구별로 준비하고 예배 후에 식사는 교구별로 하게 된다. 공동식사를 하는 이유는 어린 자녀들에게 절기는 하나님의 큰 잔치임을 교육하기 위함이며 절기를 상징하는 것을 함께 만들어 전시함으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에는 모든 기관과 부서와 교구의 구역에서 과일 한 상자씩을 봉헌한 후 구파발 지역의 모든 기관과 어려운 소년 소녀 가정, 독거노인, 노인정 등에 교인들이 직접 가지고 가서 나누어 주고 섬기는 보람을 느끼게 하고 있다.

3. 셰마 구역예배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와 말씀을 받는 교인이 있어야 된다. 목자가 이끌어 가는대로 양들은 따라 오게 된다. 구역은 가장 작은 교회의 기능을 한다. 구역장은 구역의 작은 목자이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구역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구역장은 구역으로 돌아가서 구역식구들에게 전달 교육을 하게 된다. 전교인의 가정을 셰마 가정으로 만들려면 먼저 목회자가 구역장의 가정을 셰마 가정으로 만들고 구역장은 구역식구들의 가정을 셰마 가정으로 만들게 된다. 구역장은 구역식구들과 함께 그룹으로 모여서 한 주간에 가르칠 셰마 말씀을 점검하고 반복 교육을 하면 구역식구들은 자기 가정에 돌아가서 셰마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구역장의 가정을 먼저 셰마 가정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4. 셰마 기도 생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많은 기도문들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유대교는 기도하는 종교이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기도문은 아침, 점심, 저녁예배와 묵도, 기상, 취침, 고뇌, 눈물, 감사, 실패, 결혼, 장례, 생일, 축일을 위한 기도 등 그 내용이 아주 다양하다. 유대인들은 일생 기도문을 가지고 생활한다. 기도가 하기 싫을 때도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드린다.¹⁵⁸⁾

앞으로 구파발 교회에서도 많은 기도문들을 만들어서 가정에서 교인들이 자신이 처한 형편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사용하게 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새벽에 잠을 깨고 드리는 감사기도문, 저녁 취침 시에 드리는 기도문,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때에 기도하는 셰마 기도문, 식사기도문, 자녀들이 학교에 등교하기 전에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기도문, 주일날 교회에 가서 드리는 기도문... 등)

제 3 절 셰마 말씀 전수 유익한 것들

셰마 말씀 교육은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실시하는 것이 좋다. 유대인들은 3세가 되면 셰마 말씀을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하기 시작하여 만 13세 이전에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마치고 있다. 먼저 부모는 자녀의 마음에 셰마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의 받은 옥토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1. 자녀 마음에 꿈을

어린 자녀의 마음은 하얀 백지처럼 마음이 깨끗하다. 백지 같은 자녀의 마음에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석공이 비석에다 글을 반복하여 새겨 넣는 것처럼 부모는 자녀의 심비에 말씀을 새겨 넣어야 한다.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꿈을 품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와 함께 암송하며 반복교육을 통하여 각인 시켜 주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부모는 어린 자녀가 잠자리에 들 때 “어린이 그림성경이나 성경동화책”을 읽어 주어 자녀들의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각인 시켜 주어야 한다. 또, 부모는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매일 잠자리에서 축복기도를 해 주어 자녀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사모하게 만들어야 한다. 또, 아침에 일어나서는 성경을 매일 읽게 하고, 읽은 내용을 부모님께 이야기 하게 하여 잘못 이해한 부분은 부모가 교정해 주어야 한다. 부모가 셰마 말씀으로 어렸을 때부터 반복학습교육으로 신앙경건훈련을 시키어 신앙의 대물림을 이루어야 한다.

158) 최한구, *유대인은 EQ로 시작하여 IQ로 승리한다* (서울: 도서출판 한글, 1998), 230.

2. 하나님 만난 체험 간증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다가 벧엘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야곱이 벧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후 체험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었다. 야곱은 자녀들이 할례전쟁을 일으킨 후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자녀들에게 옛날 벧엘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을 간증함으로써 모든 자녀들이 우상을 버리고 신앙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난 작은 체험이라도 간증을 하게 되면 그 영향력은 대단하다. 부모는 위기 중에 만난 하나님을 가족과 함께 모여 그 날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증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부모는 자녀들이 기도 응답을 받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열어 놓아 체험적인 신앙으로 유도해야 한다.

3. 쉼마 가족의 날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놀이공간은 일터와 가정이다. 그들은 하나 같이 일을 하며 남는 시간이 있으면 가족과 어울린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모두가 만족해한다.¹⁵⁹⁾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가족이 분담하여 집안일을 한다. 거기에는 그들만의 공동체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¹⁶⁰⁾

구파발 교인들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한 달에 하루를 가족의 날로 정하여 가족이 함께하는 공동체의 날을 만들어야 한다. 가족의 날은 부모와 자녀가 똑같은 공동체의 일원임으로 가족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 내어 순서를 정하여 똑같이 하는 특별한 날이다. 부모는 미리 가족들끼리 한 가지씩 대화의 주제, 먹고 싶은 음식,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게임 등을 적어 내게 하고, 그것들을 순서를 정하여 진행함으로써 가족들을 이해하고 가족의 행복을 서로 만들어가면서 쉼마 말씀을 더 잘 실천 할 수 있는 가족의 날이다.

159) 류태영, *천재를 만드는 유태인의 가정교육법*, 140

160) Ibid., 131.

제 4 절 가정에서 웨마 말씀 교육 시행에 따른 평가

지금까지 구파발 교회는 신앙교육의 대부분이 교회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교인들은 목회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고 교육받아왔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생각 할 수도 없었다. 다만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릴 때에 부모가 가족들에게 설교말씀을 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웨마 말씀을 직접 가르쳐 신앙을 전수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구파발 교회는 가정에서 유대인처럼 부모가 자녀들에게 웨마 말씀을 직접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 이때에 발생할 수 있는 장단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웨마 가정성전의 장단점

웨마 가정성전을 만들 경우 장점으로는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된다는 것이다. 또 가정을 성전으로 만들 경우에는 가정이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구별되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신앙교육이 보다 더 쉬워질 것이다. 가정 안에서 아버지는 제사장으로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시키는 감독자가 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신앙을 대물림하는데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부모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자녀들에게 웨마 말씀을 가르치면 교회 중심교육 때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일주일에 한번 주일날 교회학교 교사로부터 받는 교육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정에서 많은 양의 말씀교육과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직접 가르치려면 먼저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의 신앙도 한층 더 깊어 질 것이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면서 직접 가르치게 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있는 신앙인이 될 것이다. 젊은 층의 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에게 직접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른들 보다 더 선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직접 가르치기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게 됨으로 많은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나이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다

성장하였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셰마 가정을 만들고 직접 자녀들을 가르친다고 하여도 한국가정의 상황에서는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방과 후에 학원에서 늦게 돌아오고, 새벽에 학교에 일찍 등교하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 젊은층의 부모들은 직장에 일찍 출근했다 저녁 늦게 돌아오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직접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주 5일 근무제를 잘 활용하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가 된다. 유대인들이 외우는 613개의 율법 중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제사제도에 대하여 다루기 때문에 이것을 강요할 경우는 거부 반응이 있을 것이다. 또한 셰마 말씀을 자녀들에게 교육하려면 1,000구절에 해당하는 성경말씀을 암송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거부하게 될 것이다. 셰마 교육방법은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가르치기 때문에 암기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나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2. 셰마 절기 교육의 장단점

유대인이 유대인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안식일을 가정에서 잘 지켰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가정 안에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며 자녀들에게 셰마 말씀을 교육함으로 신앙을 전수하는 데 성공하였다. 구파발 교인들도 유대인들처럼 주일날을 특별한 날로 정하고 가정에서 독특한 “주일 저녁 셰마 가정예배”를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주일저녁 셰마 가정예배를 드릴 때의 장점으로는 신앙가족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이때에 부모는 자녀에게 셰마 말씀을 직접 가르치고,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기 위하여 말씀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점이 큰 장점일 것이다. 자녀들은 여러 가지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됨과 자신이 세상의 빛과 소금됨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아버지는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와 아내를 위한 축복기도를 해줌으로 자신이 가정의 제사장임 깨닫게 되며 신앙 전수이 책임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일저녁 만찬은 가장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므로 자녀들이 주일을 기다리게 될 것이고, 식사시간을 활용하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것

이 장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가족전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가정은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의 의식을 닮아간다고 반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가족 중에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가정예배의 의식적 요소를 배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때로는 처음부터 어색하게 여겨져 반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역별 쉼마 절기 축제의 장점은 교회에 나오는 한 지역전체가 한 장소에 함께 모여서 교회절기를 지킴으로 교인간의 유대를 좋게 하며 애경사가 났을 때에 서로 돕게 하는 것이다.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에 공동으로 식사를 준비하면서 함께 친교를 나누고 어려운 이웃을 초청하여 음식을 베풀어 주고, 불우한 이웃에게 과일바구니와 라면 한 상자씩을 나누어 주므로 이웃을 섬기는 교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지역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을 경우는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다. 또 지역에 강력한 리더가 없으면 형식적인 축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쉼마 구역모임의 장점은 구역장을 통하여 구역식구들에게 쉼마 가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구역모임을 통하여 한 주간에 해야 할 것을 점검하고 실제로 했던 것들을 확인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일 것이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훈련받은 구역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구역식구들 중에 부부간에 짝 믿음을 가진 가정이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실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쉼마 기도생활의 장점은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들도 기도예식서를 보고 읽고 기도하게 함으로 기도를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기도예식서를 만드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걸릴 것이다.

3. 쉼마 말씀 전수 유익한 것들의 장단점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가르쳐 13세 이전에 말씀교육이 마쳐야 성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집중적으로 말씀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어린 자녀들의 마음은 백지처럼 빈 여백이 많기 때문에 어렸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그림을 부지런히 그려주어야 할 것이다. 장점으로는 부모는 어린아이를 가슴에 앓고 있는 시간이 많음으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동화책을 읽어

주고, 기도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의 의지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뜻을 세우고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킬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부모가 신앙심이 약하다든지 의지가 약하면 도중에 중단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가 세상적인 것에 욕망을 품고 세상으로 나가면 13세 이전의 신앙교육이 어렵게 될 것이다.

셰마 가족의 날의 장점은 온가족이 똑 같은 권리를 한 표를 행사하여 모든 것을 결정함으로 한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셰마 가족의 날만은 온 가족이 함께 그날 정해진 일을 함께 함으로 가족공동체의식을 심어주며 가족을 이해하고 가족의 행복을 만들어 가는 날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부모가 자녀들의 의견을 다 들어주다보면 버릇없는 아이로 자랄 수 있음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셰마 말씀 교육을 시키는 것들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 하였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셰마 말씀을 전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전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아버지는 가정에서 제사장으로 자녀들에게 셰마 말씀을 직접 가르쳐야 한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가르친 셰마 말씀을 자녀들이 실천하도록 계속 반복 훈련으로 말씀 말은 자로 양육해야 한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말씀을 13세 이전에 암송하는 교육을 하여 신앙전수에 성공하고 있다. 이제 구파발 교인들도 유대인들이 암송하는 613개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과 신구약 성경 중 201개의 말씀구절을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암송하여 신앙을 전수를 해야 한다. 또, 부모는 자녀들이 매일 기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유대인된 것은 가정에서 안식일절기를 온전히 지킴으로 신앙을 전수하는데 성공했다고 했다. 이제 구파발 교인들도 주일을 교회에서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온전히 잘 지킴으로 신앙을 전수하는데 성공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 주일 저녁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먹으면서 셰마 가정예배를 드리며 이때에 성경공부와 기도와 찬양과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하여 신앙을 전수해야 한다. 또, 지역별로 절기행사를 연합으로 함으로 성도의 교제를 돈독히 하고, 구역장을 통하여 구역식구 전

체를 세마 가정으로 만들어야 한다.

가정에서 부모는 어린 자녀들에게 잠자리에서 성경 말씀과 동화책을 읽어 줌으로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만난 체험들을 간증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한다. 한 달에 한 번씩 “가족의 날”을 만들어 가족이 함께하는 화목한 가정과 신앙공동체의 가정으로 만들어 신앙을 대물림해야 한다.

제 7 장

결 론

본 연구자는 1장 서론 부분에서 한국교회는 교회성장을 위한 외형적인 중요 요소로 많은 수의 교회, 목회자와 교사를 갖고 있는데도 교인 수가 감소하고 있다. 또,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행함이 없는 신앙인이 많아지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상실한지 오래되었다. 교인들의 가정을 보면 부모의 신앙이 대물림되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새로운 대안으로 유대인 가정에서 하는 셰마 말씀 교육을 제시 하려고 한다.

2장에서 유대인들은 모세가 받은 셰마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경건훈련을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오고 있다. 또한 그들은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신앙경건훈련 교육을 어느 곳에서 누가 하며, 셰마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며, 신앙전수를 위한 독특한 셰마 교육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138년의 기독교 역사가를 가진 한국교회는 어떤 문화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유대인과 한국인의 종교적인 공통점은 무엇인지 찾아보았다. 또, 한국교인의 신앙경건훈련 교육은 어느 곳에서 누가 하며, 신앙경건훈련 내용은 무엇이며, 그동안 한국교회가 교인들을 훈련시킨 두 가지 축인 말씀중심의 사경회와 기도중심의 부흥회를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46년 역사를 가진 구파발 교회를 선택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구파발 교회는 그동안 신앙경건훈련을 어떻게 해 왔으며, 또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경건훈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해보았다. 이 분석결과 대다수의 구파발 교인들은 교회중심으로 신앙경건훈련이 되고 있으며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경건훈련을 책임지고 가르치는 사람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5장에서는 교회에서 실시 할 수 있는 웨마 말씀 교육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교회는 교인들이 지적인 웨마 말씀을 평생 동안 배우도록 할 것이다. 웨마 말씀의 날을 제정하여 웨마 말씀을 배우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그 대안으로 13세 때 웨마 성년식, 14-18세까지 웨마 비전학교, 청년 때 웨마 제자학교, 장년 때 가정 부부성경 공부, 노인 때 웨마 노인대학을 제시했다. 또, 인성을 감동시켜 웨마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세례식 큰잔치, 성년식 큰잔치, 웨마 고난의 역사체험학교, 웨마 절기학교, 웨마 예절학교 등을 실시하여 지성과 인성을 고루 갖춘 좋은 인품의 신앙인을 만들어 낼 것이다.

6장에서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웨마 말씀 교육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그 대안으로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성전으로 삼고 아버지가 웨마 말씀교육방법으로 가르치면 어머니는 아버지가 가르친 말씀을 실천하도록 반복훈련을 시켜 말씀말은자로 만들 것이다. 이때 부모는 613개의 계명, 산상수훈, 200개 이상의 성경구절을 암송시킬 것이다. 주일저녁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면서 웨마 가정예배를 드리며 이때에 성경공부와 기도와 찬양과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하여 신앙을 전수할 것이다. 한 달에 한 번씩 가족의 날을 만들어 가족이 함께하는 화목한 가정과 신앙공동체의 가정으로 만들어 신앙을 대물림 할 것이다. 또, 구역장은 구역식구 전체를 웨마 가정으로 만드는 일에 헌신할 것이다. 여러 구역들이 함께 모여 지역별로 교회 절기행사를 함으로 성도의 교제를 돈독히 하고 애경사에 품앗이 개념으로 돌봄으로 웨마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이다.

부록 1

설문지

(본 설문지는 구파발교인들의 신앙생활 중에서 개인의 신앙과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경건훈련을 시키는 것과 교회가 교인들에게 신앙경건훈련을 시키는 것에 대한 의식 구조를 조사하여 신앙경건훈련의 모델을 개발하는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개인의 신앙

1. 본인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ㄱ. 20대() ㄴ. 30대() ㄷ. 40대() ㄹ. 50대() ㅁ. 60대() ㅂ. 70대() ㅅ. 기타()

2. 본인의 신앙은 몇 대입니까?

친가 쪽 : ㄱ. 1대째() ㄴ. 2대째() ㄷ. 3대째() ㄹ. 4대째()
 ㅁ. 기타()

외가 쪽 : ㄱ. 1대째() ㄴ. 2대째() ㄷ. 3대째() ㄹ. 4대째()
 ㅁ. 기타()

3. 본인은 구파발 교인됨을 어느 정도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ㄱ. 매우 만족함() ㄴ. 만족함() ㄷ. 보통() ㄹ. 그저 그렇다() ㅁ. 기타()

4. 본인은 구파발교회를 언제부터 출석하고 있습니까?

ㄱ. 유치원() ㄴ. 초등학교() ㄷ. 중학교() ㄹ. 고등학교() ㅁ. 대학교()
ㅂ. 청년부() ㅅ. 30대() ㅇ. 40대() ㅈ. 50대() ㅊ. 60대() ㅋ. 기타()

5. 본인은 처음으로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듭남을 체험한 때는 언제입니까?

ㄱ. 유치원() ㄴ. 초등학교() ㄷ. 중학교() ㄹ. 고등학교() ㅁ. 대학교()
ㅂ. 청년부() ㅅ. 30대() ㅇ. 40대() ㅈ. 50대() ㅊ. 60대() ㅋ. 기타()

6. 본인은 하루에 성경을 어느 정도 읽으십니까?

ㄱ. 10분() ㄴ. 10-20분() ㄷ. 20-30분() ㄹ. 30-60분() ㅁ. 1시간 30분()
ㅂ. 1시간30분 - 2시간() ㅅ. 2시간 이상() ㅇ. 기타()

7. 본인은 하루에 어느 정도 기도하고 있습니까?

ㄱ. 10분이하() ㄴ. 10-30분() ㄷ. 30-60분() ㄹ. 60-90분() ㅁ. 90-120분() ㅂ. 기타()

8. 본인이 신앙경건훈련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ㄱ. 기도() ㄴ. 말씀() ㄷ. 간증() ㄹ. 찬송() ㅁ. 가정예배() ㅅ. 대예배()

9. 본인은 신앙경건훈련을 책임질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ㄱ. 가정과 부모() ㄴ. 교회와 교역자() ㄷ. 개인이 알아서() ㄹ. 기타()

2. 가정-신앙경건훈련

1. 본인은 히브리인들이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ㄱ. 정확히 알고 있음.() ㄴ. 대충 알고 있음.() ㄷ. 모르겠음.() ㄹ. 기타()

2. 본인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직접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 아니요()

3. 본인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교재 개발이 시급하다고 봅니까?

예()/ 아니요()

4. 본인은 가정에서 자녀에게 신앙경건훈련으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ㄱ. 기도() ㄴ. 가정예배() ㄷ. 교회출석() ㄹ. 성경읽기() ㅁ. 봉사() ㅂ. 큐티()

5. 본인은 자녀들과 가정예배는 어느 정도 드리고 있습니까?

ㄱ. 매일() ㄴ. 격일() ㄷ. 일주일에 한번() ㄹ. 한 달에 2-3번() ㅁ. 일 년에 3-4번()

6. 가정에서 성탄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같은 절기를 특별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예()/ 아니요()

7. 가정에서 하루 동안 자녀(한명을 기준으로) 대화를 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ㄱ. 10분() ㄴ. 20분() ㄷ. 30분() ㄹ. 40분() ㅁ. 60분() ㅂ. 1시간이상()

8. 가정에서 자녀들과 대화 가운데 신앙적인 대화는 몇 퍼센트정도 됩니까?

ㄱ. 10() ㄴ. 20() ㄷ. 40() ㄹ. 60() ㅁ. 80() ㅂ. 100() ㅅ. 기타()

9. 가정에서 온 가족이 매일 성경(5쪽)을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합니까?

예()/ 아니요()

10. 가정에서 밥상공동체의 말씀을 암송하고 식사기도 후 식사를 하십니까?

예()/ 아니요()

11. 신앙의 대물림을 위하여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축복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ㄱ. 매일() ㄴ. 일주에 한두 번() ㄷ. 한달에 한두 번() ㅁ. 일년에 한두 번()

12. 다음 중 신앙의 대물림을 위하여 모델로 택하고 싶은 인물은 누구입니까?
 ㄱ.야곱형 - 의도적으로 영적인 축복을 계승시키려는 요셉의 아버지()
 ㄴ.요게벳형 - 지도자의 자화상을 소유한 모세의 어머니()
 ㄷ.한나형-나실인의 자화상을 소유한 사무엘의 어머니()
 ㄹ.다윗형 - 신앙의 대물림을 위하여 유언하는 솔로몬의 아버지()
 ㅁ.생각한 적이 없다.()

3. 교회-신앙경건훈련

1. 구파발교회에 자녀를 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ㄱ.한가정이 한 교회를 섬겨야 되기에() ㄴ. 부모님의 권유로()
 ㄷ.자녀들이 가고 싶어 하기에() ㄹ. 신앙교육을 잘 받을 수 있기에() ㅁ.기타()
2. 구파발교회에 자녀를 보내지 않고 동네교회에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ㄱ.공부 때문에() ㄴ.거리가 멀어서() ㄷ.자녀가 원해서()
 ㄹ.시간이 맞지 않아서() ㅁ.친구가 없어서() ㅂ.장성하면 돌아올 수 있기에()
 ㅅ.기타()
3. 주일날들은 설교말씀은 신앙경건훈련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ㄱ.대단히() ㄴ.보통() ㄷ.가끔() ㄹ.전혀() ㅁ.기타()
4. 교회는 부모들에게 신앙경건훈련을 위해 어느 정도 강조한다고 생각됩니까?
 ㄱ.대단히() ㄴ.보통() ㄷ.가끔() ㄹ.전혀() ㅁ.기타()
5. 교회는 자녀들에게 신앙경건훈련을 위한 교육 자료를 어느 정도 제공한다고 보십니까?
 ㄱ.대단히() ㄴ.보통() ㄷ.가끔() ㄹ.전혀() ㅁ.기타()
6. 앞으로 교회에서 자녀 신앙경건훈련 교재를 제공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예()/ 아니요()
7. 교회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한 부모교육을 하면 참석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8.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에 참여는 어느 정도합니까?
 ㄱ.매우 노력() ㄴ.노력하는 편() ㄷ.가끔() ㄹ.전혀()
9. 본인이 자녀를 바라보는 신앙의 대물림의 현재 만족도는?
 ㄱ.매우만족() ㄴ.만족() ㄷ.보통() ㄹ.보통이하() ㅁ.실망()
10. 본인이 교회에 오기를 가장 즐겨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ㄱ.예배() ㄴ.만남() ㄷ.봉사() ㄹ.성경공부() ㅁ.직분 때문()

2004. 7.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구파발교회 오을영 목사

부록 2

토라의 율법 목록에 대한 마이모니데스의 요약¹⁶¹⁾

주후 12세기에 활동한 유대 철학자요 해석가였던 마이모니데스(Maimonides)는 오경의 율법들에 대한 명확한 목록인 Sepher Mitzvot(계명들의 책)을 출판했다.¹⁶²⁾ 여기에서 마이모니데스는 오경 가운데 613 가지의 별개의 율법들을 열거하였다. 마이모니데스 이전에 오경의 율법들에 대한 전통적인 숫자는 611개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숫자는 '율법'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מצוות)의 gematria 수치와 같은 것이었다.¹⁶³⁾ 마이모니데스는 613이라고 하는 숫자를 전통적인 숫자 611에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라고 하는 명령으로서 십계명의 첫 번째 문장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출20:1)와 하나님은 한분이심을 믿으라는 명령으로서 셰마(신6:4)를 더하여 얻었다. 이러한 613개의 율법들로부터, 마이모니데스는 이전의 전통을 따라 249개의 적극적인 명령들과 365개의 소극적인 금지를 구별하였다. 그는 사람의 몸에 248개의 구별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의 적극적인 명령들에 순종할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으로, 또 일년은 365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은 매일의 나날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지 말아야 함을 기억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마이모니데스 이래로 율법에 대해 그가 계수한 613이란 숫자는 전통적인 숫자로 받아들여져 왔다. 마이모니데스의 율법 목록은 특별한 가치를 갖는데, 그것은 그것이 오경의 율법 모음 가운데 나타나는 원리들을 포괄적으로 언급하고자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마이모니데스의 목록으로부터 오경 가운데 나타나는 다양한 율법들 속에 표현된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을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를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우리가 부록에 마이모니데스의 율법 목록을 포함시키고자 한 것도 바보 이런 이유 때문이다. 마이모니데스가 성경 본문 속에서 발견되는 정확한 원리를 공식화하는 것보다 후대의 전통적인 율법을 정당화하는데 더 초점을 맞춘 경우, 우리는 그 율법을 후대의 율법보다 성경 본문에 언급된 표현으로 바꾸었다. 그런 경우 우리는 괄호 속에 마이모니데스의 해석을 포함시키고 그것을 'M'이란 표시를 하였다.

비록 오경 속에 있는 율법들의 의미에 대한 이러한 표현이 성경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전통(tradition)의 중요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어떤 특별한 신학적 혹은 해석학적 가치도 덧붙여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본문에 대한 주의 깊고 예민한 독법을 나타낸다.

이러한 주석의 한 부분으로서 그것의 가치는 오경의 율법들이 유대주의와 기독교의 도덕적 양심을 형성했고 또 할 수 있는 방식을 주는 실례들 가운데 놓여 있다.

161) Sail Hamer, *모세오경*, 하권, 부록.

162) Sepher Mitzvot, ed., *Mordecai J. Lev* (Jerusalem: Mossad Harav Kook, 1990). 율법들을 분류하기 위해 나는 "Commandments, the 613", in *Encyclopedia Judaica*에 의존했으며, 또 어떤 율법들을 해석하기 위하여는 Arias Montanus, *Liber Generationis et Regenerationis adam*(Antwerp, 15930)에 의존했다.

163) Gematria는 히브리어 자음에 수치를 할당함으로써 단어와 그것의 의미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세대를 통해 성경의 율법을 이해함에 있어 마이모니데스의 목록 속에 나타나는 특별한 진술들에 의해 근본적으로 영향을 받아왔다.¹⁶⁴⁾

우리는 예수님과 신약의 저자들이 이러한 원리들을 취한 실례들을 지적하였다. 그것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의도되지 않는다. 또 신약에 대한 언급들이 결코 완전한 것도 아니다. 더우기 우리는 각 경우에 토라로부터의 이러한 특별한 계명들이 필연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신약 저자들의 마음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것들을 세밀하게 읽을 때, 우리는 신약의 많은 도덕적 신학적 구조가 토라 안에 있는 모세의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명 령

A.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한 명령들

1. 출 20:1, 사람은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어야 한다 :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신 5:6)

- 히 11:6,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2. 신 6:4,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 롬 3:29,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3. 신 6:5,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 마 22:35-38,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4. 신 6:13,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 :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 마 10:28-29,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앓 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5. 출 23:25, 하나님을 경배하여야만 한다 :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참조 신 6:13,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11:13,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13:4, “그를 섬기며.”)

- 마 4:10,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64) 오경의 율법들에 대한 마이모니데스의 해석이 기독교 신학과 해석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Aaron L. Katchen, *Christian Hebraists and Dutch Rabbis: Seventeenth Century apologetics and the Study of Maimonides' Mishneh Torah*, Harvard University Center for Jewish Studies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84)를 참조하라.

6. 신 10:20,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 : “그에게 친근히 하고...”

- 고전 6:17,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7. 신 6:13,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한다 :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신 10:20 참조.)

8. 신 28:9,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 :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 엡 2:10,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9. 레 22:32,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 :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 벧전 3:15,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B. 토라를 연구하는 것과 관련한 명령들

10. 신 6:7, 매일 아침 셰마를 암송한다 : “너는 그것을 말할 것이요...”

11. 신 6:7, 토라를 가르쳐야 한다 : “너는 그것을 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 골 3:16,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12. 신 6:8, 이마에 **테필린**을 부착해야 한다 :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13. 신 6:8, 손에 **테필린**을 부착해야 한다 :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14. 민 15:38, 자기 옷에 술을 달야 한다 : “너희는 너희 옷 모퉁이에 술을 만들라.”

15. 신 6:9, 문에다가 **메주자**를 고정시켜야 한다 : “네 집 문설주에 기록할지니라.”

16. 신 31:12, 토라를 읽는 것을 듣기 위해 매 칠 년마다 모여야 한다 :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네 성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17. 신 17:18, 왕은 자신을 위하여 율법의 사본을 써야 한다.

18. 신 31:19, 각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토라의 사본을 기록해야 한다 :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19. 신 8:10, 음식을 먹은 후에 찬송을 하여야 한다 :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네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 눅 11:3, “우리게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C. 성전과 관련한 명령들

20. 출 25:8, 성전을 건축하여야만 한다 : “그들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을 것이요...”

21. 성전을 경외(즉 공경)하여야만 한다 : “내 성소를 공경하라.”

- 마 21:12,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22. 민 18:2, 제사장들은 항상 성전을 돌봐야 한다 : “너와 네 아들들은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것이니라.”

23. 민 18:23, 오직 레위인들 만이 성전에서 봉사해야 한다 :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24. 출 30:19,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예배드리기에 앞서 씻어야만 한다 :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25. 출 27:21, 제사장들은 성전의 촛대를 켜놓아야만 한다 :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감하게 하라.”

26. 민 6:23,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한다 :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27. 출 25:30, 제사장들은 진설병(임재의 떡)을 놓아야만 한다 :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28. 출 30:7, 제사장들은 그 금제단 위에서 향을 태워야만 한다 :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사를지며...”

29. 레 6:6(EVV 13), 단 위에서 불이 계속 타도록 하여야 한다 : “불은 끊이지 않고 단위에 피워 꺼지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30. 레 6:3(EVV 10), 제사장들의 매일 단으로부터 재를 치워야만 한다 : “제사장은 세마포 고의로 하체를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가리우고

단 위에서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31. 민 5:2 진으로부터 부정한 것을 제거하라 :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되.”

32. 레 21:8, 제사장들을 존귀히 여기라 :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네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이니라.”

33. 출 28:22, 제사장들은 특별한 옷을 입어야 한다 :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할지니.”

34. 민 7:9,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자신들의 어깨로 운반하여야 한다 :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그 어깨로 운반할 것이라.”

35. 출 30:31, 거룩한 기름이 준비되어야만 한다 :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36. 신 18:6-8, 제사장들은 교대로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만일 어떤 레위인이 어느 성읍으로부터 오면... 그는 여호와 앞에 봉사하는 모든 동료 레위인들처럼 그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으로 사역할 수 있다. 그는 그들의 음식을 똑같이 나눌 것이니라.”

37. 레 21:2-3, 제사장은 어떤 가까운 친척들로 인하여 더럽혀 질 수 있다 : “그들로 인하여 그가 더럽혀 질 수 있느니라.”

38. 레 21:13, 대제사장은 처녀와 결혼하여야 한다 : “그는 처녀를 취하여 아들을 삼을지니.”

D. 희생제사를 다루는 명령들

39. 민 28:3, 일년 된 두 마리의 어린 양이 매일 여호와께 드려져야 한다(타미드) :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일 년 되고 흠 없는 수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40. 레 6:13(EVV 20), 대제사장은 하루에 두 번씩 소제를 드려야 한다 :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예바 십분일을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41. 민 28:9, 매 안식일에 추가적인 제물이 드려져야 한다 : “일 년되고 흠 없는 수양 둘”

42. 민 28:11, 매월 추가적인 제물이 드려져야 한다 : “월삭에는... 여호와께 드리되”

43. 레 23:36, 유월절의 매 칠일 동안은 추가적인 헌물(musaf)이 드려져야 한다 : “칠일 동안은 너희가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44. 레 23:10, 니산월 제16일 곧 유월절 둘째 날에 곡식 한단을 제물로 드리라 : “너희는 곡식 단을 가져갈 것이요.”

45. 민 28:26-27, 단을 드리는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즉 칠칠절에는 추가적인 제물이 드려져야 한다 : “칠칠절 처음 열매 드리는 날에...”

46. 레 23:17, 요제로서 떡 두덩어리를 가져와야 한다 : “너희 처소에서 떡 두 덩이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47. 민 29:1-2, Ros Hashanah(티스리월 첫날)에는 추가적인 제물이 드려져야 한다 : “칠월에 이르러는 그 달 초일일에 성회로 모이고... 번제로 드릴 것이요.”

48. 민 29:7-8, 속죄일(티스리월 10일)에는 추가적인 제물이 드려져야 한다 : “칠월 십일에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49. 레 16:1 이하, 속죄일의 예배(아보다), 이 날의 모든 의무들은 하나의 명령으로 간주된다.

50. 민 29:13, 속곳(장막)절에는 추가적인 제물이 드려져야 한다 :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51. 민 29:36, 속곳(장막)절 제 8일에는 추가적인 제물이 드려져야 한다 :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52. 출 23:14, 일 년에 세 차례 성전에 순례 여행함 : “너는 매년 삼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53. 출 34:23, 사람은 매년 세 번씩 하나님 앞에 순례 여행을 하여야 한다 :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신 16:16 참조)

54. 신 16:14, 절기 동안 기뻐하여야 한다 : “절기를 지킬 동안은... 연락하되”

- 눅 13:10-17,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매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십팔 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때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55. 출 12:6, 사람들은 니산월 제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 한다 : “이 달 십사일에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칠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56. 출 12:8, 사람들은 니산월 제15일 밤에 불에 구운 유월절 어린 양을, 예컨대 한 집에서 무교병 및 쓴 나물과 함께 등 몇 가지 지침을 따라 먹어야 한다 :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57. 민 9:11, 첫 번째 유월절 양을 잡는 것이 금지된 사람은 두 번째 유월절 양을 잡아야 한다 : “이월 십사일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58. 민 9:11, 두 번째 유월절의 고기는 이아르월 15일 밤에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한다 : “어린 양에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59. 민 10:10, 나팔은 거룩한 시간에 제물과 함께 불려져야 한다 : “도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60. 레 22:27, 희생의 동물은 8일 혹은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칠일동안 그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61. 레 22:21, 희생제사의 짐승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 “열납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62. 레 2:13, 소제물에는 반드시 소금이 뿌려져야 한다 :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63. 레 1:2, 번제의 절차 : “저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64. 레 6:18(EVV 25), 속죄제의 절차 :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65. 레 7:1, 속건제의 절차 :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66. 레 3:1, 화목제의 절차 : “만일 사람이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린다면...”

67. 레 2:1, 소제의 절차 :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68. 레 4:13, 만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범죄하면 그들은 제물을 가져와야 한다 :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69. 레 4:27, 만일 어떤 개인이 무심코 범죄하면 그는 속죄제 물을 가져와야 한다 :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와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70. 레 5:17-18, 결정하기 어려운 속죄제물: “만일 어떤 사람이 범죄하거나 여호와와는 계명 가운데 금지된 어떤 것을 행하거든...”

71. 레 5:15, 여러 가지 죄를 위한 실제적인 속건제물 : “어떤 사람이 부지중에 죄와 위반을 범할 때...”

72. 레 5:1-11, 다양한 가격의 제물들,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73. 민 5:6-7,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고백과 회개 : “그 사람은 반드시 죄를 고백 할지니라.”

- 마 5:22-23,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 눅 19:8-9,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74. 레 15:13-15, 유출병으로부터 깨끗해진 사람의 제물 : “유출병 있는 자가 그 유출이 깨끗하여지거든... 제 팔일에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취하여...”

75. 레 15:28-29, 유출로부터 깨끗해진 여자의 제물 : “그녀의 유출이 그치면...”

76. 레 12:6, 출산 이후의 제물 : “자녀간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일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77. 레 14:10, 깨끗케 된 문둥병자의 제물 : “제 팔일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수양과... 취할 것이요.”

78. 레 27:32, 가축의 십일조 : “소나 양의 십분 일은...”

79. 출 13:2, 초태상(firstborn)을 성별할 것 :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80. 출 22:28(EVV 29), 장자의 구속 : “너의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며...”

81. 출 34:20, 나귀 첫 새끼에 대한 구속 :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82. 출 13:13, 만일 나귀가 구속되지 않는다면 그 나귀의 목을 꺾어야만 한다 :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83. 신 12:5, 제물로서 사용될 짐승들은 최초의 기회에 드려져야 한다 : “너희가 그곳에 와서 거기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요...”

84. 신 12:14, 제물은 오직 성전에서만 들여져야 한다 :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와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85. 신 12:26, 그 땅 밖으로부터의 제물들 역시 성전으로 가져가야 한다 : “오직 네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86. 신 12:15, 성별된 것이 더럽혀졌을 때 그것을 구속하는 것 :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네 마음에 즐기는 대로 생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87. 레 27:33, 제물로 바꾸어진 짐승은 거룩한다 :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88. 레 6:9(EVV 16), 제사장들은 소제의 나머지를 먹어야 한다 :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자손이 먹되...”

89. 출 29:33, 제사장들은 성별된 제물의 고기를 먹어야 한다 :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은 그들은 먹되...”

90. 레 7:19, 성별된 것이 더럽혀지면 그것은 불태워져야 한다 :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91. 레 7:17, 제 삼일까지 남겨진 것은 불태워져야 한다 : “그 희생의 고기가 제 삼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E. 서원(명세)을 다루는 명령들

92. 민 6:5, 나실인은 자기 머리가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93. 민 6:13, 나실인은 서원이 끝날 때에 머리를 깎고 제물을 가져와야 한다 :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민6:18 참조,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그 머리털을 밀고”)

94. 신 23:24(EVV23), 사람은 자기 말을 지켜야 한다 : “네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참조 신 30:3, 사람은 자기 말을 지켜야 한다 : “그의 입으

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따라 그는 행할 것이니라.”)

- 마 5:33-37, “또 옛 사람에게 말한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95. 민 30:3(EVV2), 서원을 깨뜨려서는 안된다 :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M. 오직 재판관만이 율법과 합치되게 맹세를 무효화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말을 깨뜨리지 말아야 한다” - 재판관은 자신의 말을 깨뜨릴 수 있음을 의미하면서.)

F. 의식적 정결을 다루는 명령들

96. 레 11:8,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다 : “너희는...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97. 레 11:29-31, 여덟 가지 유형의 기어다니는 짐승들은 부정하다 : “땅에 기는 바 기는것 중에 네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98. 레 11:34,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그것이 부정한 물건과 접촉되면 부정해진다 :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 질것이요 그 같은 그릇의 마실 만한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99. 레 15:19, 월경 가운데 있는 여인은 부정하다 :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유출이 피면 칠일 동안 불결하니...”

100. 레 12:2, 금방 아이를 낳은 여자는 부정하다 : “여인이 잉태하여... 를 낳으면”

101. 레 13:3, 문둥병자는 부정하다 : “이는 문둥병의 환처라.”

102. 레 13:51, 문둥병자의 옷은 부정하다 : “이는 악성 문둥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니...”

103. 레 14:44, 문둥병자의 집은 부정하다 :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104. 레 15:2, 유출병을 가진 사람은 부정하다 :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105. 레 15:16, 설정한 사람은 부정하다 :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 하리라.”

106. 레 15:19, 유출이 있는 여인은 부정하다 : “여자가 정기적인 피의 유출을 가지고 있을 때...”

107. 민 19:14, 시체는 부정하다 :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108. 레 19:13, 정결케하는 물의 준수 : “정결케 하는 물이 그 위에 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부정하다.” (참조. 레 19:21, “정결케 하는 물을 만진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라.”)

109. 레 15:16, 물로 씻는 규례 : “그는 물로 씻을 것이며...”

110. 레 14:2, 문둥병을 깨끗케하는 절차 : “문둥환자의 정결케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참조. 레 14:49, “집을 정결케하는 것.”)

111. 레 14:9, 문둥병자의 머리를 깎음 : “칠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112. 레 13:45, 문둥병자는 공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 “문둥병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113. 민 19:2-9, 붉은 암송아지의 절차 : “여호와와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G. 성전에 드리는 것을 다루는 명령들

114. 레 27:2-8, 개인의 가치와 동등한 것을 드리는 절차 :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115. 레 27:12, 짐승과 동등한 가치를 드리는 절차 : “제사장은 그 우열 간에 정가할지니...”

116. 레 27:14, 집의 가치와 동등한 것을 드리는 절차 : “사람이 자기 집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117. 레 27:16, 밭의 가치와 동등한 것을 드리는 절차 : “사람이 자기 기업 된 밭 얼마를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118. 레 5:16, 책임을 게을리 한 것에 대하여 성전에 드려야 할 배상 : “그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반드시 배상을 하여야만 한다.”

119. 레 19:24, 넷째 해의 열매는 여호와께 거룩하다 : “제 사 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120. 레 19:9, 밭의 모퉁이를 남겨두어야 한다 :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121. 레 19:9, 밭의 떨어진 이삭을 남겨두어야 한다 :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122. 신 24:19, 떨어진 이삭은 그대로 두어야 한다 :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뭉치를 밭에 잊어버렸거든...”

123. 레 19:10,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일부 남겨 두어야 한다 : “너의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며.”

124. 레 19:10, 떨어진 포도를 주워서는 안 된다 :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125. 출 23:19, 첫 열매를 성전에 가져오라 :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전에 드릴지니라.”

- 약 1:18,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계14:4참조)

126. 신 18:4, 거제를 가져오라 : “또 나의 처음 된 곡식을 너는 그에게 줄 것이니라.”

127. 레 27:30, 그 땅의 소산의 십일조를 레위인들에게 주라 : “그 땅의 모든 십일조는 여호와께 속한다.” (참조 민 18:24, “내가 레위인들에게 기업으로서 십일조를 주노라.”)

- 마 23:23,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28. 신 14:22, 두 번째 십일조 :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소산의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

129. 민 18:26, 레위인은 제사장에게 십일조를 주어야 한다 : “너는 레위인에게 고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십일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에.”

130. 신 14:28, 세 번째 해와 여섯 번째 해의 가난한 자들을 위한 십일조 : “매 삼년 끝에 그 해 소산의 십분 일을 다 내어...”

131. 신 26:13, 십일조와 함께... 선언되어야 한다 : “그리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고하기를...”

132. 신 26:5, 첫 열매를 드림과 함께... 선언되어야 한다 : “너는 또 네 하나님 여

호와 앞에 아뢰기를...”

133. 민 15:20, 첫 번째 반죽으로 드리는 제물 :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우 떡을... 드리라.”

H. 안식년을 다루는 명령들

134. 출 23:11, 일곱째 해에 그 땅은 모든 사람들에게 속한다 : “제 칠년에는 갈지 말고 묵혀 두어서...”

135. 출 34:21, 일곱째 해에 땅은 묵힌 채로 두어야 한다 : “밭갈 때나 거들 때도 쉴지며...”

136. 레 25:10, 50번째 해를 성별하라 : “제 오십년을 거룩하게 하여...”

137. 레 25:9, 히브리 종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욥 키푸르에 쇼파르를 불 것 : “너는 나팔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138. 레 25:24, 50번째 해에는 재산이 반환되어야 한다 :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139. 레 25:29-30, 성벽으로 둘러진 도시에서 팔려진 재산에 대한 기업 무르기 :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140. 레 25:8, 희년의 연수를 계수할 것(50번째 해) :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141. 신 15:3, 모든 빚의 면제 : “네 형제에게 꾸인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142. 신 15:3, 이방인에게 준 빚은 독촉될 수 있다 :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I. 짐승을 잡는 것을 다루는 명령들

143. 제물에 대한 제사장의 몫 :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음식은 이러하니...”

144. 신 18:4, 제사장들을 위한 처음 깎은 양털 : “너희 처음 깎은 양털을 네가 그에게 줄 것이니...”

145. 레 27:28, 헤렘(특별한 맹세)의 특징 :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모든 것은...”

146. 신 12:21, 짐승을 잡는 것 : “너는 여호와와 주신 우양을 잡아...”

147. 레 17:13, 동물과 새의 피를 흠으로 덮음 : “그 피를 흘리고 흠으로 덮을지니라.”

148. 신 22:7, 등지를 자유케하는 규례 : “어미는 반드시 놓아 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149. 레 11:2, 짐승이 먹을만한지 조사하라 : “너희가 먹을 짐승들은 이러하니라.”

150. 신 14:11, 먹을 수 있는 새를 조사하는 것 :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151. 레 11:21, 메뚜기 종류가 먹을만한지 조사하라 :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152. 레 11:9, 물고기가 먹을만한지 조사하라 :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153. 출 12:2,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 해의 달들을 성별하고 계산하라 :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J. 절기들을 다루는 명령들

154. 출 23:12, 안식일에는 쉬라 : “제 칠일에는 쉬라.”

-막 2:27,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은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155. 출 20:8, 안식일은 성별하라 :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156. 출 12:15, 모든 누룩을 제거하라(니산월 제 14일에) :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157. 출 13:8, 출애굽의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라 : “너희는 그날에 너희 아들에게 선언할 것이라.”

-고전 10:1-6,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키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58. 출 12:18, 니산월 제 15일 밤에 무교병을 먹으라 : “저녁에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159. 출 12:16, 유월절의 첫째 날에 쉬어라 :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160. 출 12:16, 유월절에 일곱째 날에 쉬어라 : “제 칠일에도 성회가 되린...”

161. 레 23:15, 첫 단을 거둔 때로부터 49일을 계수하라 : “안식일 이튿날로부터 세어서 칠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162. 레 23:15, 성일들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 :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 히 4:1-3,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163. 레 23:24,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칠월 곧 그 달 일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티스리월 첫째 날(Rosh Hashanah)에는 쉬라 : “칠 월 곧 그 달 인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164. 레 16:29, 티스리월 제 십일(욥 키푸르)의 금식 : “칠월 곧 그 달 십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하고.”

165. 레 16:29, 티스리월 제 십일(욥 키푸르)의 안식 : “아무일도 하지 말되...”(레 16:31 참조,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166. 레 23:35, 초막절 첫 날은 쉬라 :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167. 레 23:36, 장막절 제 팔일에는 쉬라 : “제 팔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168. 레 23:42, 장막절에는 칠일 동안 초막에서 거하라 : “너희는 칠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169. 레 23:40, 열매를 취하여 칠일 동안 즐거워하라 :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170. 민 29:1, 티스리월 첫날(Rosh Hashanah)에는 “쇼파르”를 들어야 한다 :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K. 공동체 내에서의 질서를 다루는 명령들

171. 출 30:12-13, 사람은 매년 반 세겔 씩 성전에 드려야만 한다 :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172. 신 18:19, 선지자에게 순종하라 :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눅 16:31,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173. 왕의 임명 : “너는 네 위에 왕을 세울 것이라.”

- 계 19:11-16,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령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174. 신 7:11,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 :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법률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고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행4:19,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175. 출 23:2, 다수를 따라 정의를 왜곡시키지 말라 :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 마 27:24,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민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176. 신 16:18, 재판장과 유사들에 대한 임명 :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177. 레 19:15, 재판관은 공평해야 한다 : “너희는 공의로 재판할지며.”

- 약 2:9,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 딤후 5:21,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지 하지 말며.”

178. 레 5:1, 증인은 증언하여야만 한다 :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며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 마 26:57-75,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찌기 예수를 좇아... 저<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 약 4:17,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지 아니하면 죄니라.”

179. 신 13:15(EVV 14), 증인은 면밀히 검증되어야 한다 : “너는 자세히 묻고 살

펴보아서...”

- 요 7:52,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 하느니라 하였더라.”

180. 신 19:19, 거짓된 증인은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181. 시 21:4, 송아지 목을 부러뜨리는 의식 :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 목을 꺾을 것이요.”

182. 신 19:3, 여섯 개의 도피성 : “그 도로를 닦고...”

183. 민 35:2, 레위인의 도시들 :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184. 신 22:8, 너의 거처로부터 위험을 제거하라 : “네가 새집을 건축할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L. 우상숭배와 관련한 명령들

185. 신 12:2, 너희들 가운데 우상숭배를 버리라 :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 고전 10:14,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 하는 일을 피하라.”

186. 신 13:17(EVV 16), 우상숭배 하는 도시를 멸망시키라 : “그 성읍을 불로 사르라.”

187. 신 20:17, 가나안 일곱 나라들에 대한 파괴 : “그들을 완전히 파괴하라.”

188. 신 25:19,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없애라 :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도 말할지니라.”

189. 신 25:17,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M. 전쟁을 다루는 명령들

190. 신 20:12, 나머지 나라들과의 전쟁 절차 :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191. 신 20:2,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전쟁에 대해 가르쳐야한다 :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192. 신 23:13, 군대 진의 위생시설 : “너희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지요.”

193. 신 23:13, 군사들은 필요한 장비를 가져야만 한다 : “너희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지요.”

N. 사회구조를 다루는 명령들

194. 레 5:23(EV 6:4), 훔친 물건은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 : “그는 훔친 물건을 돌려보내되...”

195. 신 15:8, 가난 한자에게 주어라 :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 마 19:21,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196. 신 15:14, 자유로운 히브리 종에게는 필요한 것이 풍족히 주어져야 한다 : “그에게 후히 즐지니...”

197. 출 22:24(EVV 25), 가난한 자에게 이자 없이 빌려주라 : “네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198. 신 23:21(EVV 2), 타국인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 주는 것 : “타국인에게 네가 꾸이면 이식을 취하여도 가하거니와...”

199. 신 24:10, 만일 그 주인이 피로 하거든 전당물을 그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 “네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집물을 취하지 말고.”

200. 신 24:15, 일꾼에게 임금을 제시간에 주어라 : “그 품삷을 당일에 주고...”

- 마 10:10,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201. 신 23:25-26(EVV 24-25), 일꾼은 일하는 동안 소산을 먹는 것이 허락 된다 :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 마 12:1, “그 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제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202. 출 23:5, 너는 지나치게 많은 짐을 진 나귀를 도와야 한다 :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옆드러짐을 보거든”

- 눅 14:5, “또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니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203. 신 22:4 너는 사람이나 짐승이 짐을 지는 것을 도와야만 한다 : “네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 마 12:11,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는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204. 신 22:1, 잃어버린 짐승을 그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네 형제의 우양의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체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려줘요.”

205. 레 19:17, 너희는 죄인으로 하여금 올바른 사람이 되게 해야 한다 :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 딤후 1:13,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하고.”

206. 레 19:18, 너희는 다른 사람을 너희 자신처럼 사랑하여야 한다 :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 갈 5:14, “온 불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207. 신 10:19, 나그네를 사랑해야 한다 :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 벧전 4:9,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208. 레 19:36, 정확한 자와 척도를 사용하여야만 한다 :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힘을 사용하라.”

○. 가족과 관련한 명령들

209. 레 19:32, 지혜로운 자를 공경하여야만 한다 : “너는 쉰 머리 앞에 일어서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 딤후 5:1,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210. 출 20:12,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여야 한다 :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 마 15:3-4,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도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훼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 엡 6:2,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211. 레 19:3,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야 한다 :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 엡 (5:21)6:1,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212. 창 1:28, 생육하고 번성해야 한다 : “생육하고 번성하라.”

- 행 17:26,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213. 신 24:1, 율법에 따라 결혼해야 한다 : “사람이 아내를 취할 때...”

- 마 19:4-5,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보내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214. 신 24:5, 너희는 일년동안 새로운 신부와 함께 거해야만 한다 :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 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말 것이며...”

215. 창 17:10, 할례 :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라.”

216. 신 25:5, 형수취수제 결혼 :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217. 신 25:9, Halitah(형제의 신을 벗기는 것) :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218. 신 22:29, 처녀는 범한 자는 그녀와 결혼해야 한다 : “그 통간한 남자는... 그 처녀로 아내를 삼을 것이라.”

219. 신 22:18-19, 자기 아내를 불공정하게 고소한 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벌금을 받아...”

220. 출 22:15-23(EVV 16-24), 유혹자는 반드시 징벌 받아야 한다 :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꺾어...”

221. 신 21:11, 여자 포로를 다루는 규례 :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222. 신 24:1, 이혼증서 : “이혼증서를 써서...”

223. 민 5:15-27, 간음의 의혹을 받는 여인을 시험하는 것 : “그는 자기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갈 것이라.”

P. 율법 집행을 다루는 명령들

224. 신 25:2, 태형 :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 행 23:3,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225. 민 35:25, 우연히 사람을 죽인 자는 추방하여야 한다 :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226. 출 21:20, 사형 : “그에게 보복이 가해져야 한다.”
- 마 5:21,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227. 출 21:16,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형 :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228. 레 20:14, 극형 :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지니”

229. 신 22:24, 극형 :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도로 쳐 죽일 것이니...”

230. 신 21:22, 사형단한 자의 육체를 다루는 규례 : “사람이 만일 죽을죄를 범하므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231. 신 21:23, 나무에 달린 사람은 죽임을 당한 당일에 매장되어야 한다 :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Q. 종을 다루는 것과 관련한 명령들

232. 출 21:2, 히브리 종들을 다룸에 대하여 : “만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233. 출 21:8, 주인은 자신의 여자 히브리 종과 결혼해야 한다 : “자신을 위하여 여종을 지명한 그녀의 주인은...”

234. 출 21:8, 주인은 자신의 여자 히브리 종을 구속해야만 한다 : “주인은 여종이 구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235. 레 25:46, 이방인 종을 다룸 :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R. 일반적인 명령들

236. 출 21:18, 사람에 의해 야기된 상해 :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237. 출 21:28, 동물에 의해 야기된 상해 : “만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238. 출 21:33-34, 구덩이로 인해 야기된 상해 :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덮지 아니함으로...”

239. 출 21:37-22:3(EVV22:1-4), 도둑에 대한 징벌 : “만일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면...”

240. 출 22:4(EVV 5), 침범에 대한 징벌 : “만일 사람이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241. 출 22:5(EVV6), 방화에 대한 징벌 : “만일 불이 나서”

242. 출 22:6-8(EVV 7-8), 물건을 훔친 보관인에 대한 징벌 : “만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243. 출 22:9-12(EVV 10-13), 물건을 훔친 보관인에 대한 징벌 :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244. 출 22:13(EVV 14), 빌린 물건을 잃어버린 경우의 징벌 : “만일 이웃에게 빌려 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245. 레 23:14, 매매를 수반하는 판결들 : “네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게 사거든...”

246. 출 22:8(EVV 9), 모든 종류의 물품과 관련한 판결들 : “모든 경우의 불법적인 소유에 있어...”

247. 신 25:12, 어떤 희생을 치루고 라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구해야 한다 :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짚어 버릴 것이고 네 눈이 그를 불쌍히 보지 말지니라.”

248. 민 27:8, 기업을 수반하는 판결 :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금 지

A. 우상숭배 및 거짓 종교와 관련한 금지들

1. 출 20:3, 사람은 다른 신의 존재를 믿어서는 안된다 : “너는 나 외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2. 출 20:4, 사람은 예배를 위한 형상들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행 15:20,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 하는 것이 가하니.”

-요 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3. 레 19:4,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4. 출 20:23, 사람은 나무나 돌로부터 살아있는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 “은이나 금으로 신을 만들지 말라.”

5. 출 20:5, 사람은 우상에게 절하여서는 안된다 :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6. 출 20:5, 사람은 우상을 섬겨서는 안된다 :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7. 레 18:21,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서는 안된다 :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케 말아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8. 레 19:31, 강신술을 행하여서는 안된다 : “너희는 신접한 자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9. 레 19:31, 다른 영들에게 물어서는 안된다 : “박수를 믿지 말며.”

10. 레 19:4, 우상숭배를 따라서는 안된다 : “우상숭배로 돌이키지 말라.”

11. 신 16:22, 기둥을 세워서 안된다 :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12. 레 26:1, 우상숭배를 위하여 돌을 세워서 안된다 :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13. 신 16:21, 성전 안에 나무를 세워서 안된다 :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곁에 아무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14. 출 23:13, 사람은 우상으로 맹세해서는 안된다 :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15. 출 23:13,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우상을 따르도록 설득하고자 해서는 안된다 : “네 입에서 돌리게도 말지니라.”

16. 신 13:12(EVV 11), 다른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여금 우상을 따르도록 설득하고자 해서는 안 된다 :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17. 신 13:9(EVV 8),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우상을 따르도록 추구하는 자를 동경하지 말라 : “그를 좇지 말라.”

18. 신 13:9(EVV 8),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우상을 따르도록 추구하는 자를 듣지 말라 : “그를 듣지 말라.”

19. 신 13:9(EVV 8),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우상을 따르도록 추구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 : “그를 긍휼히 보지 말라.”

20. 신 13:9(EVV 8),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우상을 따르도록 추구하는 자를 용서

해서는 안 된다 : “그를 애석히 여기지 말라.”

21. 신 13:9(EVV 8),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우상을 따르도록 추구하는 자를 숨겨 주어서는 안 된다 : “그를 숨겨주지 말라.”

22. 신 7:25, 우상을 만드는데 사용된 값비싼 재료를 탐내서는 안 된다 :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금이나 은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23. 신 13:17(EVV 16),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무너진 것을 다시 건축하여서는 안 된다 : “그 성읍은 영영히 무더기가 되어 다시는 건축됨이 없을 것이니라.”

24. 신 13:18(EVV 17),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무너진 것으로부터 부를 얻어서는 안 된다 :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네 손에 대지 말라.”

25. 신 7:26, 우상숭배와 관련된 물건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너는 가증한 것을 네 집에 들이지 말라.”

26. 신 18:20, 우상의 이름으로 예언해서는 안 된다 : “어떤 선지자가 만일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27. 신 18:20, 거짓되이 예언하여서는 안 된다 :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28. 신 13:3-4(EVV 2-3),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 “너는 선지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29. 신 18:22, 거짓 선지자의 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30. 레 20:23, 우상숭배자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 :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좇지 말라.”

31. 레 19:20, 점술(궼)을 행하여서는 안 된다 : “복술을 하지 말며.”

32. 신 18:10, 앞날을 예언(soothsaying)하여서는 안 된다 : “길흉을 말하는 자를... 너희 중에 용납 하지 말라.”

33. 신 18:10-11, 점(mo)을 쳐서는 안 된다 : “복술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레19:26)

34. 신 18:10-11, 마술(sorcery)을 행하여서는 안 된다 : “요술하는 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35. 신 18:10-11, 마력(charms)을 행하여서는 안된다 : “무당을....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36. 신 18:10-11, 영들과의 교제(consult spirits)를 행하여서는 안된다 : “신접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37. 신 18:10-11, 친숙한 영들과의 교제(consult familiar spirits)를 행하여서는 안된다 : “박수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38. 신 18:10-11, 강신술(necromancy)을 행하여서는 안된다 :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39. 신 22:5,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어서는 안된다 :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40. 신 22:5,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어서는 안된다 :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고전 11:14-15,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연고니라.”

41. 레 19:28, 스스로 문신을 하여서는 안된다 :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42. 신 22:11, 양털과 베실을 혼합하여 만든 옷을 입어서는 안된다 : “양털과 베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43. 레 19:27, 네 머리 주위의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된다 : “머리 가를 등글게 깎지 말며.”

44. 레 19:27, 자신의 수염을 잘라서는 안된다 : “수염 끝을 손상치 말며.”

45. 신 14:1,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아야 한다 :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B. 역사적 사건들과 관련한 금지들

46. 신 17:16,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 :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47. 민 15:39, 불결한 생각과 시각을 가져서는 안된다 : “너희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름으로써 스스로를 더럽게 하지 말라.”

-마 5:28,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 하였느니라”

48. 출 23:32, 사람은 가나안 사람들과 더불어 언약을 하여서는 안된다 : “너는 그들과 언약하지 말라.”

49. 신 20:16, 가나안 족속들의 생명은 살려두어서는 안된다 : “호홉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 것이며...”

50. 신 7:2, 우상숭배자들에 대해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된다 : “그들을 붙잡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51. 출 23:33, 사람은 우상 숭배자들을 그 땅에서 살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52. 신 7:3, 우상숭배자들과 통혼하여서는 안된다 :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53. 신 23:4(EVV 3), 이스라엘 여인으로 하여금 암몬 족속이나 모압 족속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된다 :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와 동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54. 신 23:8(EVV 7), 에서의 씨와 인연을 끊어서는 안된다 :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55. 신 23:8(EVV 7), 애굽 사람과 인연을 끊어서는 안된다 :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56. 신 23:7(EVV 6), 암몬 족속이나 모압 족속과 평화의 약정을 맺어서는 안된다 :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57. 신 20:19, 전쟁 중 열매 맺는 나무를 파괴해서는 안된다 :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작별하지 말라.”

58. 신 7:21, 원수를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59. 신 25:19, 아말렉 족속에 의해 행해진 악을 잊어버려서는 안된다 :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 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C. 신성모독과 관련한 금지들

60. 레 24:16,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여서는 안된다 :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훼방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

- 마 12:3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61. 레 19:12, 하나님을 이름으로 한 맹세를 깨뜨려서는 안된다 :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62. 출 20:7,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여서는 안된다 :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63. 레 22:32, 사람은 주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된다 :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64. 신 6:14, 여호와를 시험해서는 안된다 : “네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치 말라.”

65. 신 12:4, 예배처소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서는 안된다 :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이처럼 행하지 말고...”

66. 신 21:23, 육체를 밤새도록 나무 위에 달려있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 “그 시체를 나무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D. 성전과 관련한 금지들

67. 민 18:5, 성전을 돌봄에 있어 게을러서는 안된다 : “레위인과 너는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지킬 것이요.”

68. 레 16:2, 대제사장은 자의적으로 성소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69. 레 21:23, 육체에 흠을 가진 제사장은 성전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 “장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70. 레 21:17, 육체에 흠을 가진 제사장은 성전에서 섬길 수 없다 : “무릇 너의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나아오지 못할 것이라.”

71. 레 21:18, 일시적으로 육체에 흠을 가진 제사장은 그 흠이 지나갈 때까지 성전에서 섬겨서는 안된다 :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72. 민 18:3, 제사장과 레위인은 각자 상대방의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 “레위인은 네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단에는 가까이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73. 레 10:9-11, 술취한 상태에서 성전에 들어가서는 (M. 율법을 가르쳐서는) 안된다 :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74. 민 18:4, 외인들은 성전에서 봉사할 수 없다 : “외인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75. 레 22:2, 부정한 제사장은 성전에서 섬겨서는 안된다 :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76. 레 21:6,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된다 :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77. 민 5:3, 부정한 자는 진에 들어올 수 없다 : “무론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M.은 ‘진’을 ‘하나님의 임재의 진’ 곧 성전으로 읽는다. 그렇다면 이 율법은 금지 #78, 신 23:11<EVV10>과는 다른 것이다.)

78. 신 23:10, 부정한 사람은 진에 남아 있어서는 안된다 :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나 진 밖으로 나가고 진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79. 출 20:25, 사람은 작은 돌로 제단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80. 출 20:26, 층계가 있는 제단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 “너는 층계로 내 단을 오르지 말라.”

81. 레 6:6(EVV 13), 단 위에 있는 불은 꺼져서는 안된다 :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82. 출 30:9, 성전의 바로 이 금제단 위에서는 오직 전술한 향만이 태워져야 한다 :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83. 출 30:32, 사람은 그와 같은 기름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84. 출 30:32, 그러한 기름은 오직 대제사장과 왕을 위한 것이다 :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85. 출 30:37, 사람들은 제단을 위한 향과 같은 다른 향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86. 출 25:15, 언약계로부터 그 장대들을 제거해서는 안된다 : “채를 궤의 고리에 꿰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87. 출 28:28, 에봇으로부터 흉패가 떨어져서는 안된다 :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공교히 짠 에봇띠에 붙여 떠나지 않게 하라.”

88. 출 28:32, 대제사장의 옷은 찢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그 주위에 갑옷 깃 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E. 희생제사와 관련한 금지들

89. 신 12:13, 성전 이외의 다른 장에서 희생을 드려서는 안된다 :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90. 레 17:3-4, 누구든지 성전 밖에서 짐승을 잡아서는 안된다 : “무릇 이스라엘 집의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안에서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와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91. 레 22:20, 흠있는 짐승을 성별하여서는 안된다 : “무릇 흠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것은 그것이 열납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92. 레 22:22, 흠있는 짐승을 희생제물로 드려서는 안된다 : “눈 먼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93. 레 22:24, 흠있는 짐승 위에 피를 뿌려서는 안된다 : “너희는 불알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베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94. 레 22:22, 흠있는 짐승을 부로 태워서는 안된다 : “흠있는 것을 너희는 단 위에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95. 신 17:1, 여호와께 흠있는 짐승을 희생제물로 드려서는 안된다(M.은 이것을 일시적인 흠으로 받아들인다) : “무릇 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96. 레 22:25, 외국인에 의해 드려진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드려서는 안된다 : “너희는 외국인에게 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식물로 드리지 말라.”

97. 레 22:21, 희생제사로 드려지는 짐승에 흠을 야기시켜서는 안된다 :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98. 레 2:11, 제단에 누룩이나 꿀을 드려서는 안된다 :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99. 레 2:13, 제단에 소금을 뿌리지 않은 것을 드려서는 안된다 : “네 모든 소제

물에 소금을 치라.”

100. 신 23:19(EVV 18), 창기의 값으로나 개의 값으로 받은 짐승을 드러서는 안 된다 : “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들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101. 레 22:28, 어떤 짐승과 그 새끼를 같은 날 잡아서는 안된다 : “암소나 암양을 무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동일에 잡지 말지니라.”

102. 레 5:11, 속죄제에 감람유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103. 레 5:11, 속죄제에 향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104. 민 5:15, 질투의 제물로서 감람유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그것에 기름을 붓지 말고...”

105. 민 5:15, 질투의 제물로서 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그 유향도 두지 말라.”

106. 레 27:10, 희생제물을 바꾸어서는 안된다 : “그것을 변개하여 우열 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107. 레 27:26, 사람은 한 가지 범주의 제물을 다른 것으로 대체 할 수 없다 : “우양을 물론하고 여호와와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108. 민 18:17, 정결한 짐승의 첫 새끼는 구속할 필요가 없다 : “오직 소의 처음 난 것이나 양의 처음 난 것이나 염소의 처음 난 것은 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 족...”

109. 레 27:32, 짐승의 십일조를 팔아서는 안된다 : “소나 양의 십분 일은... 여호와와 거룩한 것이 되리니.”

110. 레 27:28, 헌신된 물건을 팔아서는 안된다 : “팔지도 못하고...”

111. 레 27:28, 헌신된 물건을 물러서는 안된다 : “속하지도 못할지니...”

112. 레 5:8, 제물로 드리는 새의 머리를 끊어내서는 안된다 :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되 아주 끊어내지는 말지며...”

113. 신 15:19, 성별된 짐승에게 일을 시켜서는 안된다 : “네 소의 첫 새끼는 부

리지 말고...”

114. 신 15:19, 성별된 짐승의 털을 깎아서는 안된다 : “네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115. 유월절 어린 양을 누룩과 함께 잡아서는 안된다 :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116. 출 23:18, 사람은 제물의 기름부위를 밤새도록 남겨두어서는 안된다 : “내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117. 출 12:10,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는 아침까지 남겨서는 안된다 :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118. 신 16:4 제14일에 드려진 “샤기가”(절기제물)의 어떤 부분도 셋째 날까지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 : “또 네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119. 민 9:13(EVV 12), 두 번째 유월절 양의 어떠한 부분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된다 :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 두지 말며...”

120. 레 22:30, 감사제물의 어떤 부분도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된다 : “제물은 당일 에 먹고 이날까지 두지 말라.”

121. 출 12:46, 사람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어서는 안된다 : “뼈도 꺾지 말지며...”

122. 민 9:12, 두 번째 유월절 양의 뼈를 꺾어서는 안된다 :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123. 출 12:46, 사람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던 집밖으로 옮겨서는 안된다 :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며...”

124. 레 6:10(EVV 17), 소제물의 나머지에 누룩이 첨가되어서는 안된다 :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125. 출 12:9, 사람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날 것으로나 혹은 삶아 먹어서는 안된다 :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126. 출 12:45, 거류인에게 유월절 먹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127. 출 12:48,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유월절을 먹는 것이 허락되어서는 안된다 :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와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128. 출 12:43, 이방인에게 유월절은 먹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129. 레 12:4, 부정한 사람은 성물을 먹어서는 안된다 :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130. 레 7:19, 거룩한 것이 부정해 진 것을 먹어서는 안된다 :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하게 되었으면 먹지 말고...”

131. 레 19:6-8, 기한이 지난 남겨진 제물을 먹어서는 안된다 :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제 삼일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제 삼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열납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와 성물 더럽힘을 인하여 죄를 당하리니.”

132. 레 7:18, 제 3일에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된다 :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 삼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열납 되지 않을 것이라.”

133. 레 22:10,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제물을 먹을 수 없다 : “제사장의 가족 밖에 있는 사람은 거룩한 제물을 먹을 수 없다.”

134. 레 22:10, 제사장의 객이나 고용된 일꾼은 제물을 먹을 수 없다 :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은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135. 레 22:10,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제물을 먹어서는 안된다 : 이것은 토라에 명시적으로 언급 되어있지는 않으나 논리적으로 유추되는 사실이다. 우리는 완전성을 위하여 그것을 여기에 포함시켰다.

136. 레 22:4, 부정한 제사장은 제물을 먹어서는 안된다 : “아론의 자손 중 문둥병자나 유출병이 있는 자는 정하기 전에는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137. 레 22:12, 제사장이 아닌 사람과 결혼 한 제사장의 딸은 거룩한 제물(성물)을 먹을 수 없다 : “제사장의 딸이 제사장 아닌 사람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138. 레 6:16(EVV 23), 제사장의 소제물은 먹어서는 안된다 : “무릇 제사장의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139. 레 6:23(EVV 30), 속죄제의 고기는 먹어서는 안된다 :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름지니라.”

140. 신 14:3, 더러워진 것으로 구별 된 짐승들 : “너는 가증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141. 신 12:17, 예루살렘 밖에서 곡식의 두 번째 십일조를 먹어서는 안된다 : “너는 곡식의 십일조를 너의 각 성에서 먹지 말라.”

142. 신 12:17, 예루살렘 밖에서 포도주의 두 번째 십일조를 소비해서는 안된다 : “너는 포도주의 십일조를 너의 각 성에서 먹지 말라.”

143. 신 12:17, 예루살렘 밖에서 기름의 두 번째 십일조를 소비해서는 안된다 : “너는 기름의 십일조를 너의 각 성에서 먹지 말라.”

144. 신 12:17, 예루살렘 밖에서 처음 낳은 덩의 두 번째 십일조를 먹어서는 안된다 : “너는 처음 낳은 덩의 십일조를 너의 각 성에서 먹지 말라.”

145. 신 12:17, 제사장들은 성전 밖에서(즉, 너의 각 성에서)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을 먹어서는 안된다 : “너는 너의 각 성에서 소떼와 양떼의 처음 나온 것을 먹어서는 안된다: “너는 너의 각 성에서 소떼와 양 떼의 처음 낳은 것을 먹어서는 안된다.” (M.은 “소떼와 양떼”가 성경에서 오직 속죄제물과 속건제물과 관련하여 언급되는 사실로부터 이러한 생각을 끌어낸다.)

146. 신 12:17, 제사장은 번제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된다 : “너는 너의 각 성에서... 네가 주기로 서원한 것을 먹어서는 안된다.” (M.은 서원으로부터 번제를 끌어낸다.)

147. 신 12:17, 제사장은 피가 흘러지기 전의 희생제물을 먹어서는 안된다 : “너는 너의 각 성에... 너의 낙헌제물을 먹어서는 안된다.” (M.은 ‘낙헌제’로부터 ‘피가 흘러지기 전에’를 끌어낸다.)

148. 출 29:33,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거룩한 제물을 먹어서는 안된다 :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이는 성물이 됨이며...”

149. 신 12:17, 제사장은 성전 밖에서 처음 낳은 것을 먹어서는 안된다 : “너는 너의 각 성에서... 특별한 선물들을 먹어서는 안된다.” (M.은 ‘특별한 선물들’로부터 ‘처음 낳은 것’을 끌어낸다.)

150. 신 26:14, 부정한 상태에 있을 동안에는 두 번째 십일조를 먹어서는 안된다 :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151. 신 26:14, 애곡하는 동안에는 두 번째 십일조를 먹어서는 안된다 :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152 신 26:14 먹고 마시는 것 이외에 어떤 것을 사기 위해 십일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죽은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153 레 22:15 제사장은 백성들이 드린 성물을 더럽게 하여서는 안된다 :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더럽히지 말지니.”

154 출 22:28(EVV 29), 사람은 십일조를 떼어놓는 순서를 바꾸어서는 안된다 :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

155 신 23:22(EVV 21), 제물을 드리는 것을 지체하여서는 안된다 :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156 출 23:15, 사람은 제물을 가지지 않고 순례여행을 해서는 안된다 :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157 민 30:3(EVV 2), 사람은 자신의 말을 깨뜨려서는 안된다 : “그는 자신의 말은 깨뜨려서는 안된다.”

F. 제사장과 관련한 금지들

158 레 21:7, 제사장은 창녀와 결혼해서는 안된다 : “그들은 기생을 취하지 말 것이며.”

159 레 21:7, 제사장은 더럽혀진 여인과 결혼하여서는 안된다 : “그들은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160 레 21:7, 제사장은 이혼한 여인과 결혼하여서는 안된다 : “이혼 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161 레 21:14, 제사장은 과부와 결혼하여서는 안된다 : “그는 과부와 결혼하지 말 것이요.”

162 레 21:15, 제사장들은 과부를 첩으로 취하여서는 안된다 : “이렇게 하여 그 자손으로 백성 중에 더럽히지 말지니.”

163 레 10:6, 제사장들은 풀어진 머리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 “너희는 머리를 풀지 말라.”

164 레 10:6, 제사장들은 찢어진 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 “너희는 옷을 찢지 말라.”

165 레 10:7, 제사장들은 성전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성전 뜰을 떠나서는 안된다 : “너희는 회막 문에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166. 레 21:1, 제사장은 죽은 자로 인하여 더럽혀져서는 안된다 : “제사장은 백성 중의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167. 레 21:11, 대제사장은 어떤 이유로도 더럽혀져서는 안된다 : “그는 시체가 있는 장소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168. 레 21:11, 대제사장은 어떤 방식으로든 더럽혀져서는 안된다 : “그는 스스로를 더럽혀지게 하지 말지니 부모로 인하여도 더러워지게 말며.”

169. 신 18:1, 레위지파는 땅을 나눔에 있어 기업을 갖지 말아야 한다 :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170. 신 18:1, 레위지파는 전쟁의 탈취물을 나누는데 참여하여서는 안된다 :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171. 신 14:1, 죽은 자를 위하여 머리를 밀지 말아야 한다 : “죽은 자를 위하여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을 밀지 말라.”

G. 음식과 관련한 금지들

172. 신 14:7, 부정한 짐승을 먹어서는 안된다 : “이것이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라...”

173. 레 11:11, 부정한 물고기를 먹지 말라 :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174. 레 11:13, 부정한 날짐승을 먹지 말라 :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 이 가증한 족 먹지 말리니...”

175. 신 14:19,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서 먹어서는 안된다 : “또 무릇 날기도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176. 레 11:41, 땅에 기는 것들 가운데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 :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은 가증한 족 먹지 못할지니...”

177. 레 11:44, 땅에서 기어다니는 짐승을 먹지 말라 : “땅에 기는바 기어 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178. 레 11:42, 벌레를 먹어서는 안된다 :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가증함이니라.”

179. 레 11:43, 가증스러운 짐승을 먹지 말라 : “또한 그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지 말라.”

180. 신 14:21, 자연적으로 죽은 짐승을 먹어서는 안된다 :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니.”

181. 출 22:30(EVV 31), 사람은 들에서 짐승에게 찢겨죽은 동물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된다 :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고기를 먹지 말고...”

182. 신 12:23, 살아있는 짐승으로부터 몸 동아리 부분을 먹어서는 안된다 :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할지니...”

183. 창 32:33(EVV 32), 넓적다리 힘줄을 먹어서는 안된다 :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184. 레 7:26, 피를 먹어서는 안된다 : “너희는 사는 모든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185. 레 7:23,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어서는 안된다 :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라.”

186. 출 23:19, 사람은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살아서는 안된다 :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187. 출 34:26, 어린 염소를 그 어미젖으로 삼아 먹어서는 안된다 :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188. 출 21:28, 사람은 돌에 맞아 죽은 소를 먹어서는 안된다 :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189. 레 23:14, 새 곡식으로 만든 빵을 먹어서는 안된다 : “너희는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먹지 말지니.”

190. 레 23:14, 볶은 새 곡식으로 만든 빵을 먹어서는 안된다 :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볶은 곡식이든지... 먹지 말지니...”

191. 레 23:14, 생이삭을 먹어서는 안된다 :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은 가져오는 그 날까지... 생이삭 이든지 먹지 말지니.”

192. 레 19:23, 할례 받지 못한 열매를 먹어서는 안된다 :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삼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193. 신 22:9, 혼합해서 재배한 것의 산물을 먹어서는 안된다 :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194. 신 32:38, 우상에게 드려진 포도주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전제의 술을 마시던 것들로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하라.”

195. 레 19:26, 피 위에 고기를 먹어서는 안된다 :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 채먹지 말며.”

196. 레 23:29, 속죄일에는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된다(금식) :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197. 출 13:3, 사람들은 유월절 날에 누룩을 먹어서는 안된다 :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 되었던 입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198. 출 12:2, 유월절 날에는 누룩이 든 음식은 어떤 것이든 먹어서는 안된다 :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 먹지 말고.”

199. 신 16:3, 나산월 제 14일의 중간(유월절 전날)이후에는 누룩을 섞은 것을 먹어서는 안된다 :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200. 출 13:7, 유월절을 기념하는 동안 어떠한 누룩도 눈에 띄어서는 안된다 :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려 네 지경 안에서 누룩을 네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201. 출 12:19, 유월절을 기념하는 동안 집에 어떠한 누룩도 없어야 한다 : “칠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H. 나실인과 관련한 금지들

202. 민 6:3, 나실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 :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203. 민 6:3, 나실인은 생포도를 먹어서는 안된다 : “생포도도 먹지 말지니.”

204. 민 6:3, 나실인은 건포도를 먹어서는 안된다 :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205. 민 6:4, 나실인은 포도씨를 먹어서는 안된다 : “포도나무 소산은 씨도 먹지 말지며.”

206. 민 6:4, 나실인은 포도껍질을 먹어서는 안된다 : “포도나무 소산은 껍질도 먹지 말지며.”

207. 민 6:7, 나실인은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여져서는 안된다 : “그 부모 형제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208. 민 6:6, 나실인은 시체가 있는 장막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209. 민 6:5, 나실인은 머리를 깎아서는 안된다 :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I. 농업과 관련한 금지들

210. 레 23:22, 자기 밭의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서는 안된다 :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211. 레 19:9, 추수하던 중 떨어진 곡물을 주워서는 안된다 :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212. 레 19:10, 포도원의 열매를 따기 위하여 두 번째 가서는 안된다 : “너희 포도원에 두 번째 가지 말라.”

213. 레 19:10, 수확 중에 떨어진 포도를 다시 주워서는 안된다 :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214. 신 24:19, 떨어진 이삭을 취하기 위해 돌아서서는 안된다 :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 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215. 레 19:19, 두 종류의 씨를 함께 뿌려서는 안된다 :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216. 신 22:9, 포도원에서 두 종류의 씨를 뿌려서는 안된다.(M.은 포도원에서 곡식을 뿌리다) :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217. 레 19:19, 두 종류의 동물을 교합시켜서는 안된다 : “네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218. 신 22:10, 두 종류의 짐승들을 함께 일을 시켜서는 안된다 : “너는 소와 나귀를 겨리하여 같지 말며...”

219. 신 25:4, 짐승으로 하여금 일 가운데 먹는 것을 금지시켜서는 안된다 :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 고전 9:9-10,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나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

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 딤편 5:17-18,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쑥과 가르침
 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
 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군이 그 샅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220. 레 25:4, 일곱 번째 해에는 땅에 씨를 뿌려서는 안된다 : “제 칠년에는 땅으
 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너는 그 밭에 파종하지 말지니라.”

221. 레 25:4, 일곱 번째 해에는 가지치기를 해서는 안된다 : “제 칠년에는 땅으
 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네 포도원의 가지치기를 하지 말라.”

222. 레 25:5, 일곱 번째 해에는 추수를 하여서는 안된다 : “너의 곡물의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라.”

223. 레 25:5, 일곱 번째 해에는 포도를 거두어서는 안된다 : “포도나무의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224. 레 25:11, 희년의 땅을 갈아서는 안된다 : “그 오십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
 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
 라.”

225. 레 25:11, 희년에는 스스로 자라는 것을 거두어서는 안된다 : “스스로 난 것
 을 거두지 말며...”

226. 레 25:11, 희년에 열매를 거두어서는 안된다 :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
 두지 말라”

227. 레 25:23, 다른 사람의 기업을 팔아서는 안된다 :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228. 레 25:33, 레위인의 땅은 변경되어서는 안된다 : “레위 사람이 만일 무르지
 아니하면 그 기업된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대저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얻은 기업이 됨이니라.”

229. 신 12:19, 레위인들의 필요한 것을 저버려서는 안된다 : “너는 삼가서 네 땅
 에 거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J. 상업과 관련한 금지들

230. 신 15:2, 일곱째 해 후에는 채무의 지분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 “무릇 그 이
 웃에게 꾸어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와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231. 신 15:9, 제 칠년이 가까워 오는 것으로 인하여 가난한 자에게 꾸어주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안된다 : “곧 이르기를 제 칠년 면제년이 가까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 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라.”

232. 신 15:7, 가난한 자에 대한 도움을 거절하여서는 안된다 :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박히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233. 신 15:13, 가난한 히브리 종을 빈손으로 보내서는 안된다 :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234. 출 22:24(EVV 25), 사람은 가난한 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해서는 안된다 : “네가 만일 나와 함께 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채주같이 하지 말며...”

235. 레 25:37,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어서는 안된다 :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236. 신 23:20(EVV19), 다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어서는 안된다 : “네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237. 출 22:24(EVV25), 사람은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아서는 안된다 : “변리를 받지 말 것이며...”

238. 레 19:13, 임금 지급을 지연하여서는 안된다 : “품군의 값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 마 20:8,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군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값을 주라 하니,”

239. 신 24:10, 강제로 전당물을 취하여서는 안된다 : “네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집물을 취하지 말고,”

240. 신 24:12, 만일 그가 필요로 할 때, 가난한 자의 전당물을 계속 가지고 있어서는 안된다 : “그가 가난한 자여든 너는 그의 전집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241. 신 24:17, 과부로부터 전당물을 잡아서서는 안된다 :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242. 신 24:6, 사람이 멧돌로 생계를 얻고 있을 때, 그것을 전당잡아서는 안된다 : “사람이 멧돌의 전부나 그 위작만이나 전집하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집함이니라,”

243. 출 20:13, 훔치는 것(M. 유괴)은 금지된다 : “도적질(M. 유괴)하지 말지니라.”

- 마 19:18,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244. 레 19:11, 도둑질을 하여서는 안된다 :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245. 레 19:13, 약탈 (M. 폭력으로)을 하여서는 안된다 : “늑탈하지 말며(M. 폭력으로).”

246. 레 19:14,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야 한다 :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네 기업 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의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247. 레 19:13, 다른 사람을 압제하여서는 안된다 : “너는 네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 막 10:19,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속여 취하지 말라.”

248. 레 19:11, 거짓말을 하여서는 안된다 : “서로 거짓말 하지 말며.”

- 골 3:9,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249. 레 19:11, 다른 사람을 속여서는 안된다(M. 거짓으로 맹세하여서는 안된다) : “속이지(거짓으로 맹세하지) 말며.”

- 마 19:18, “예수께서 가라사대... 거짓증거하지 말라.”

250. 레 25:14, 상업거래에서 서로를 속여서는 안된다 : “네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 엡 4:25,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251. 레 25:17,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된다 :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252. 출 22:20(EVV21), 이방인으로부터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된다 : “너희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253. 출 22:20(EVV21), 이방인을 압제해서는 안된다 :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254. 신 23:16(EVV15), 도방친 노예를 그의 주인에게 돌려서는 안된다 :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네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로 돌리지 말고.”

- 몬 12-16, “네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심복이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들 자라.”

255. 신 13:16(EVV16), 도피한 노예로 인하여 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 “그가 너의 성읍 중에서 기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256. 출 22:21(EVV22), 사람은 과부와 고아를 억압해서는 안된다 :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 약 1:27,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257. 레 25:39, 이스라엘 사람을 노예로서 일하게 해서는 안된다 : “네 동족이 빈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258. 레 25:42, 이스라엘 사람을 종으로 팔아서는 안된다 :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라.”

259. 레 25:43, 이스라엘 사람인 일꾼을 잔인하게 다루어서는 안된다 :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260. 레 25:53, 인방인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일꾼을 잔인하게 다루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 “주인은 그를 매년의 샅군과 같이 여기고 너의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못하리라.”

261. 출 21:8, 사람은 자신의 히브리 여종을 팔아서는 안된다 : “그는 여자로 구속되게 할 것이요, 그 여자를 외국인에게 팔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262. 출 21:10, 만일 사람이 자신의 히브리여종과 결혼하면 그는 그녀의 음식과 의복 그리고 결혼상의 권리들을 빼앗지 못한다 :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못할 것이요.”

263. 신 21:14, 여자 포로를 팔아서는 안된다 :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라.”

264. 여자 포로를 노예처럼 다루어서는 안된다 : “네가 그를...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265. 출 20:17,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서는 안된다 :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 롬 13:9,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266. 신 5:18(EVV21),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서는 안된다 :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 눅 12:15,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267. 신 23:26(EVV25), 이웃의 곡식을 거두어서는 안된다 :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268. 신 23:25(EVV24),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열매를 취하여서는 안된다 :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269. 신 23:3, 이웃의 잃어버린 물건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 “못 본체 하지 말 것이며...”

- 눅 14:5,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270. 출 23:5, 사람은 무거운 짐 아래 깔린 사람이나 짐승을 돕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안된다 :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마 12:11,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271. 레 19:35, 잘못된 저울과 자로 사람을 속여서는 안된다 : “너희는 재판에든지 도량형에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272. 신 25:13, 정확치 못한 저울을 가져서는 안된다 : “너는 주머니에 같지 않은 저울 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K. 공의의 집행과 관련한 금지들

273. 레 19:15, 공의를 왜곡하여서는 안된다 : “너희는 공의를 왜곡하지 말라.”

- 마 27:19,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274. 레 19:15, 재판장은 판결에 있어 뇌물을 받아서는 안된다 :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275. 레 19:15, 재판관은 편파적이어서는 안된다 : “세력 있는 자라고 두호하지 말고.”

- 약 2:3,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276. 신 1:17, 재판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277. 레 19:15, 재판관은 가난한 자라고 호의를 보여서는 안된다 :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278. 출 23:6, 재판장은 가난한 자를 차별대우하여서는 안된다 :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279. 신 19:13, 재판장은 정죄 받은 자에 대해 자비를 가져서는 안된다 : “네 눈이 그를 긍휼히 보지 말고 무죄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280. 신 24:17, 재판관은 타국인이나 고아를 위한 정의를 급게 해서는 안된다 :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281. 출 23:1, 사람은 거짓된 보도들을 퍼뜨려서는 안된다(M. 상대방이 없는 상태에서 한쪽 소송당사자의 말을 듣는 것은 금지된다) :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282. 출 23:2, 재판장은 다수의 무리에 의해 설득되어서는 안된다 :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 마 27:24,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민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283. 출 23:2, 재판장은 다수를 따라 기울므로써 정의를 왜곡하여서는 안된다 :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 마 27:25-26,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 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박히게 넘겨주니라.

284. 신 1:17, 재판하는 자는 재판에 있어서 편파성을 보여서는 안된다(M. 토라에 숙달되지 않는 사람은 재판하는 자로서 임명되어서는 안된다) : “재판에 있어 그 행한 것을알기 전에 결정하느냐.”

285. 출 20:16, 사람은 거짓된 증언을 하여서는 안된다 :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말지니라.”

- 행 6:13,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286. 출 23:1, 사람은 죄인을 위하여 거짓 증거를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287. 신 24:16, 피고의 친척들로부터 증언을 받아서는 안된다 :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288. 신 19:15, 한사람의 증인으로 판결을 내려서는 안된다 :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 고후 13:1,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 딤후 5:21,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289. 출 20:13,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여서는 안된다 : “살인하지 말지니라.”

- 벰전 4:1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으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290. 출 23:7, 사람은 정직한 사람을 벌하여서는 안된다(M. 오직 상황의 증거에만 기초하여 판결하자) :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 마 27:22-23,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이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291. 민 35:30, 한 사람의 증인의 증거로 인하여 죽음에 넘겨져서는 안된다(M. 한 명의 증인이 재판장으로 행동해서는 안된다) :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 마 26:60-61,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292. 민 35:12, 재판 없이 사형당해서는 안된다 :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 마 26:57,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293. 신 25:12, 범죄자에 대하여 동정심을 가져서는 안된다 : “네 눈이 그를 불쌍히 보지 말지니라.”

294. 신 22:26, 강제로 범죄를 생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된다 : “처녀에게는 아무 것도 행치 말 것은...”

295. 민 35:31, 살인자로부터 속전을 받아서는 안된다 :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 마 27:15,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 주는 전례가 있더니.”

296. 민 35:32, 사람을 죽인 자로부터 속전을 받아서는 안된다 : “또 도피성에 피한 자를 대제사장의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 것

이 나라.”

297. 레 19:16, 다른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구출하는 것을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 “너희는 너희 친구의 피 옆에 서 있지 말라.”

- 눅 10:30-32,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298. 신 22:8, 집에 위험한 함정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 : “그 피 흐른 죄가 네 집으로 돌아갈까 하노라.”

299. 레 19:14, 나쁜 충고로 다른 사람을 오도하여서는 안된다 :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며.”

- 롬 14:13,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300. 신 25:2-32, 죄인을 때릴 때 그 죄에 합당하게 때릴 것이요 그 이상을 때려서는 안된다 : “그 죄의 경중대로 여수히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 고후 11:24,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감한 때를 다섯 번 맞았으며,”

301. 레 19:16, 비방을 퍼뜨려서는 안된다 : “너는 네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 롬 3:8,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 받는 것이 옳으니라.”

302. 레 19:17, 이웃에 대하여 마음 가운데 악의를 품어서는 안된다 :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 마 18:15,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303. 레 19:7, 이웃을 올바르게 하는데 실패하여서는 안된다 :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 눅 17:3,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304. 레 19:18, 보복하고자 추구하여서는 안된다 : “원수를 갚지 말며.”

- 롬 12:19,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305. 레 19:18, 원망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된다 : “원망하지 말며.”

306. 신 22:6, 새끼 새를 취할 때 어미 새도 함께 취하여서는 안된다 :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라.”

307. 레 13:33, 문둥병자의 환처를 깎어서는 안된다 : “그는 모발을 밀되 환처는 밀지 말 것이요...”

308. 출 24:8, 문둥병 상처를 제거하거나 감추어서는 안된다 : “너희는 주의하여 행하라.”

309. 신 21:4, 붉은 송아지의 의식을 위하여 사용될 골짜기에서 씨를 뿌리거나 일을 하여서는 안된다 : “쟁기질하거나 경작되지 않은 골짜기...”

310. 출 22:17, 무당을 살려두어서는 안된다 :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311. 신 24:5, 신랑에게 결혼 첫해 동안 군복무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 “그를 군대로 내어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일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312. 신 17:11, 율법(M. 전승)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하여 반역하지 말라 :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여기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313. 신 13:1(EVV 12:32), 율법에 무엇을 더하여서는 안된다 : “그것에 더하지 말라”

- 막 7:7,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 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314. 신 13:1(EVV 12:32), 율법을 변화시켜서는 안된다 : “그것에 더하지 말라.”

- 마 5: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315. 출 22:27(EVV 28), 사람은 하나님(M. 재판장)을 저주해서는 안된다 : “너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

- 뎬전6:1,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책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316. 출 22:27(EVV 28), 사람은 통치자를 저주해서는 안된다 : “백성의 유사(有司)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 행 23:4, “결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317. 레 19:14, 귀머거리를 저주하여서는 안된다 :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318. 출 21:17(EVV 18), 사람은 자신의 부모를 저주해서는 안된다 :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319. 출 21:15, 사람은 자신의 부모를 때려서는 안된다 :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320. 출 20:10, 사람은 안식일에 일하여서는 안된다 : “아무 일도 하지 말라.”

321. 출 16:29, 사람은 안식일에 여행하여서는 안된다 :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 칠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322. 출 35:3, 사람들은 안식일에 불을 피워서는 안된다 :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323. 출 12:16, 사람들은 유월절 첫날에 일하지 말아야 한다 :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324. 출 12:16, 사람들은 유월절 일곱째 날에 일하지 말아야 한다 : “제 칠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아무 일도 하지 말라.”

325. 레 23:21, 칠칠절에는 일해서는 안된다 : “이 날에 너희는...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326. 레 23:25, 일년의 첫날(Rosh Hashanah)은 일해서는 안된다 :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327. 레 23:35, 장막절 첫날에는 일해서는 안된다 : “첫째 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328. 레 23:36, 장막절 여덟 번째 날에는 일해서는 안된다 : “제 팔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329. 레 23:28, 속죄일에는 일해서는 안된다 :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L. 가족 관계와 관련한 금지들

330. 레 18:7, 자기의 어머니와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된다 : “네 어머니의 하체는 곧 네 아버지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 고전 5:1,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도다.”

- 고전 6:18, “음행을 피하라.”

331. 레 18:8, 계모와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된다 :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332. 레 18:9, 자매(여자 형제)와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된다 : “너는 네 자매 곧 네 아버지의 딸이나 네 어미의 딸이나 집에서나 타처에서 출생하였음을 물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333. 레 18:11, 자신의 이복 자매와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된다 : “네 계모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 누이니 너는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334. 레 18:10, 자신의 아들의 딸과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된다 : “너는 손녀의 하체를 범치 말라.”

335. 레 18:10, 자신의 딸의 딸과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된다 : “너는 외손녀의 하체를 범치 말라.”

336. 레 18:10(M, 자신의 딸의 딸과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된다 : 이것이 토라에 명백히 언급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딸의 딸과의 관계를 금하는 사실에서 은연중 암시됨을 알 수 있다)

337. 레 18:17, 어떤 여자와 그의 딸을 함께 범해서는 안된다 :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치 말라.”

338. 레 18:17, 어떤 여자와 그의 손녀를 함께 범해서는 안된다 : “또 그 여인의 손녀를 아울러 취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339. 레 18:17, 어떤 여자와 그의 외손녀를 함께 범해서는 안된다 : “또 그 여인의 외손녀를 아울러 취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340. 레 18:12, 아버지의 자매와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된다 : “너는 고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341. 레 18:13, 어머니의 자매와 성관계 가져서는 안된다 : “너는 이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342. 레 18:14, 아버지의 형제의 부인과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된다 : “너는 네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343. 레 18:15, 아들의 아내와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된다 : “너는 자부의 하체를 범치 말라.”

344. 레 18:16, 자기 형제의 아내와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된다 : “너는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치 말라.”

345. 레 18:18, 자기의 아내가 살아 있는 동안 아내의 자매와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된다 :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 형제를 취하여 하체를 범하여 그로 투기케 하지 말지니라.”

346. 레 18:19, 월경 중에 있는 여자와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된다 : “너는 여인이 경도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347. 레 18:20, 다른 사람의 아내와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된다 : “네 이웃의 아내와 성관계를 갖지 말지니라.” 참조 출20:14 신5:17(EVV 18), “간음하지 말지니라.”

- 마 5:28,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348. 레 18:23, 동물과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된다 :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349. 레 18:23, 여자는 동물과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된다 :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350. 레 18:22 동성간에 성행위를 행하여서는 안된다 :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 롬 1:26-27,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351. 레 18:7, 자기의 아버지와 동성 성관계를 범해서는 안된다 : “네 아비의 벌거벗음을 벗기지 말라.”

352. 레 18:14, 아버지의 형제와 동성 성관계를 범해서는 안된다 : “너는 네 아비 형제의 벌거벗음을 벗기지 말라.”

353. 레 18:6, 가까운 친척과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된다 : “너희는 골육지친을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354. 신 23:3(EVV 2), 금지된 결혼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과 결혼하여서는 안된다 : “사생자는 여호와와 그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355. 신 23:18(EVV 17), 창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356. 신 24:4, 이혼한 여자는 자신의 전 남편과 결혼하여서는 안된다 : “그를 내 어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 눅 16:18,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린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357. 신 25:5, 과부는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되고 오직 남편의 형제와 결혼해야 한다 :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358. 신 22:29, 어떤 여자를 강간함으로써 그녀와 결혼한 자는 그녀와 이혼해서는 안된다 :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359. 신 22:19, 자기 아내를 비방한 자는 아내와 이혼해서는 안된다 : “그 여자로서 그 남자의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360. 신 23:2(EVV 1), 거세된 자는 이스라엘 총회 가운데 결혼해서는 안된다 : “신앙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361. 레 22:24, 거세는 금지된다 : “너희는 불알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베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M. 왕과 관련한 금지들

362. 신 17:15, 왕은 이스라엘 집으로부터 말미암아야 한다 :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363. 신 17:16, 왕은 많은 말을 가져서는 안된다 :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364. 신 17:17, 왕은 많은 아내를 가져서는 안된다 :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요...”

365. 신 17:17, 왕은 많은 부를 쌓아서는 안된다 :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참고 문헌

1. 국내서적

- 곽안전, *한국교회사*, 서울: 기독교서회, 1970
- 강경규, "한국개신교의 새벽기도 영향," D.Min diss., Dubuque Theological Seminary, 2000.
- 구파발교회 30년사 편찬위원회, *구파발교회 30년사*, 서울: 소망사, 1990.
- 구파발교회 40년사 편찬위원회, *구파발교회 40년사*, 서울: 소망사, 1998.
- 기독교 대백과 사전*, 서울: 기독교문사, 1982
- 김광수, *한국민족 기독교 100년사*, 서울: 기독교문사, 1978.
- 김득용, *주교 교육학*, 서울: 정음출판사, 1973.
- 김상학, *총회회의안 및 보고서(제87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 김양선, *한국기독교사 연구*, 서울: 기독교문사, 1971.
- 김영진, *그랜드종합주석, Vol. 14*, 서울: 성서교제주식회사, 1998.
- 김종석, *구역예배공과*, 서울: 예장총회출판부, 1984
- 김지철, "성만찬에 대한 바울의 신학적 이해," *교회와 신학*, 1977년 3월호.
- 김진환, *한국교회 부흥운동사*, 서울: 크리스찬 비전사, 1976.
- 대한기독교교육협회, *한국기독교교육사*,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74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말씀과 삶*,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 마포삼열, *조선예수교 장로회총회 제10, 19, 20, 23회 회의록*, 평양: 광문서, 1920.
- 류태영, *이스라엘 민족정신의 뿌리*, 서울: 아가페출판사, 1981.
- _____, *천재를 만드는 유대인의 가정교육법*, 서울: 국민일보사, 2001.
-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서울: 연세대학 출판부, 1973.
- 서울서북노회 훈련원, *총회교육부의 새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강의안, 제2회
서울서북노회 목회자세미나, 2004
- 설은주, *가정 사역론*,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1997.
- 성서연구회, *유대인의 정체 의식*, 서울: 맥밀란, 1984.

- 손학풍, "한국교회 부흥회와 교회성장의 관계에 관한연구,"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87.
- 오만규, "성경공부와 사경회제도가 교회성장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D.Min. diss., 호남신학대학, 2001.
- 유동식, *한국신학의 광맥*, 서울: 전망사, 1982.
- 왕대일, *신앙공동체를 위한 구약성서 이해*, 서울: 성서연구사, 1993.
- 은준관, *교육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5.
- 이만열 외, *한국기독교와 민족운동*, 서울: 보성, 1986.
- 이정석, *한국교회의 성화사상 교회의 영적 성장 방법론*, 강의안, 서울: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4.
- 이양구, *구약시대의 사회풍습*,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1994.
- 이원규, *한국교회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성서연구사, 1996.
- 이현희, "1920년대 국내 민족운동연구," *자유학보* 제20호, 1976.
- 이효재, *가족과 사회*, 서울: 도서출판사 경문사, 1996.
- 임종헌, *성장 20년사*, 서울: 구파발 교회, 1978.
- 임종헌, *구파발교회 교인 수첩*, 서울: 구파발교회, 1988.
- 장희근, *한국장로교회사*, 서울: 아성출판사, 1970.
- 정기덕, *장로회신학대학 성경종합시험문제집*, 서울: 교문사, 1987.
- 정명섭, *세계의 20대 교회들*, 서울: 요단출판사, 1985.
- 정응섭, *기독교교육의 새 전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2.
- 정정숙, *성경적 가정사역*, 서울: 베다니출판사, 1994.
- 전종자,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기독교교육*, 1987년 5월호.
- 조선주일학교 연합회, *주일학교통신*, 1928년 4월 1일자.
- 주선애, *장로교 여성사*, 서울: 혜선문화사, 1979.
- 최광렬, *비전스타트*, 서울: 도서출판 프란시스, 2003.
- 최명덕, "설교를 위한 유대관습 연구," *두란노 목회자료 큰 백과* 제8권, 서울: 두란노출판사, 1996.
- 최한구, *유대인은 EQ로 시작하여 IQ로 승리한다*, 서울: 도서출판 한글, 1998.

- 최신해, *유대인과 한국인*, 서울: 일요신문발행, 1976.
- 한국 기독교 교육학회, *21세기 기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 한미준, *한국 개신교인의 교회활동과 신앙의식*,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9.
- SH공사, "뉴타운 조성공사," *행복한 도시 생활의 열린 파트너 SH공사*, 2004
- 현용수, *유대인의 자녀교육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 제1, 2, 3권, 서울: 조선일보사, 1998.
- _____, *부모여 자녀를 제자 삼아라*, 서울: 아름다운 세상, 2000.
- _____, *성공집단 유대인의 인성교육 노하우 1*, 서울: 서로사랑, 2004
- 한영제, *기독교백과사전* 제1권, 서울: 기독교문사, 1980.
- _____, *기독교 사전*, 서울: 기독교문사, 1991.

2 번역서적

- Abba, Raymond, *기독교예배의 원리와 실제 (Principles of Christian Worship)*, 허경삼 역,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74
- Barclay, William, *고대세계의 교육사상 (Educational Ideals in the Ancient World)*, 유재덕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 Bigner, Bigner J, *부모교육 입문 (Parent-Child Relations)*, 이경우, 이은화 역, 서울: 창지사, 1995.
- Brandt, Henry R, and Homer E. Dowdy, *결혼과 가정교육 (Building A Christian Home)*, 양은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2
- Edith Deen, *성서적 가정관 (Family Living in The Bible)*, 도한호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3.
- Foster, Richard J, *영적 훈련과 성장 (Celebration of Discipline)*, 권달천, 황을호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3.
- Fowler, James W, *신앙의 발달 단계 (Stages of Faith)*, 사미자 역,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출판국, 1987.
- Goforth, Jonathan, *1907 한국을 휩쓴 성령의 불길 (When the Spirit fire swept*

- Korea*). 김용련 역, 서울: 생명줄사, 1977.
- Groome, Thomas H. *기독교적 종교교육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이기문 역,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출판국, 1984.
- Harris, R. L., G. L. Archer and B. K. Waltke, *구약원어신학사전 (Theological Word Book of the Old Testament)*, Vol. 1, 서울: 요단 출판사, 1986.
- Heim, Karl, *기독교윤리 (Die Christliche Ethik)*, 강학철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82.
- Hiltner, Seward, *목회와 신학원론 (Preface to Pastoral Theology)*, 민경배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8.
- Kittel, Gerhard & G. Friedrich, *신학성서 신학사전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a Testament)*, 신약원어 신학사전 번역위원회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87.
- Little, Sara, *기독교 교육 교수 방법론 (To Set One's Heart)*, 사미자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국, 1988.
- Maston, T.B. and Willian M. Tillman Jr, *성서 그리고 현대가정 (The Bible and Family Relations)*, 이석철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1.
- Miller, Donald E. *기독교교육 개론 (Story and Context)*, 고용수, 장종철 역, 서울: 광나루, 1991.
- Niebuhr, H. Richard, *그리스도와 문화 (Christ and Culture)*, 김재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 Niesel, Wilhelm, *칼빈 신학*, 이종성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3.
- Palmer, Parker J. *기독교 교육 인식론 (To Know As We Are Known)*, 박원호 역, 서울: 광나루, 1991.
- Seymour, Jack L. and Donald E. Miller, *오늘의 기독교교육 연구 (Contemporary Approaches Christian Education)*, 맹용길, 임영금 외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0.
- Seyoon, Kim, *바울복음의 기원 (The Origin of Paul's Gospel)*, 홍성희 역,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2001.
- Shilo, Ruth, *아들딸은 유태식으로 키워라 (Raise A Child AS Jew)*, 감현수, 방계숙

역, 서울: 민지사, 2000.

Smart, J. D. *교회의 교육적 사명 (The Teaching Ministry of The Church)*, 장운철

역, 서울: 대한기독교 교육협회, 1990.

Taylor, Marvin J. *기독교 교육의 새 방향 (Changing Patterns of Religious Education)*, 이기문 역,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 출판국, 1985.

Tokayer Marvin, *팔막한 달무드*, 서울: 기독 태인 문화사, 1989.

Westerhoff III, John H. *교회의 신앙 교육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정응섭 역,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86.

3. 외국서적

Backer, Russel J. *Family Pastoral Car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3

Benware, P. N. *Survey of the Old Testament*, Chicago: Moody., 1988.

Birnbaum, Philip. *Encyclopedia of Jewish Concepts*, New York: Hebrew Publishing Company, 1991.

Blair, W. N. *Gold in Korea*, New York: Presbyterian Church in the U. S. A, 1957.

Clerke, F. L. *The Korea Mission Field*, 1921,3

Crenshaw, J. L. *Old Testament Story and Faith*, Peabody: Hendrickson, 1992.

Donin, Hayim Halevy. *To Raise A Jewish Child: A Guide for Parents*, New York: Basic Books, 1977.

_____. *To Be A Jew: A Guide to Jewish Observance in Contemporary Life*, New York: Basic Books, 1972.

Drazin, N. *History of Jewish Education*, Baltimore: The Johns Hopkins Press, 1940.

Howell, John C. *Church and Family Growing Together*, Nashville: Broadman Press, 1984.

Kittel, Gerhard & G. Friedrich,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65.

Kling, Simcha. *Embracing Judaism*, New York: The Rabbinical Assembly, 1987.

- Lamm, Maurice, *Living Torah in America*, West Orange, NJ: Behrman House Inc., 1993
- Lernke, Werner E, "Theology(Old Testament)," *ABD* VI (1992): 448-473.
- Leonard, Joe Jr, *Planning Family Ministry*, Valley Forge: Judson Press, 1982
- Martin, Thomas M, *Christian Family Values*, New York: Paulist Press, 1984.
- Macleod, Donald, *Presbyterian Worship*, Virginia: John Knox Press, 1965.
- Ortlund, Anne, *Disciplines of the Home*, Word Publishing, 1990.
- Scherman, Nosson, *The Complete Art Scroll Siddur*, New York: Mesorah Publication Ltd., 1992.
- _____ & Meir Zlotowitz, eds, *The Chumash*, Brooklyn: Mesorah, 1994.
- Sherrill, Lewis Joseph, *The Rise Of Christian Education*,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94
- Sherrill, Helon Hardwicke, *Christian Parenthood: A Lifetime Guide*, Richmond: The Covenant Life Curricul Press, 1964
- Smith, Leon and Edward D. Steples, *Family Ministry Through the Church*, Tennessee: Nashville Press, 1967.
- Taylor, William M, *Moses the Law-Giver*, New York: George H. Doran Company, 1907.
- Underwood, Horace Grant, *The Call of Korea*,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908.
- Vaux, Roland de, *Ancient Israel*, Translated by John McHugh, London: Darton Longman and Todd, 1974

Vita of
Eul Young Oh

Present Position

Senior Pastor of Gupabal Presbyterian Church, Seoul, Korea

Personal Data

Birthdate: January 25, 1957
 Marital Status: Married to Mi Hyang Shin in October 24, 1987
 Home Address: 423-1 Jinkawnoy-dong, Enpyong-gu, Seoul, Korea
 Denomination: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Ordained: September 21, 1958

Education

B. M.: Aju University, Suwon, 1983
 M. Div.: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Seoul, 1986
 MA, InChEd: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Seoul, 2000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05

Personal Experience

2000 to Present	Gupabal Presbyterian Church, Senior Pastor
1993 to 2000	Youngnak Presbyterian Church, Pastor
1988 to 1993	Sinill Presbyterian Church, Pastor
1986 to 1987	Sudong Presbyterian Church, Evangelist